

남한산성 성불사 주지 학명 스님
'나눔 · 봉사 · 배려'
스승 가르침 40년 실천
16 · 17면

창간 20년
2014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12월 15일) · 주간

제 975호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 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희귀 조선불화 1세기 유랑 마치고 귀향

국외문화재재단, 7일 공개… 18세기 추정 희귀작 평가

일제 때 유출돼 美·日 떠돌다
2차대전 종결 당시 적산 처분

아난·가섭존자가 전면 부각돼
마치 대화하는 듯 극적 표현
"섬세함 등 보기 드문 수작"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1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증방식으로 돌려받은 미국 버지니아 허미티지박물관 소장 조선불화를 공개했다.

석가모니의 설법 장면을 기존의 표현 방식과는 달리 파격적인 도상을 보여주는 휘귀 조선불화가 1세기의 유랑을 마치고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 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은 1월 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증방식으로 돌려받은 미국 버지니아 허미티지박물관 소장 조선불화를 공개했다.

이번 국외문화재재단이 공개한 조선불화는 18세기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보로 크기는 318.5㎝×315㎝, 비단에 채색됐다.

조선불화 전문가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광배나 대의(大衣)의 문양 등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의 양식이고, 삼존의 구도나 보살의 표현(보관과 영락장식)은 1731년에 제작된 송광사 응진전 '석가모니불도'와 매우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1730년대를 그 제작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상의 형식은 일반적인 조선불화와는 차이가 있다. 아난 존자와 가섭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의 좌우 상단부에 작은 모습 등으로 묘사된 기존의 것들과는 다르게, 두 인물이 석가모니 부처의 하단 전면에 크게 부각되어 서로 대화하듯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화전문가인 정우택 동국대 박물관장은 "불화 중 아난과 가섭존자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은 최초의 사례로 미술사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며 "1730년대 불화로 이후 불화양식에 선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회귀된 조선 불화는 일제 강점기 국내 어느 사찰에서 무단으로 뜯겨져 일본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반출 후에는 일본의 미술품상 '야마나카 상회'에 넘겨졌다. 이후 일본에서 보수된 후 미국 내 미술관 및 미술품 시장을 떠돌았다. 방치된 불화가 반환될 수 있던 것은 2011년 버지니아주 박물관협회가 '위험에 처한 문화재 10선'에 선정되면서부터다.

국외문화재재단이 2013년 5월 초 조사 작업 중 버지니아 박물관협회가 올린 관련 유튜브 영상에서 이 불화를 처음 발견한 것이다. 재단은 불화의 학술적 가치와 반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반환을 추진했다.

국외문화재재단은 "일본 야마나카 상회 미술품 상당수는 국내에서 불법 유출된 만큼, 향후 미국 정부가 압류한 야마나카상회 경매 목록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 노덕현 기자

"18세기 풍속화 영향 받은 듯"

아난·가섭 존자가 부각된 이유



환수된 석가삼존도 중앙아래에 배치된 아난(사진 왼쪽)과 가섭존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안휘준)에서 환수해 1월 7일 공개한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는 도상학적으로 매우 특이하다.

안휘준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아난존자와 가섭존자를 불화에서 이 작품처럼 부각시킨 것은 이 시대 동북아시아를 통틀어 이 불화뿐"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부처님의 두 제자를 클로즈업 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단원과 혜원의 풍속도에서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실존했던 제자들을 불화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은 18세기 실학적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올해 국고보조금 361억 원 책정

작년 대비 소폭 감소

조계종이 전통문화 전승 등 불교문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361억7000여 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총무원이 1월 10일 밝힌 '2014년도 종단 관련 국고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38억 6000여 만 원, 문화재청으로부터 23억1000여 만 원 등 총 361억7000여 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가 직접 개별 사찰에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9억4000여 만 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지원사업 가운데 충주 석종사 내 명상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직접예산 10억 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종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6000여만 원 감소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호국불교의승군기념관 건립, 사찰 등 문화재다량소장처 보존관리 등 2건으로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다.

지속 사업은 △템플스테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편찬사업 △호국불교사업 △연등회 △사진아카이브 구축 △청소년 마음등불 △전통사찰 전수조사 △10.27법난 기념사업 △전국 금석문 조사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폐사지 조사 및 정비 등 15건이다.

이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195억 원이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비해 10억 원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전통사찰 전수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5억 원이 인상된 6억 원이 배정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기 2558년 성도재일 특집 5·8·28·31

어머니 49재 올린 편지 28

수행력의 상징 最高 법계 대종사 품서

세민 · 정련 · 지성 · 대원 · 성파 · 성우 스님 받아

종단 최고의 법계(法階)이자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大宗師) 법계가 품서됐다. 대종사 법계 품서는 지난 2004년, 2008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세민 · 정련 · 지성 · 대원 · 성파 · 성우 스님에 대한 품서식과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됐다.

종정 진제 스님은 이들 스님들에게 직접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으며 자승 스님이 세민 · 정련 · 지성 · 대원 · 성파 · 성우 스님에게 불자를 봉정했다.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명득(明得)하야사 제불조사로 동참해 천상인간에 대자유인이 되리라"면서 "모든 사부대중은 대종사들을 여불(如佛)로 잘 받들지어다"라고 설했다.

세민 · 정련 · 지성 · 대원 · 성파 · 성우 스님은 대종사 법계 품수 후 발원문을 통해 끝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대종사 법계 품수를 받은 세민 스님은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와 서울 조계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조계종 원로의원 소임을 맡고 있다.

동국대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련 스님은 1968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했다.

지성 스님은 1976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초심호계위원, 법계위원, 능인학원 이사, 은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대원 스님은 1962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현재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과 원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1970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성파 스님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영축학원 이사장과 원로의원에 있다.

BTN불교TV 회장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성우 스님은 1967년 해인사에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호계위원과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대구 동화사=신중일 기자



조계종은 1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세민 스님이 종정 진제 스님에게 대종사 법계증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2014 연중기획

'행복으로 가는 길- 탐·진·치 줄이기'

불교의 최종 목적지는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으로 '탐 · 진 · 치'를 줄일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탐 · 진 · 치를 줄일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본지는 창간 20주년을 맞아 2014 연중기획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 탐 · 진 · 치 줄이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1회 '탐심 줄이기- 더 나누자' '진심 줄이기- 더 낮추자' '치심 줄이기- 더 비우자'를 실천하는 현장과 인물을 취재해 불교로 행복해지는 생생한 수행지침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9월 중 '탐 · 진 · 치 줄이기'에 대한 **신행 수기를 공모**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추후 공지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독송용)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지금 우리 절에서는 – 서울 종로 조계사

공동체 만들기 · 경내 불사
조계사는 지금 변화 중



조계사는 구랍 22일 서울시,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무역협약을 사찰로서는 세계 최초로 체결했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도문)는 일주문에 걸린 편액 '대한불교총본산' 이 말해 주듯 조계종을 대표하는 사찰이다.

현재 도심포교 100주년 기념관을 중심으로 성역화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계사는 내외적인 부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조계사가 지역 사회에서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것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마인드 케어 평생교육원은 2012년 5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를 주제로 도시마을공동체 실무과정을 운영했다. 이 곳 수료생들과 종로 지역법회, 대한불교청년회 회원들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동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행복마을센터' 를 발족하고 서울시 종로구와 2012년 7월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한 시작했다.그 첫 사업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수송공원 마을공동체-빌딩숲속 이웃사촌' 을 조계사 인근 수송공원에서 진행했고, '행복마을 협동조합' 을 설립해 종로구 봉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재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랍 22일에는 서울시,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무역협약을 사찰로서는 세계 최초로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무역도시, 서울'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공정무역사찰 협약에 따라 조계사는 사찰 내외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정무역 제품 사용을 포함한 윤리적 소비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내부 불사도 한창이다. 조계사는 구랍 19일 낙후된 공양간 시설을 리모델링해 '행복한 공간 만발 공양간' 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으며,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조계사 일주문에 현대미술기법으로 만들어진 사천왕상을 세우기도 했다.

조계사 사천왕상은 국내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스테인레스 조각을 이어 붙이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으며, 3년에 걸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앞으로 조계사는 올해 첫 불사로 어린이 포교를 위한 전용 법당을 건립에 들어갔다. 도심포교100주년기념관 지하에 건립되는 어린이 법당을 통해 조계사는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사 1월 법회 캘린더

1월 15일 보름미타재일법회 (법문– 종호 스님)
1월 18일 지장재일법회 (법문– 일문 스님)
1월 24일 관음재일법회 (법문– 시명 스님)
1월 31일 설 합동 다례재 (오전 8시, 오전 11시, 오후 1시)
1월 31일 갑오년 통알 의식 (오전 4시 50분) 문의 (02)768-8500

선원대중공양
1월 17일 대승사, 1월 22일 백담사(오전 6시 30분 일주문 앞 출발)
각 동참금: 40,000원

적멸보궁 탐방
2월 3일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 (오전 6시 30분 일주문 앞 출발)
동참금: 60,000원

약사기도 순례
2월 6일 팔공산 갓바위 선본사 (오후 6시 일주문 앞 출발)
동참금: 35,000원

2014 조계종 연수 교육 '확' 달라진다

법계별 교육부터 해외 연수 확대까지 '눈길'

조계종이 매년 실시하는 연수 교육이 올해에도 확 달라진다. 종단 최초로 법계별 교육이 실시되며, 지난해 많은 호응을 받았던 해외 불교 연수도 확대 시행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8일 '2014년 연수교육' 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2월 18일 '사찰경영지도자' 과정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법계 교육 △사찰경영과정 △경전 과정 △교양 과정 △전법 과정 △순례 과정 등 6개 과정, 총 31개 강좌로 진행된다.

이번 연수 교육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법계별' 연수교육이 종단 사상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이다. 교육원은 "종단 법계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및 현대 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을 위해 법계별 특성화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2박 3일 12시간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계별 연수는 △종단리더십실무과정(견덕 · 계덕, 승납 5~9년)4회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 (중덕 · 정덕, 승납 10~14년)2회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I (중덕 · 정덕, 승납15~19년)2회 △종단 지도자 과정(대덕 · 혜덕, 승납 20~24년)2회 △종단최고위과정(종덕 · 현덕, 승납25~29년)2회 등으로 구성되며 상 ·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2015년부터 법계별 연수교육을 수료해야만 1 · 2 · 3급 승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대상자 스님은 해당 강좌를 5년 내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한 스님에게는 연수점수 30점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처음 실시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해외순례 과정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오는 2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 과정 31개 강좌 개설
법계별 맞춤 교육 최초 실시

티베트 · 실크로드 · 미얀마 등
해외 불교 연수도 확대돼

이번에 진행되는 해외순례는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성지순례' '홍선스님과 함께하는 일본 고찰순례' '혜국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순례' '혜총스님과 함께하는 티베트 성지순례' '설정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미얀마 성지순례' 등 총6개 코스로 진행된다.

국내순례 역시 기존 '경주남산불적답사' '백제불교문화답사' 와 더불어 '폐사지 전문사 이지누 씨의 경주 폐사지 순례' 와 '흥선 스님의 경북 불교문화유산을 찾아서' 가 신설됐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조계종 연수 교육 프로그램 '일본 사찰 순례' 모습. 올해에는 실크로드, 티베트, 미얀마 등으로 해외 순례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경전 과정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 분야 등 총 6개 강좌로 △지안 스님의 '법화경' △고우 스님의 '백일법문' △해주 스님의 '화엄경–입법계품' △현봉 스님의 '선어록강좌– 원돈성불론' △각묵 스님의 '아비담마 길라잡이' △김호성 교수의 '동아시아 불교사' 가 개설됐다.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현대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양과정도 다채롭다.

교양과정에는 원로 물리학자인 장회익 서울대 명예교수의 '불교와 자연과학' 강좌를 비롯해 △황광우 작가의 '서양고전의 이해' △김이관 포니정홀 예술 감독의 '서양음악 감상법(바흐에서 비틀즈까지)' △유지나 동국대 교수의 '영화로 세상 읽기' △강신주 철학자의 '동양고전의 이해' △손철주 미술평론가의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등 6개 강좌를 선보인다.

스님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봉사활동 과정은 교구본사 복지법인 산하 8개 복지시설을 자원봉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전문인정과정도 14개 과정을 추가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지고 있는 스님들의 연수 교육비 지원은 '승납 10년 미만 50%' , '일반 스님 25%' 로 동일하게 운영된다.

교육부장 정도 스님은 "지난해에는 약 4000여 명의 스님들이 교육원 연수를 수료했고, 올해에는 4200여 명을 목표로 삼고 있을 정도로 연수교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스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비롯해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과거 폐습, 시비 벗어나는 한해 되자"

조계종 등 주요종단 신년하례
불기 2558년 종무 행정 시작

조계종 등 한국불교 주요종단들이 불기 2558년 신년을 맞아 시무식과 신년하례를 잇달아 열고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경내 통일기원대전에서 종정 스님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원로의원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종단 내 출재가 주요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종정 진제 스님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다.

진제 스님은 신년 하례 법어를 통해 "나무가 꽃에 집착하면 열매를 맺기 어렵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만 비로소 더 큰 바다에 들 수 있다"면서 "누적된 과거의 폐습, 시비와 갈등을 내려놓고 지계로서 심신을 청정히 하고, 수행과 기도와 포교로서 화합된 불자와 존경받는 승가가 되자"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1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에서 불기2558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과 진각종 등 주요종단들도 신년하례와 시무식을 열고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출가수행자는 구도의 등불을 밝히고 재가자는 각자의 기량에 따라 지혜와 복을 쌓으라"면서 "갑오년 한 해에는 물과 같은 덕행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고, 모으기 보다는 베풀며,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 갈등을 봉합하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시무식을 열고 갑오년 종무행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각 원장 스님들은 신년 인사를 통해 한해 지향해야 할 종무 행정 목표를 상기시켰다.

자승 스님은 신년 인사에서 "33대 집행부부터 매월 자비 나눔 방문을 진행해 왔다. 이제는 나눔과 봉사를 사부대중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신년하례법회 및 시무식을 봉행하고 새해 종무를 시작했다.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신년사에서 "활달하고 푸른 기운을 갖춘 진취적인 청마의 해를 맞아 부강한 나라와 국민행복 시대를 염원하며 국민과 불자 모두가 근본의 자리에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무식에서 도산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그간 모은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104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도 1월 3일 시무식과 신년하례식을 열고 한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성초 총인은 법어를 통해 "포교, 교육, 복지, 문화 관련 종단의 인사들이 함께 한 이 자리는 환희한 자리"라면서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종단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화합하고 정진할 때 서원은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푸른 말의 기상처럼 모든 기관이 원하는 바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창 종 공 고

봉 축

(사)대한불교 조계종



조국통일을 위한 서부전선 대한불교 대가람 총림 승가들의 거룩한 뜻을 모아
조국 평화통일을 위하여 모두 협력합시다.

종 정 일선 윤동암 대종사

총무원장 혜우 도암
법계위원장 도언 호법원장 법등 교육원장 덕산
사무총장 수봉 비구니회장 월암 비구니부회장 묘진. 묘각

종 도 일 동



평화통일사

종정 일선 윤동암 대종사

불기 2558(2014)년 1월 2일

■ 종정스님 주석사찰 :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76-35 (마정로 76-35) 평화통일사 ☎전화 031)952-7031

나부터 실천하는 사찰 에너지 줄이기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이젠, 녹색불교〉 펴내

조계사는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실시해 종무소 에너지 사용을 6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었다. 에너지 절약 실천단을 꾸려 꾸준히 교육하고 모니터링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멀티탭 온도계 등의 절약 제품을 보급한 결과였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소장 최원형)의 '사찰 에너지 10% 줄이기' 의 결과물이 책자로 나왔다. 〈이젠, 녹색불교〉는 사찰 혹은 불자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태적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지침서로 2013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내용을 책자로 엮었다.

이 책은 1 · 2부로 구성 되었다. 도시 · 생명 · 종교 세 파트로 나뉘어진 1부는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에너지와 생태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스님들이 법문용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한 분량과 내용으로 불자들이라면 자신들의 신행생활과 연결 지어 성찰할만한 내용들이 담겼다. 2부는 '생명의 종교 · 에너지 전환 · 삶 전환' 이란 부제를 달고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이웃종교의 에너지절약 실천과 탈핵 관련 활동을 실어 종교가 해야 할 활동 영역을 엿볼 수 있다.

물론 불교계의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적용사례, 탈핵활동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2009년 조계종환경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연구팀 구성 △2010년 생태사찰 워크숍을 실시한 마곡사 △불교계 최초 지열 난방을 실시한 포항 천곡사 등 자체 원력으로 태양광과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찰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찰들이 일회용품을 줄이고 화장실 용수에 빗물 이용 등을 통해 생태사찰과 에너지 사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사찰에 매달 정기법회 때 불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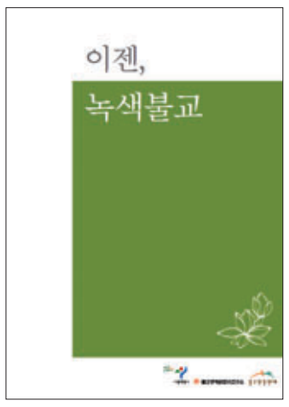
'생태사찰의 한 달' 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섹션은 △초하루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지구 청소의 날' △보름날은 환한 보름달과 함께 '한 시간 전깃불 끄고 달빛을 켜요' △지장재일은 구제역과 조류 독감, 그리고 각종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생각하며 '육식하지 않는 날' △관음재일은 북극 남극 아마존의 눈물을 닦으며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 등을 예로 들어 놓았다.

또한 각 파트의 말미에는 '환경보살의 삶' 이라는 코너를 두어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 에너지 쓰기, 물과 전기 아끼기, 재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실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계사와 함께 일 년 동안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던 일정과 교육 내용도 모두 기록해 놓았다. 또한 조계사 에너지 절약 체크 리스트를 예시로 실어 어느 사찰이든 바로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최원형 소장은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사찰에서는 캠페인성 행사보다는 플러그 뽑기 등 작은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찰 대부분이 전통문화재임을 감안해 태양열보다는 지열 난방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앞으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는 에너지 절약에 관심을 가지는 사찰 어디든 찾아다니며 강의와 상담을 해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책은 서울시 예산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무료 배포다. 필요한 사찰이나 관련 단체의 경우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10-8020-1123

정혜숙 기자



에너지 생태 사찰 되려면 이렇게

초하루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 머그컵을 사용하면 나무를 보호하고 소중한 숲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보름날 '전기불을 끄고 달빛을 켜요'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코드를 뽑으면 17억 명에게 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관음재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아프리카에 연간 16마리의 염소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지장재일 '육식하지 않는 날'
- 구제역과 조류독감 그리고 각종 실험으로 희생된 동물들을 생각합시다.

"문화재 관리 불교계와 긴밀한 협조"

나선화 신임 문화재청장, 자승 스님 예방

나선화 신임 문화재청장은 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나선화 청장은 "불교문화재는 문화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미래 가치를 개발하고 아시아 정신문화가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한국불교가 큰 역할을 할 것이기에 긴말한 협조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 청장은 그동안 숭례문 보수공사 문제를 의식한 듯 "열심히 일하고 정법 정도대로 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숭례문 사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난국에도 헤쳐나간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스님들의 가르침을 새겨들어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청장은 특히 "현재 문화재 관리 부분에 있어 청의 조직 및 예산이 미흡하다"며 "불교문화재가 문화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에 있어 불교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 청장은 "문화재청이 전국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조직 예산은 부족하다"며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으므로 조직 확대와 예산확보에도 도움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나 청장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발해 불교연구에도 관심 갖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승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는데 취임을 축하하고 불교문화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8일 총무원을 예방한 나선화 문화재청장에서 향꽃이를 선물하고 있다.


영국의 유명 쉐프 스티비 파를레가 1월 10일 서울 진관사에서 주지 계호 스님의 지도로 사찰음식 체험을 하고 있다.

"사찰음식의 건강함 배워갑니다"

영국 유명 쉐프 스티브 파를레 10일 진관사서 사찰음식 체험

"사찰음식에 담긴 건강한 정신을 배워갑니다. 앞으로 제 요리도 좀 더 간소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질 것 같아요."

어쩌면 영국 유명 레스토랑의 메뉴에 사찰음식이 더해질지도 모르겠다.

영국 〈가디언〉의 자매지 〈옵저버 푸드 매거진〉이 '2010년 올해의 젊은 요리인' 으로 꼽은 스티비 파를레(Stevie Parle)가 1월 10일 사찰음식 특화사찰로 지정된 진관사(주지 계호)를 찾아 사찰음식 만들기에 나섰다.

파를레는 런던에 위치한 'Dock Kitchen' 의 쉐프이자 음식평론가, 작가로 영국에서 떠오르는 스타 셰프. 그가 운영중인 레스토랑은 유기농 채소로 맛을 낸 메뉴로 외식업계를 선도하며 사람들에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영양 담긴 제철 음식이 최고 메뉴라는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더덕구이, 메생이국, 마밥을 만든 그는 오늘의 음식으로 더덕구이를 꼽았다. "고추장과 조청의 궁합이 매력적"이라며 음식 레시피를 요청하는가 하면, 틈틈이 휴대폰을 꺼내 조리과정을 담는 것도 잊지 않았다.

파를레는 "가장 좋은 조미료는 마음"이라는 계호 스님의 말에 크게 미소를 지으며 "요리를 가르칠 때 자신이 강조하는 것도 만드는 사람과 먹는 이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계호 스님은 사찰음식의 의미를 강조하며 "먹는 음식이 곧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파를레가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음식이 곧 보약이라는 약식동원(藥食同原)에 대해서는 그도 동의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찰음식의 재료, 방법, 특색 등을 궁금해하던 파를레는 진관사에서 직접 담근 된장 등을 맛보고 싶다며 장독대로 향하기도 했다. 파를레는 "건강은 물론 마음의 청정함을 추구하는 사찰 음식의 간소함과 정갈함을 배워간다"며 진관사에 고마워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관광공사 주최 한식체험 팸투어의 일부로, 파를레는 나흘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식을 맛본 후 이를 〈텔레그라프〉지와 음식잡지에 소개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청소년 · 가족 특화 템플스테이 만든다

문화사업단 · 여가부 10일 업무협약 체결

불교계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특화 템플스테이를 개발하기로 협약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문화사업단)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 이하 여가부)는 1월 10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청소년 · 가족의 템플스테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사업단과 여가부는 템플스테이 체험활동 무료지원과 국민행복증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했으며,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빈곤층, 한부모 자녀를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게 된다.

협약에 앞서 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산사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 다양한 문화를 체득하고, 새로운 소통과 치유의 창구를 만나는 것"이라며 "향후 청소년과 가족계층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우리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선 장관은 "템플스테이가 이 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체험으로 자리잡은 것은, 그 만큼 참가자들에게 치유와 감동을 전하기 때문"이라며 "템플스테이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인성교육과 가족 갈등해소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문화사업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템플스테이 사찰환경 정비 및 운영자 역량교육, 지난해부터 실시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우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공모전' 등을 특화해 향후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여성가족부는 1월 10일 청소년 · 가족의 템플스테이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기 2558(2014)년 연수교육 안내

○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연수교육이 어느덧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단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4년 연수교육에는 '법계별 연수교육'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스님들의 법계별 위상과 역할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 세부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2박 3일 과정으로 1년 동안 12회가 진행됩니다. 법계별 연수교육은 2015년부터 승가고시(1급, 2급, 3급)를 응시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앞으로 해당 강좌를 의무적으로 5년 내 1회씩 이수해야 합니다.

○ 올 해의 강좌는 이전의 연수교육 강좌와 차별화를 두고 법계별 연수교육, 사찰경영과정, 경전과정, 교양과정, 전법과정, 순례과정 등 6개 과정의 총 31개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강좌와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교육대상
① 법계별 연수교육 : 구족계를 수지한 승납 5년 ~ 29년 스님
② 사찰경영지도자과정 : 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려는 스님
③ 그 외 연수과정 :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및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 가능

■ 과정별 기간 / 연수점수
① 법계별 연수교육 : 2박3일 / 30점 ② 사찰경영지도자과정 : 4박5일 / 60점
③ 일반연수과정 : 2박3일 / 30점 ④ 순례과정 : 4박5일, 6박7일, 10박11일 등 / 30점
⑤ 자원봉사과정 : 12시간이상 / 30점 부여
- 자원봉사기관에서 최소 12시간 봉사활동을 하실 경우 시간과 상관없이 1년에 30점을 부여, 다른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중복참여하여도 별도의 추가 점수가 부여되지 않음
⑥ 인증과정 : 과정별 기간 상이함 / 30점
- 교육시간과 상관없이 한 과정을 수료할 경우 30점의 점수를 부여

■ 교육장소
① 한국문화연수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② 기타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장소 (경주, 부여 등)

■ 신청 방법
① 교육신청은 조계종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에 접속하시면 가장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홈페이지의 '연수교육신청' 코너를 클릭하거나, 위 연수사이트 주소로 직접 접속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스님들은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교육은 강좌 일주일 전에 미리 신청해 주시고,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교 육 비
① 법계별 연수교육 : 견덕 · 계덕 – 10만원 / 중덕 · 정덕이상 – 15만원
② 일반연수교육 :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안내에 별도표시)
※ 연수교육비 할인 안내
- 승납 10년 미만인 스님 : 10만원 감액 (수강료 50% 지원)
- 승납 10년 이상인 스님 : 5만원 감액 (수강료 25% 지원)
- 단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은 10년 미만인 스님들에게 교육비 5만원을 지원하며, 순례과정은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2과목 이상 수강 시 드렸던 중복할인 혜택은 2013년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이체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 입금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교육비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현장 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 사찰명으로 입금시에는 전화를 별도로 주셔야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전화) **02-2011-1807**, 1810, 1808 팩스) 02-732-4926

불기2558(2014)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14년 연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과 정	강 좌 명	강 사	일 정	장 소
법계 교육	종단리더십실무과정 (견덕 · 계덕 – 5년~9년) 1차 ~ 4차	만당스님, 화평스님 외 4명	3월 4일 – 6일 5월 1일 – 3일 9월 1일 – 3일 11월 25일 – 27일	한국문화연수원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 (중덕,정덕 I – 10~14년) 1차, 2차	흥선스님, 법안스님 외 4명	3월 17일 – 19일 9월 15일 – 17일	한국문화연수원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I (중덕,정덕 II – 15년~19년) 1차, 2차	정우스님, 퇴휴스님 외 4명	3월 24일 – 26일 9월 18일 – 20일	한국문화연수원
	종단지도자과 (대덕 · 혜덕 – 20년~24) 1차, 2차	고우스님, 용타스님 외 3명	4월 17일 – 19일 10월 13일 – 15일	한국문화연수원
	종단지도자최고위과정 (종덕 · 현덕 – 25년~29년) 1차, 2차	설정스님, 장회익 외 3명	4월 21일 – 23일 10월 21일 – 23일	한국문화연수원
사찰경영과정	사찰경영지도자과정 1차 ~ 4차	흥선스님, 보각스님 등	2월 18일 – 22일 5월 19일 – 23일 8월 18일 – 22일 11월 17일 – 21일	한국문화연수원
경전 과정	백일법문	고우스님	2월 24일 – 26일	한국문화연수원
	아비담마 길라잡이	각묵스님	3월 10일 – 12일	한국문화연수원
	화엄경-입법계품	해주스님	4월 3일 – 5일	한국문화연수원
	동아시아 불교사(한 · 중 · 일)	김호성	8월 12일 – 14일	한국문화연수원
	법화경	지안스님	8월 28일 – 30일	한국문화연수원
	선어록강좌(원돈성불론)	현봉스님	9월 29일 – 10월 1일	한국문화연수원
교양 과정	불교와 자연과학	장회익	6월 16일 – 18일	한국문화연수원
	서양고전의 이해	황광우	6월 23일 – 25일	한국문화연수원
	서양음악 감상법(바흐에서 비틀즈까지)	김이곤	8월 6일 – 8일	한국문화연수원
	영화로 세상 읽기	유지나	8월 29일 – 31일	한국문화연수원
	동양고전의 이해	강신주	10월 1일 – 3일	한국문화연수원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손철주	11월 10일 – 12일	한국문화연수원
전법 과정	불교생활의례	화암스님	4월 24일 – 26일 11월 13일 – 15일	한국문화연수원
	동사섭	용타스님	6월 9일 – 11일	한국문화연수원
	스피치 교육	불교방송	6월 9일 – 11일	한국문화연수원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 사용법	박정호	7월 23일 – 25일	한국문화연수원
	청소년 명상지도과정	김남선	11월 3일 – 5일	한국문화연수원
순례 과정	국내 경주남산 불적답사	신라문화원	4월 10일 – 12일 10월 16일 – 18일	경주남산일대, 불국사, 석굴암 등
	국내 백제불교 문화답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9월 29일 – 10월 1일	공주, 부여, 익산 등
	국내 경주폐사지순례 (인증)	불국사 템플스테이	9월 25일 – 27일	황둔사지, 황복사지, 황룡사지, 백률사 등
	국내 경북의 불교문화유산을 찾아서 (인증)	직지사	4월 8일 – 10일 10월 14일 – 16일	경북지역 불교유적 · 문화재
	해외 지안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성지순례	지안스님	3월 16일 – 26일	인도/네팔 지역 부처님 8대성지
	해외 혜국스님과 함께하는 중국 선종사찰순례	혜국스님	4월 15일 – 21일	여산, 운거산, 봉신현, 우민사, 경덕진 등
	해외 혜총스님과 함께하는 티베트 성지순례	혜총스님	5월 18일 – 27일	라싸, 암드록초, 시가체, 장체, 타얼사, 대족석굴 등
	해외 설정스님과 함께하는 실크로드 불교유적순례	설정스님	8월 27일 – 9월 3일	천수, 난주, 가욕관, 돈황, 투루판, 우루무치 등
	해외 홍선스님과 함께하는 일본 고찰순례	홍선스님	9월 25일 – 29일	아스카, 나라, 교토, 오사카 등
	해외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미얀마 성지순례	진옥스님	10월 15일 – 21일	바간, 만달레이, 혜호, 양곤 등
자원봉사 과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시설 154곳	자세한 내용은 연수교육 안내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본사 법인 산하시설 31곳			
	기타 종단 산하시설 1곳			
인증과정	교육원 인증 38개 과정			

일 주 문



명성 스님 제6회 법계 전강식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1월 13일 운문사에서 제6회 법계 전강식을 열고 서광, 원법, 지성 스님에게 전법게를 내렸다.



혜거 스님 유식특강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은 3월 18일부터 7월 16일까지 매주 화 · 수 서울 법련사 불일문화회관에서 '해심밀경, 유식30송' 강연한다. (02)730-6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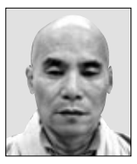
내고향 조계사 설합동 다례재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1월 31일 오전 8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내고향 조계사 설합동 다례재'를 개최한다. (02)768-8500



제7회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월 20~22일 '제 7회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중고등학생 문화체험 및 고운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한다.



성도절 자비쌀 100포 전달

대구 아미사 주지 덕현 스님은 1월 7일 대구 동구 지묘동 동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자비의쌀 100포를 전달했다.

"불교가 한국 발전 견인차 역할하길"

정갑윤 제19대 국회 정각회장



성지순례 · 정기법회 시행 성과
임기 만료하고 울산시장 출마
개헌보다는 경제 살리기 중요
국정원 댓글사건 '과잉충성' 탓

"현재 한국은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난을 극복할 수 있던 것은 호국불교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한국불교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 정각회 제19대 회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울산 중구)는 1월 10일 불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년을 맞아 한국불교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 같이 술회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울산 백양사 목산 스님에게 '덕음(德音)'이라는 법명을 받은 신실한 불자인 정 의원은 오는 5월 정각회장 임기를 마무리한다. 2년의 임기 동안 가장 보람찼던 일을 묻자 정 의원은 성지순례를 여야 불자의원들이 함께 다녀온 것과 매월 첫째주 수요일마다 정기법회와 교리공부를 병행한 것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다만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민원 청탁과 청와대와 불교계의 대화 채널이 부재해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혔다.

"정각회 회원들과 지난해 인도성지순례를 했고, 올해 3월에는 고우 스님을 모시고 중국선종사찰 순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흔히 가볼 수 없는 곳을 간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말로 시효가 끝나는 10 · 27법난관련법 시효를 3년 연장한 것도 불자 의원으로서 보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 임기동안 정각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료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회장직을 내려놓는 정 의원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지역구인 오는 6 · 4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기 때문이다. 울산광역시는 6번의 선거를 통해 현재 2명의 시장이 있었지만 천주교와 개신교인이 나눠서 역임해왔다.

"통도사 등 사찰과 불자들에게는 불교도시 울산에서 불자 시장이 배출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원래는 9일 출마선언을 하려했으나 1월 1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다보스포럼과 인도 등을 다녀와야 해서 연기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오는 1월 2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할 예정입니다."

정 의원은 간담회 내내 '안정'을 가장 강조했다. '정치가 안정돼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캠프에서 국정원 댓글을 지휘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어느 조직에도 과잉 충성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번 댓글 사건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개헌보다 경제 살리기가 중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 하는데 여야 할 것없이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불교가 나서서 발전으로 갈 수 있는 정신적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진제 스님, 동국대 선센터 기금 쾌척

1월 6일 직접 학교 방문해 금일봉 전달 및 교직원 격려도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은 1월 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선센터 건립기금을 쾌척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선센터 건립기금으로 금일봉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은 1월 6일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방문해 학교 소개 및 선센터 건립 현황을 안내받은 후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했다.

진제 스님은 "불교종립학교인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불교 세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선센터 건립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기금 전달의 뜻을 밝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불교의 세계화 사업을 위해 외국인들이 역사문화도시 경주에서 템플 스테이, 선, 명상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내 사찰인 정각원 인근 연못주변에 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스님 및 신도, 불자 등의 동참으로 현재 약 20억원이 모금됐다.

김진택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장은 "소중한 뜻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불교 세계화를 위한 선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여수 향일암 주지 원문 스님 입적



여수 향일암 주지 원문 스님〈사진〉이 1월 9일 오전 11시 향일암에서 입적했다. 법랍 30년, 세수 56세.

원문 스님은 서울 중앙승가대를 나와 향일암 주지와 화엄사 기획국장 소임을 맡아 수행과 포교에 힘써왔다. 2005년부터 향일암 주지를 맡아 2009년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과 전각을 복원했다. 분향소는 구례 화엄사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11일 화엄사에서 봉행됐다. **신중일 기자**

조불련 서기장에 차금철 임명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은 구랍 28일 종단협의회와 민추본 등 대북사업을 맡고 있는 단체에 차금철 부장이 서기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차금철 서기장은 2000년대 초부터 남북불교 교류 실무자로 활동해 지속적으로 남한 측에 얼굴을 알려왔다. **정혜숙 기자**

〈바로잡습니다〉 1월 8일자 23면 사부대중칼럼 '나눔문화가 각박한 사회를 따뜻하게'에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사진이 부산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사진으로 잘못나갔으므로 바로잡습니다.

국회 정각회, 수불 스님 초청법회

새해 첫 모임, 불자국회의원 40여 명 모여



수불 스님이 정각선원에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신년 법문을 하고 있다.

불자국회의원 모임 국회 정각회는 국회 정각선원에서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을 초청해 새해 첫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국회의원 40여 명을 비롯해 국회 직원들, 불자들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불 스님은 "지혜를 성취하고 앞서가는 삶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불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법문했다.

이어 스님은 "종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구태의연함과 고정관념을 벗어던지는 것이 정신적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갑윤 정각회장을 비롯한 불자 국회의원들은 "새 해 중도를 통한 정견과 소통으로의 화합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정각회는 매달 첫째주 수요일 국회 본관 지하 1층 정각선원에서 정기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아름다운동행에 필리핀 구호기금 정성모여

대흥사 1200만원, 쌍계사 1000만원, 봉은사 2000만원, 불교TV 1억원 등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사진 오른쪽)이 자승 스님(사진 가운데)와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사진 왼쪽)에게 기금 1,200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에 불교계가 필리핀 구호 기금을 연이어 전달했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에 필리핀 구호를 위한 기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대흥사가 전달한 기금은 대흥사 본 · 말사에서 십시일반 마련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교구 사찰에 동참을 유도해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13일에는 쌍계사연합회(회장 해문)가 1000만원, 15일 봉은사(주지 원학)와 봉은사신도회가 2000만원, BTN 불교TV(사장 구본일)가 1억원을 전달했다. 이들 구호기금은 모두 모연행사 등을 통해 불자들이 정성으로 모은 것이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필리핀 지원을 위해 구호 기금을 전달해 줘 고맙다"며 "불자들이 소중한 정재를 필리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금강대 지역 행복공감아카데미

금강대(총장 정병조) 평생교육원는 겨울방학을 맞아 충남행복공감학교로 선정된 논산노성중학교(교장 윤용복)의 1,2학년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논산 금강대학교 캠퍼스에서 2013학년도 행복공감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캠프는 17일까지 하루 4시간씩 10일간 진행된다. 캠프에서는 금강대학교 재학생들이 진행하는 영어 및 수학 멘토링과 외부 강사들이 진행하는 스마트폰 다스리기, 과학마술, 명상요가 따라하기, 진로직업창업캠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9명의 금강대 학생들이 멘토링에 참여해 각각 5명씩 멘토링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총무원 국제부장 임명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1월 9일 김경석 (사)세계평화교류연구소 이사장을 총무원 국제부장에 임명했다. 김경석 부장은 태고종단 남북불교 교류와 국제 불교문화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석 국제부장은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관세청 공무원을 거쳐 퍼시픽컨벤션파트너(주), 세계평화산업(주) 등 회사를 설립해 활동했다. 특히 '북한통'으로 금강산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에도 동참한 바 있다.

김경석 부장은 현재 통일부 산하 (사)세계평화교류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다. **노덕현 기자**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성도재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성도재일을 맞아 1월 5일 '도전, 범종을 울려라' 행사를 개최했다.


완주 송광사는 철야정진 후 수계식을 봉행했다.


수원사는 1월 7일 철야정진을 실시했다.


서울 열린선원의 철야정진 장면.


안동불교사암연합회의 성도재일 법요식.

부처님되신날 함께 기리며 '정진'

부처님은 6년의 고행 끝에 중도의 길을 발견하고 네이란자라 강가 보리수 아래에서 용맹정진 끝에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은 고통과 번뇌에 빠진 중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성도재일은 불교 4대 명절의 하나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다. 1월 8일 성도재일을 맞아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념하기 위한 성도재일 법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전국 성도재일 법회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행사를 개최했다. 1월 5일 부산 벡스코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쌍계총림 방장 고산 혜원 대종사를 법주로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부산시의회 김석조 의장 등 사부대중 2,000여명이 함께 했다.

기념대법회에서 수진 스님은 "이정표 업는 세상에 이정표를 현시하고, 빛이 없는 세상에 지혜의 빛을 현시한 부처님의 깨달음은 환희요 찬탄이며 마르지 않는 장엄"이라며 "퀴즈대회를 통해 성도재일의 의미를 한층 더 증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도재일기념대법회에 이어 2부 행사로 3대가 구성된 82개 팀이 출전한 교리 퀴즈대회 '범종을 울려라'가 펼쳐졌다. 총108팀이 참석하였으며 대망의 1위에는 작년에 이어 영주암 소속 김용호(52,남), 백나정(47,여), 이진수(14,남)씨가 2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백나정 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쁘다. 성도재일을 맞아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 신행하는 불자가 되겠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조계사 역시 성도재일을 기념하는 철야참선을 1월 7일 밤 9시부터 대웅전에서 실시했다.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 행사에서 주지 도문 스님은 "수 없는 생을 보살도를 닦아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처럼 성도재일 철야법회에 동참하신 모두가 무명에 가려진 본래 성품을 찾아 자신의 참마음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마음에 담긴 불성의 씨앗이 환히 빛나기를 발원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대중들은 금강경 봉독을 시작으로 다음날 새벽까지 성도재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철야정진을 마치고 석가모니 정근 탑돌이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은평구 갈현동 열린선원(원장 무상 법현)은 1월 7일~8일 성도재일을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오후 7시부터 진행한 '부처님 되신 날 기념 법회'에서 선원장 법현 스님은 "싯다르타가 부처님 되심을 축하하고, 여러분은 이제 수행하여 부처님 되실 것이니 축하한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인 깨달음의 과정이 용맹정진이다. 이를 닮아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선칠(禪七. 7일간 참선정진)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진을 체험해 보는 것"이라며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 관문사는 1월 8일 오전 7층 대불보전에서 주지 도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부주지 도웅 스님, 문광진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성도절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도정 스님은 법어에서 "불교의 4대 명절 중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도절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한다. 부처님은 모든 사물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기법을 깨달았다"면서 "부처님은 사성제와 육바라밀, 팔정도를 통해 깨달음을 설하셨다"고 강조했다. 도정 스님은 이어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의 씨앗이 있다. 이를 싹 틔우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사-철야 참선 · 정근
부산연합회- '범종을 울려라'
완주송광사-중론 강의 · 참선

서초동 정토회(지도법사 법륜) 역시 성도재일 철야정진을 실시했다. 정토회는 1월 7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법륜 스님 영상 법문-명상-마음나누기-108정진-유미죽공양 순으로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정진에는 80여 회원이 참석했다. 정토회 회원 이미영 씨는 "요즘 여러 일로 분별심이 올라와 괴롭던 차에 성도재일 법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명상 초보라 발도 저리고 잠도 쏟아져 힘들었지만 법륜 스님의 영상법문을 통해 마왕의 유혹을 물리치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셨는지의 설명과 세심한 명상지도를 받았다. 이를 통해 어떻게 정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또한 편안히 호흡을 들여다보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쌓은 업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 평택 명법사(주지 순형)는 창작뮤지컬 '용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1월 7일 밤 공연으로 선보인 용성은 명법사 학생회와 청년회 회원 20여 명이 대본은 물론 소품까지 직접 준비해 공연을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명법사는 철야정진을 통해 성도재일의 의미를 더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원)을 비롯한 광주 · 대구 · 부산 등 16개 지원은 1월 7일 성도절 특별정진을 거행했다. 행사는 저녁예불과 입재식을 시작으로 '정신발전의 길'을 주제로 한 대행 스님의 비디오 법문으로 진행됐다.

수원사(주지 성관)는 1월 1일~ 8일 성도재일 8일 기도를 실시했다. 300여 명의 신도가 참여한 이 행사는 1월 1일 입재식을 시작으로 1월 2일~7일 동안 수원사 도감 지성 스님의 진행으로 기도를 봉행하고 초발심자경문 경전강의-108배 참회 정진-참선정진 등을 진행했다. 7일에는 저녁 6시부터 성도재일 전야제를 진행하고 철야정진을 실시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8일에는 주지 성관 스님의 회향법문으로 성도재일 행사를 마무리했다.

전라도 역시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는 성도절을 맞아 1월 2일~8일까지 특별정진 기간으로 정하고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108배, 참선, 법진 스님의 중론 강의를 실시했다. 또 성도재일 법회 후에는 동참자들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또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주지 성우)는 1월 7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철야용맹정진법회를 개최했다.

안동불교사암연합회(회장 자현)는 1월 4일 오후 안동시청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성도재일 법요식을 봉행했다.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한 이 행사의 법사로 나선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 위대한 부처님 법을 통해 내 마음속을 알아차려 고요하고 청청히 닦아 다생다업의 윤회에서 하루 바삐 벗어나자. 번뇌를 버리고 대자비심의 보살도를 성취해 위대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겨 어디에도 걸림 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 가자"고 법문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주지 밀허)는 1월 7일 사경과 금강경 독송, 참선, 108배 등으로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이밖에도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회장 경희)가 1월 3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성도재일 기념대법회를, 성주군 불교연합회는 1월 8일 오전 성주웨딩에서 각각 성도절 대법회를 봉행했다.

정리=정혜숙 기자

성도재일 법회 정리

지역	사찰 및 단체	날 짜	내 용
서울 경기	조계사	1월 7일~8일	철야정진, 석가모니 정근 탑돌이
	열린선원	1월 7일~8일	철야정진
	서울 관문사	1월 8일	부처님 성도절 기념 대법회
	정토회	1월 7일~8일	명상, 마음나누기
	한마음선원	1월 7일	대행 스님 영상법문
	수원사	1월 1일~8일	초발심자경문 특강, 참선 등
	평택 명법사	1월 7일	창작뮤지컬 '용성' 공연 및 철야정진
전라도	완주 송광사	1월 2일~8일	108배, 중론 강의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1월 7일	철야 용맹정진
경상도	대구불교사원주지연합회	1월 3일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한국불교대관음사	1월 7일	사경, 금강경독송, 참선 등
	안동불교사암연합회	1월 4일	성도재일 법요식
	성주군불교연합회	1월 8일	성도절 대법회
	조계종부산연합회	1월 5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 3275-0911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풍경소리, 영어 명상강의 실시

용수 스님 강사, 3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진행

영어와 명상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강의가 마련됐다.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혜자)는 1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성북구에 위치한 풍경소리 사무실에서 '영어 명상 강의(tibetan compassion meditation course)'를 실시한다. 티베트에서 출가한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을 강사로 명상이 무엇인지, 명상을 왜 하는지 함께 고민하며 명상과 수행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용수 스님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유타주립대 신문방송학과를 다니며 '왜 사는가'라는 근원적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2001년 달라이 라마의 대중강의에 참석하는 인연으로 출가를 결심해 2003년 티베트 승려가 됐으며 2007년 남 프랑스에서 티베트 불교 4년 무문관 수행을 마쳤다. 현재 세첸코리아 대표로서 한국에서 티벳 큰스님 법회를 주관하며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02)736-5583 이나은 기자

제7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는 1월 18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7회 영문 자타카(Jataka) 암송대회' 본선을 개최한다. 부처님의 전생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본생담인 자타카를 영어로 외워 발표하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영어실력 향상, 가족간의 친밀감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으로 참여가능한 이번 대회의 예선은 11일 전법회관에서 열렸다.

노덕현 기자

용주사, 제1회 효예지도사 배출

청소년들에 대한 효와 예절교육을 담당하는 효·예 지도사가 최초로 탄생했다.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는 1월 8일 효행문화원에서 제1회 효·예 지도사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46명을 배출했다. 지도사 과정을 개설한지 6개월 만이다.

정호 스님은 "가장 훌륭한 효·예 지도사는 스스로 성품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자비로운 마음 상태를 수련하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교육을 진행한 박경준 동국대 평생교육원장을 비롯해 박수영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의원, 정용배 화성시 부시장 등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효·예 지도사 1기 졸업생들은 청소년 인성교육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된다.

노덕현 기자

에밀레 종소리를 친구들에게 보내세요



에밀레 종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기원하는 앱이 출시됐다.

'소원대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출시한 ㈜디앤디미디어는 "1200년 전 만들어진 국보 제29호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을 최초로 디지털 복원해 깊고 웅장한 소리를 모바일에서 들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소원대종' 앱에는 메시지 보내기 기능이 추가됐다. 카카오톡을 통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종소리와 함께 축하 및 응원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낼 수 있다.

'소원대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나은 기자

"집착에서 벗어나야 삶의 고통 해결"

불교상담개발원, 1월 4일 '불성 깨우기' 동계워크숍 개최

"새해에 마음을 정화하고 출발할 수 있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무아에 대한 관념이 어느 정도 깨진 것 같습니다. 숙고 명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였습니다." (워크숍 참가자 1)

"부모로서 아이와의 갈등 상황에서 '화'를 지켜보게 되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의 과정을 알게 됐습니다." (워크숍 참가자 2)

통찰명상과 숙고명상, 치유적 간화선으로 불성(佛性)을 깨우는 이색적인 워크숍이 열렸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1월 4일 목동 국제선센터 바라밀실에서 '불성 깨우기'를 주제로 동계산사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불교의 심리치료적 해석을 명상에 접목해 고통의 발생 기전을 명확히 이해하고 마음의 실상을 명료하게 봄으로써 자아의 환상으로부터 깨어나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워크숍에는 스님, 재가자 등 35명이 참가해 불교와 심리치료를 명상에 적용해 진정한 '나(불성)'를 체험했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까지 12시간에 걸쳐 장시간 진행됐다. △고통에 대한 성찰의 장 △치유와 소통의 장 △깨어남의 장 △회향의 장 등 총 4부로 구성돼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장의 강의와 함께 숙고 명상, 통찰 명상, 가피 명상, 만트라, 간화선, 기도 등을 활용했다. 특히 경험을 강조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량 분별을 제어하고 불성의 지혜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훈동 한별정신건강병원장은 불교를 심리분석적으로 재해석하고 참가자들이 체험을 통해 '나'를 재발견 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최 원장은 초기불교의 사성제와 십이연기에 대한 이론을 비롯해 대승불교의 불성실현 및 간화선과 염불을 치유명상에 적용해 참가자들을 치유의 길로 안내했다.





최훈동 '불성 깨우기' 동계워크숍에서 한별정신건강병원장은 심리분석적으로 재해석하고 참가자들이 체험을 통해 '나'를 재발견 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통찰, 숙고명상, 치유적 간화선
불교심리치료적 해석 명상에 접목
스님 · 재가자 35명 불성 찾기 체험

1부는 '고통에 대한 성찰의 장' 시간. 최 원장은 "고통의 실상을 명확히 자각하고 마음의 작동원리를 이해해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마음과 무의식의 작동원리와 정견 · 정사유를 통한 고통의 연기적 이해를 설명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고통과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에서 한걸음 물러나 거리를 두고 보면 '고통이 곧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집착과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 받고 있는 내가 실제 내가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 훈련해야 합니다. 명상은 단순한 방법이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됩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는 치유법입니다."

이어 진행된 2부 '치유와 소통의 장'에서는 불성 체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12연기와 사성제의 심리치료적 의미를 조명했다. 참가자들은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를 살펴 망상을 분석하고 소통을 통한 대화와 가피 명상을 체험했다.

또한 3부 '깨어남의 장'에서는 초기불교의 무아, 대승불교의 불성, 선불교의 견성의 통합적 이해와 체험으로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로 깨어나는 자리였다.

마지막 4부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참가자는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이 내가 우주의식과 붓다의식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깨닫고 충분히 경험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럴 때 내가 그렇게 바라던 절대자유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오온이 쌓임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카르마의 총체임을 새삼스레 알게 됐다. 자기 전에 죽기 직전의 체험을 매일 해보면 삶이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경험으로 감사의 눈물이 나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참가자들은 관계치유를 통해 마음속에 잠재했던 열등의식과 응어리진 동기를 발견했다. 몇몇 참가자들은 치유과정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번 워크숍은 의미있는 행사였다"며 "불교상담개발원은 〈산사에서 만나는 수행과 상담〉에 관련한 워크숍을 매년 2회 개최하고 있다. 불교적 심리치유와 상담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은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02)737-7378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천태종,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병 수계

1월 4일, 도정 스님 법사로 장병 500명 수계… 위문품도 전달



천태종은 호국 승룡사에서 장병 5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천태종이 새해를 맞아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힘을 보탰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1월 4일 오전 11시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부대 현황을 소개받고, 위문품 빵 100박스와 라면 50박스 등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총무원장 도정 스님, 사회부장 보광 스님을 비롯한 천태종 방문단은 훈련단 본청에서 해병대 1사단장 황우현 소장, 교육훈련단장 김진호 준장, 참모진 등과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해병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남북 간 갈등 양상이 심화돼 많이 걱정했는데 듬직한 해병대원들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면서 "전역 이후에도 해병전우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국토방위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우현 사단장은 "새해를 맞아 해병의 미래인 교육훈련단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천태종 스님들의 위문이 장병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김진호 교훈단장도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도정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방문단은 이어 영내 식당에서 훈련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다목적 실내전투수영장 · 체력단련장 등 부대시설을 견학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호국 승룡사에서 천태종 주관 아래 장병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수계법회도 거행됐다. 수계법회는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사회국장 성공 스님) △고유문(사회부장 보광 스님) △헌향(수계 대표자) △연비 △설계 △법어 △찬불가(대구 대성사 합창단)△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사로 나선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윤리와 도덕의 가치가 많이 약해졌다. 행복은 평온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오늘 계를 받은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복의 씨앗을 심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계를 지키겠다는 청정한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복의 열매를 맺길 바란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간다.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관희 계룡대 종무실장은 환영인사에서 "장병들을 위해 마음 내주신 총무원장 도정 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 신도회 여러분께 본부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많은 장병들이 피와 살이 되는 가르침에 위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대해 날 2014

佛紀 2558年 甲午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 지 덕 현
신도일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로 91길 14(지묘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류화산

〈부설〉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아름다운동행, NGO 복지사업 1억원 지원

아름다운동행,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등 14곳 선정


아름다운동행은 2014년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진행, 지구촌공생회,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등 14곳 단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1월 8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14곳 단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는 2014년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을 △저소득가정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 사업 △대북 또는 탈북자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환경보전 및 의식고취를 위한 사업 등의 분야로 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해 전개했다.

201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모집된 공모사업에는 전국 118곳의 단체에서 응모했으며 최종 심사를 거쳐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아시아밝음공동체, 길음종합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의성군노인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매화종합사회복지관,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사)물망초, 예능지역아동센터,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 등 총 14곳이 선정돼 사업비 총 1억 원을 지원받았다.

심사에는 4명의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의 적합성, 타당성, 창의성, 지속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파급효과, 사회공헌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국제개발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지구촌공생회다. 지구촌공생회는 '몽골 게르촌 지역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개별 과수농가 육성을 통해 몽골 저소득 지역의 소득창출 및 경제적 자립도 향상의 기반을 마련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보전 및 의식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로터스월드와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 고양시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이다. 로터스월드는 '아시아 불교NGO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아시아 불교NGO워킹그룹의 역량을 강화해 한국에서 종교간 기후변화회의를 준비하고 아시아의 종교간 기후변화 대응 메커니즘 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감수성 회복 프로젝트인 '지렁이 똥탑 환경교실'을 진행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생태텃밭 꾸미기, 지렁이 화분 분양하기 활동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 환경보전 활동을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데 주력한다. 이밖에 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환경문제 개선과 환경보존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자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진행한다.

탈북자 복지 증진 사업으로 선정된 기관은 부천시덕유사회복지관, (사)물망초다. 부천시덕유사회복지관은 북한이탈아동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인 '놀고 먹고 뛰고 go! go! go! 건강프로젝트'를, (사)물망초는 탈북대학생들을 차세대 통일한국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집단상담, 심리치료, 명사와의 만남 등을 마련한다.

저소득가정의 복지 증진 사업에 선정된 곳 중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기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어르신의 정서적 지지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인 '행복한 수집가의 아름다운동행'을,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 독거남성 어르신의 사회적 지지를 통한 자립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행복한 老友(Know)'를, 의성군노인복지관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정서지원사업인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노인이 나눔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솜씨나눔 프로젝트인 '명가(名家) 클럽'을 진행한다.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한 기관들도 있다. 이천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 스포츠 프로그램인 '볼(볼링) 앤볼(플로어하키)클럽'을, 아시아밝음공동체는 불교국 출신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 2세와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사업인 '오색종이가 부르는 노래'를,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생명존중집단프로그램 '내 생명 소중하게 가꾸기'를, 예능지역아동센터는 교육ㆍ문화로부터 소외된 아동들에게 전남 문화유산 체험학습을 통해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립을 돕는 '전남 역사체험 잡(job)아라!'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14곳은 2014년 한 해 동안 사업을 실시하고 2015년 1월 사업결과 보고서를 아름다운동행에 제출해야 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선정된 기관을 통해 여러 분야를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 발전 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12월 30일 아산서 '어울림' 개소식, 사회복지법인 마곡 운영


지난해 12월 30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어울림'을 개소식 모습.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곡(대표이사 원경)은 지난 12월 30일 아산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어울림'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생활하며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는 공간인 어울림은 도와 여성가족부, 아산시가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이 주관해 2012년부터 아산에 설립을 추진해 왔다.

시설은 부지 면적 1630㎡에 건축 면적 397㎡의 2층 규모로, 피해자 20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종사자는 시설장과 사무국장, 상담원, 조리원, 관리원 등 7명이다.

어울림 관계자는 "어울림은 아동ㆍ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상담과 정서ㆍ심리치료, 의료, 학습, 수사ㆍ법률, 자립 등 보호지원으로 피해자가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시설"이라며, "그동안 의지할 곳이 없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울림에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41)533-6221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치료비 지원환자 조소미 씨 선정

만성염증성 장(腸) 질환 크론병 투병 중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은 1월 치료비 지원 환자로 희귀난치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는 조소미(여ㆍ26) 씨를 선정했다.

17세에 홀로 캐나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학업에 매진해 온 조 씨는 2007년 몸이 아파 귀국 후, 크론병 진단을 받게 됐다. 조 씨는 병세가 악화돼 인공 장루술 및 대장 복원술을 받았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영양소 흡수를 하지 못해 합병증으로 골다공증이 생겨 누워서 생활하고 있으며, 식사 및 대소변도 누워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씨는 매월 뼈 형성 주사와 약 값 등으로 100만 원, 향후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치료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 현재 치료를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딸을 위해 병간호와 치료비 마련을 해온 부친은 뇌경색으로 쓰러졌으며, 마카오에 있는 어머니는 사업실패로 지금까지 기소중지 상태로 고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제 때 치료만 잘 받으면 예후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인 만큼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농협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희귀난치질환인 크론병을 앓고 있는 조소미(여ㆍ26) 씨.

"바쁜 데도 직접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철산복지관, 대학생 봉사단과 연계 어르신 모시고 공연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대학생 전문봉사단은 지역 어르신들과 레크리에이션 및 공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승희)는 구랍 21일 관내에서 대학생 전문봉사단 '봉(奉)다리'와 어르신 16명을 모시고 '두근두근~ 봉(奉)다리 가족오락관'을 진행했다.

봉사단원들은 개별로 안부를 묻던 지역 내 어르신들을 복지관으로 초대해 단원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을 선보여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최고령 어르신인 신ㅇㅇ(93)어르신은 "내가 낳은 자식들도 전화 한 통 어렵다는 바쁜 세상인데, 매번 집으로 나를 찾아주니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대학생 전문봉사단 '봉(奉)다리'는 2013년 6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광명시희망나기본부 '2013년 기관지원사업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에 선정돼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13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다. 단원들은 기본교육부터 사례관리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내 취약한 환경에 놓인 어르신 25명과 연계되어 정기적으로 유선 연락과 방문을 통해 안부를 전하고, 정기 사례회의를 가지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홍천장애인복지관, 동계계절학교 실시


홍청군장애인복지관 동계계절학교에 참가한 관내 장애아동과 청소년들.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은 1월 6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 동계계절학교 '소나무 교실'을 실시한다.

'소나무 교실'은 방학 중인 학생들에게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공예활동 및 특수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노래자랑, 모형항공기만들기, CGV영화관람, 풍선아트, 과자집만들기, 요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들이 이번 계절학교의 문화체험활동 및 특수체육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방학기간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또래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대인관계 및 사회성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033)435-7031 이나은 기자

출강 및 통신

2014학년도 제23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3년의 법사양성 연륜은 대학의 위상과 교육의 신뢰에 자부와 긍지를 갖습니다.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 지도자로서의 신행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하여 보십시요.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을 발급 받습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 교 석 학 과 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1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2014년 동산불교대학 44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2월 8일(토) 오후 5시 개강]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1년차 과목	① 불교개론 ② 불교문화와 포교 (불교미술·다도) ③ 선불교 ④ 근본불교 ⑤ 반야사상 (반야심경·금강경) ⑥ 유식과 명상
교수진	법산스님(학장), 최종석교수, 이미령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박희준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외
2년차 과목	⑦ 불교사의 전개 (인도·중국·한국) ⑧ 대승불교 ⑨ 법화경 ⑩ 밀교사상과 천수경 ⑪ 아미타경과 불교의식 ⑫ 화엄경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외

✲ 선·명상학과(염불선) [3월 6일(목) 개강] ✲ 다도학과 [3월 4일(화) 개강] ✲ 불교미술학과 [3월 6일(목) 개강]

■ 모집인원(불교학과) : 15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5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금 20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4년 1월 2일부터 ■ 문 의 : 02)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성도는 행복을 주제로 부처님이 준비한 연극

국제선센터 일요법회

탄덕 스님(국제선센터 포교차장)

사문 고타마가 구도과정 중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했던 상대는 어떤 신도, 물질도 아니다. 오직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애욕과 공포였다. 1월 8일 성도재일을 맞아 국제선센터에서 포교차장 탄덕 스님은 이렇게 말하며 성도는 특출한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과정이 아니라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라 강조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부처님의 성도는 중생 제도의 방편

이번 주는 성도절 기간이므로 성도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합니다.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흠모하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없는 영원한 삶의 길을 찾아 나선 지 6년 만에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참사람의 길을 찾아냅니다. 인생의 진면목과 우주의 대진리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견하신거죠. 그 과정에서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죽음과의 투쟁은 물론 마왕 타순의 집요한 유혹도 물리칩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여 성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인간의 길, 행복한 사문의 길을 최초로 발견하신 위대한 탐험가요, 위대한 길 안내자이며 곧 대도사이신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 깊은 성도절 기도 기간을 맞이하여 인간 싯다르타 태자가 세존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의미를 재인식하고 성도절 기도를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합니다.

'성도' 는 석가모니 부처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취해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참되게 사는 길이요, 생노병사를 뛰어넘어 영원한 삶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언행을 본받고 그분처럼 되려고 하는 종교입니다. 정반왕의 아들이자 카필라 성지의 왕세자였던 싯다르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앙하는 종교입니다. 보리수 아래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부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한 후 6년이란 긴 세월의 고행 끝에 보리수 아래서 마지막 용맹정진 후, 동녘하늘에 떠오른 별을 본 순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셨다고 대부분의 불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한량없는 옛날 옛적에 성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다시 왕자로 태어나셔서 힘든 고행 후 새삼스레 보리수 아래서 성도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역시 경전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묘법연화경〉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한지는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중생을 위하여 방편의 힘으로 멸도를 말하고 있으나 능히 법과 같이 설하였으므로 나를 허망하여 허물이 있다고 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도 사실은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멸도만이 아니라 출생에서부터 출가, 수도, 성도, 열반이 모두 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남김없이 구제하시겠다는 대비심에서 펼친 장엄한 하나의 연극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이다해서 결코 허망하다 할 수 없으며 진실한 법으로 이루어진 연극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언행은 그 모두가 중생제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성도과정을 통해서도 중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권력과 재산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이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부자지간에도, 친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석가모니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고대사회의 왕자 신분이란 요즘 대통령 자제와는 다르지요. 권력세습에 있어서 태자란 부와 권력이 보장된 신분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서원하는 부귀영화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태자인 싯다르타는 이 기득권을 버리고 수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출가상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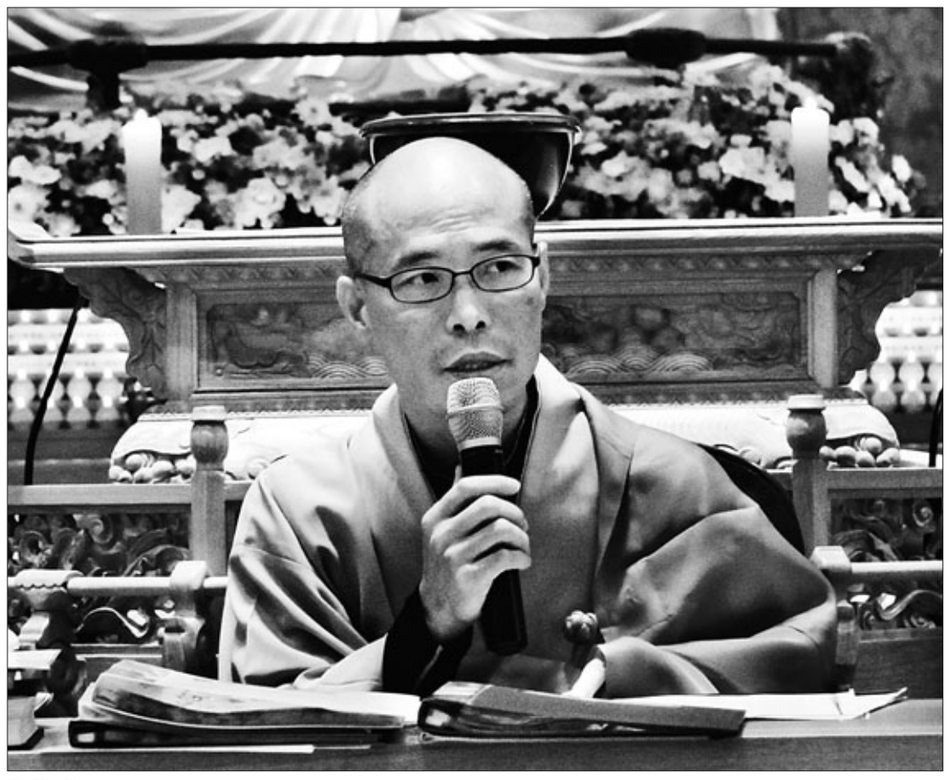
"중생들아. 너희들은 겉으로 돈과 권력을 사모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보아라. 나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서 미련없이 버리고 떠나지 않았느냐."

부처님은 출가를 통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란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서원하는 부귀영화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면 행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더러 좋아하는 사탕을 먹지 못하게 하려면 사탕 대신에 어린이를 만족하게 할 무엇이 있어야 하듯이요. 만일 대안이 없다면 인생이란 비참하고 허망하며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을 성도를 통해 연출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재산과 권력, 사치와 향락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참으로 멋진 연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를 싯다르타 태자가 고행 끝에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신 것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성도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성도절에 담긴 교훈

첫째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근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싯다르타는 왕궁을 빠져나와 그 당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수행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미 싯다르타 태자가 아니라 고타마 사문으로서 열렬한 구도행각을 펼칩니다. 처음에 찾아간 사람은 고행주의자였던 밧가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행 목적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으로 고타마의 출가목적과는 달랐습니다. 고타마는 그들과 작별합니다. 출가한 목적은 생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탄덕스님은 … 자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직지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하고 은해사, 운부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였다. 용인 대덕사 총무, 불교대학부학장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국제선센터 포교차장 소임을 맡고 있다.

> "성도에 담긴 의미
> 번뇌는 자신이 만든다는 사실알고
> 중도 수행으로 자등명 법등명하면
> 누구나 성불할 수 있어"

싯다르타는 인도에서 이름이 가장 널리 알려진 수행자였던 알라라 깔라마와 우다카 라마푸타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들에게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 수행자들을 방문한 결과 그 누구에게서도 인생의 근본대사인 생노병사에 대한 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이런 결론에 도달한 사문 고타마는 홀로 고행림을 찾아가서 외로운 구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사에 대한 근본 문제는 결코 남의 가르침이나 스승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로 부처님께서는 성도에는 중도의 수행이 따른다는 교훈을 주십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정주의자들을 찾아가 그곳에서 맹렬히 수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선정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인 무소유, 최고경지인 비비상처정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고 보니 그들의 이상은 수행상 하나의 과정일 뿐 수행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정상태에 들었을 때는 정신이 통일되어 몸과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지만 항상 선정에만 머물러 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선정주의자들과 작별한 고타마는 고행림이라고 불리는 숲속에 들어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때 고타마가 한 고행은 앞서 말한 외도들의 고행과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학대함으로써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고타마는 생노병사를 해결하고 진리를 발견하고자했습니다. 고타마의 고행은 말과 글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벽에 그려놓은 팔상성도를 볼 수 있는데, 이 벽화가운데 설산수도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뼈와 가죽이 달라붙고 갈빗대가 튀어나온 그림이 바로 부처님이 고행하실 때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이 고행 기간이 자그마치 6년입니다. 그러나 고타마는 결국 이 고행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선정이란 극단적 정신일변도의 수행은 물론 고행같은 육체일변도의 수행도 올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을 통해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 고행을 버리신 고타마는 수자타라는 처녀로부터 우유죽을 받아먹고 강에 몸을 씻고 건전한 심신상태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수 아래 정좌하시고 일주일간 용맹정진한 후 성도하게 됩니다. 이로써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수행을 해야하는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셋째로 부처님은 성도를 통해 생사의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깨우쳐 주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상계는 우주의 근원, 인생의 근본을 브라만이라는 유일신에게 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다수 물질적 요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인간을 괴롭게 하고 자유를 약탈하는 요인이 신이나 물질과 같은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고 자기 내부에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셨고 성도를 통해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싯다르타는 성도하기직전까지 마왕 파순의 집요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삼계가 오직 이 한마음의 소작이므로 마왕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한 모습일 따름입니다. 마왕은 바로 무명이요, 팔만사천마왕의 권속들은 바로 중생들의 팔만사천번뇌 망상입니다. 번뇌 망상을 극복하고 청정 본연의 자성을 찾아내는 일이 바로 성도고 성불인 것입니다. 무명이란 마음으로부터 파생한 헤아릴 수 없는 번뇌 망상이 우리의 자아를 덮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자신의 참성품, 참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뇌망상이 경전에서는 때론 여인으로 때론 험상궂은 병사로 변하여 성도를 목전에 둔 고타마에게 갖은 유혹과 협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타마는 이 근본 욕망인 무명을 극복하고 마침내 새벽하늘에 찬란히 반짝이는 별을 본 순간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 무상정득정각이며 우리말로는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것입니다. 무상정득정각이란 외부의 대상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고 석존 자신의 내부에 간직된 진실한 자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결과로 우주와 인간 온갖 사물의 위치를 바로 보게 된 것이지요.

끝으로 부처님은 성도를 통하여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평범한 이가 갖은 번뇌 망상에 시달리다 수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성도했다는 사실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바른길을 찾아서 용맹정진하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처음부터 중도를 걷지 않고 굽은 길을 돌아서 목적지에 가신 것도 바로 이같은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성도절은 부처님이 성도 시범 보인 날

불교는 타종교와 달리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지하여 현세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생사윤회를 단절하고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룩하자는 이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불자들이 만나서 헤어질 때마다 하는 인사가 '성불합시다' 입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고 성불해야합니다. 그러나 성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절에 다니는 불자가 얼마나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성불은 범부들이 근심 걱정없는 행복한 인간이 되리라는 노력을 버리지 않는 한 결국에는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는 불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어찌 성불을 바라냐며 체념해버리기 때문에 성불의 길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절은 부처님께서 성도하는 시범을 보이신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절 기도기간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되실 분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존경함으로써 우리 자신가운데 간직된 부처님의 성품이 빛을 발하도록하여 성불하도록 힘써 정진합시다.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을 구求하라!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地造明堂을 구求하라!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人造明堂을 구求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체(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여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秘)한 베일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전국 서점 판매중!

■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新 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817쪽 / 정가 50,000원

四柱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안목이 한순간 확트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희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빈.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사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해탈 상징 ‘불교지화’ 전통 살리자”

紙花

천태종 종단 차원 한국전통지화 주제 학술대회 개최
스님들 “종교의미 각별”, 학자 “전통보존” 한 목소리



천태종이 1월 7일 단양 구인사 광명당에서 개최한 전통지화 학술대회에는 700여 대중이 모여 불교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했다.

불교지화는 생화를 대체품을 넘어 해탈과 깨달음을 표현한 종교적 가치가 높은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지화 전통을 살리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라져가는 한국전통 중 하나인 불교지화를 보존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1월 7일 단양 구인사 광명당에서 ‘2014 한국전통지화 학술대회’ 를 열고 지화의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천태종 감사원장 춘광 스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화는 생화의 대체품이라는 한정을 초월해 그 종교적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일체 중생의 해탈을 염원하는 불교전통에서 지화는 해탈을 염원하는 마음과 깨달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불경 속에 깨달음을 상징하는 꽃의 예로 불교지화 전승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스님은 “〈불설아미타경〉의 ‘극락세계의 공덕장엄’ 부분을 보면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극락세계를 설명하면서 그 세계를 보배, 꽃, 음악의 세계라고 소개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도 깨닫고 보니 이 세상 그대로가 화엄의 세상, 꽃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묘법연화경〉 역시 연꽃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진제와 속제의 분별을 초월해 불이(不二)의 경지를 드러내는 장면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통지화보존회장 석용 스님(송탄 송덕사 주지)은 ‘전통지화 제작 기법에 대한 소고’ 주제발제에서 “지화 제작에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 개발로 생화 재배가 쉬워지며 우리 전통인 지화문화의 맥이 끊어질 위기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태종 교무부장 경혜 스님은 “지화는 지금까지 생화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했다”며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지화에 대해 불교계가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명희 홍익대 문화인류학 강사는 ‘문화인류학에서 본 불교 지화’ 발제에서 “지화 자체에는 상징성이 없지만 지화의 용도와 쓰임에 따라 상징성이 부여된다”며 “특히 종교에서 사용된 지화는 신성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동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지화의 차용과 전용’ 에서 굿 등 한국전통 곳곳에 지화문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들고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전통지화가 종교 범주를 넘어 일상 생활예술로 영역을 확산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이번 지화학술대회를 통해 지화예술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학술지, 새해맞아 원고 대거 모집

〈불교학연구〉 〈동아시아불교문화〉 〈한국선학〉 접수

2014년 새해를 맞아 불교학술지들이 대거 게재 논문을 모집한다.

불교학연구회(학회장 조은수)는 1월 31일까지 〈불교학연구〉 제38호 게재논문 원고를 모집한다. 〈불교학연구〉 제38호는 3월 31일 발간된다. 투고 페이지 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20매까지로 200매 초과 시 게재가 불가능하다. 투고 메일주소는 bulgyohak@hanmail.net이다. 〈불교학연구〉는 년 4회 발간되고 있다. (02)2260-3129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학회장 조수동)는 2월 15일까지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7집 논문 원고를 모집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7집은 3월 31일 발간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승격된 바 있다. 접수 메일주소는 eastbuddha@hanmail.net로 심사료는 3만원이다. 논문투고 분량은 〈동아시아불교문화〉 편집 기준 25쪽 이내다. 심사 기준, 투고요령, 논문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easternasia.kr)의 ‘동아시아불교문화 발행 투고 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051)581-6320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선학〉 제36호에 게재 논문을 모집한다. 원고마감일은 2월 28일까지로 발간일은 4월 30일이다. 모집분야는 선불교 관련 수행, 사상, 역사, 문학, 어학 등 전반으로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하다. 투고요령은 학회홈페이지(www.seonstudy.org)의 논문투고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선학회 이메일(seonstudy@naver.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회비와 심사료 납부 이후 심사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불교시대사, 학술지 ‘백송총서’ 발간 예정

학술서 발간이 수익 회향 차원이라는 말이 도는 출판계 상황에서 불교계 출판사가 학술총서 시리즈를 펴내기로 해 눈길을 끈다. 불교시대사(대표 이규만)는 올해부터 학술총서 시리즈 ‘백송총서’를 발간한다.

이규만 대표는 “불교학자들도 학술서를 낼 곳이 줄었고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도 학술서가 많지 않으니 공부에 지장이 많다”며 “우리 불교학계와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학술서를 펴내겠다”고 말했다.

‘백송총서’ 시리즈 첫 권은 김미숙 동국대 겸임교수의 ‘자이나 수행론’으로 700부 가량 펴낼 예정이다. 불교시대사는 불교학을 중심으로 한국학 · 인도학 등 인접학문 연구서도 포함해 매년 4~5권의 학술서를 낼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힉스입자와 불교 세계관’ 열린논단

〈불교평론〉은 1월 16일 오후 6시 30분 신사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논단’ 새해 첫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열린논단에서는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가 ‘힉스입자의 발견과 불교의 세계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양형진 교수는 물리학자로서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연구하고 있다. 〈불교평론〉 측은 “힉스 입자의 발견은 과학적 성과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기독교와 같은 유신종교는 우주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을 주장해왔고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는 모든 존재는 영구불멸하는 본질이 없다는 무아론을 주장해 왔다. 이 주장들을 힉스 이론과 대비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가 매우 흥미진진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5회 원효학술상 후보 공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2월 28일까지 제5회 원효학술상 후보를 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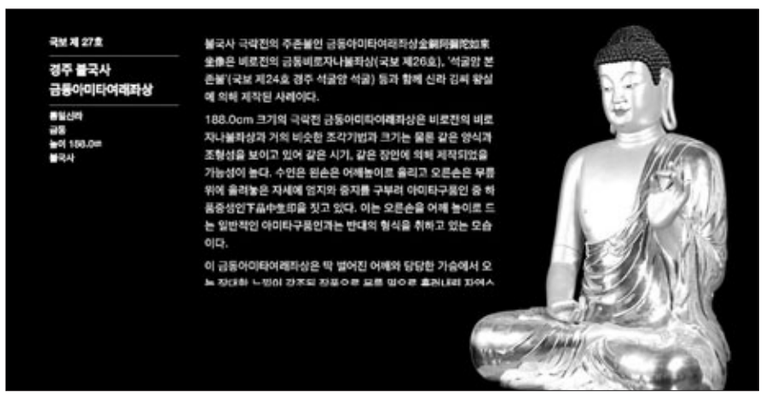
공모 주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에서 자유로이 선택해 1인 1편을 응모하면 된다.

상금은 저술상 1000만원, 논문상 700만원이며 비전임교수는 차등지급된다. 지원서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이제 성보문화재도 스마트폰으로 본다

문화재청, 문화재 ‘문화재대관 국보 앱’ 서비스



‘문화재대관 국보 앱’ 중 국보 조각 앱의 국보 제27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내용.

부석사 무량수전, 석굴암 삼존불상 등 국보급 성보문화재를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보 문화재 229건에 대한 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대관 국보 앱(Application)’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화재대관 국보 앱’은 문화재청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간한 책자 〈문화재대관 국보편〉의 내용을 기반한 것으로 회화, 조각, 도자기, 금속공예, 전적, 기타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문화재대관 국보 앱’에서는 고화질 사진자료를 비롯해 동영상, 소리 자료를 통해 생생한 문화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경우 동영상을 통해 부석사 조사당의 전경과 벽화의 모습이 나오며 음성과 글을 통해 상세한 설명이 함께 나온다.

일부 문화재의 경우 동영상 서비스가 지원돼 주변 환경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문화재대관 국보 앱’은 모바일 앱 스토어(애플의 App Store, 구글의 Play Store)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자책 총괄 앱인 ‘문화유산 서재’와 연동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남양주 수종사 일대 명승 지정 예고

두물머리 및 운길산 일대 포함해 경관 가치 인정


운길산에서 내려다 보는 수종사와 두물머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위치한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南楊洲 雲吉山 水鍾寺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수종사 일대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하천경관이 펼쳐지며 운길산 정상에서는 한강은 물론 서울 북동쪽 지역의 산지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두물머리는 금강산의 정기를 받은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 검룡소(儉龍沼, 명승 제73호)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정기가 합쳐지는 장소로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아름답다.

이 일원은 계절에 따라 신록 · 녹음 · 단풍 · 설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시간과 날씨에 따라 일출 · 일몰 · 운무 등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경관가치가 큰 곳이다.

조선 초기 학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하였으며, 다선(茶仙)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가 정약용을 찾아와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차를 마신 장소로서 차 문화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명승 지정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5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1월 모집중

◆ 개강일시 : 2014년 1월 개강
매주 (화 ·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주스님 : 성 우**
◆ 개강일시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교육시간 : 초 · 중 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상 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한국불교태고종 대구종무원과 경북종무원이 통합하기에
2014년부터 한곳에서 수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

도의선사 주석처, 성지 순례길 만든다

양양郡, 진전사 및 선림원지 낙산사와 연계 관광 성역화

조계종조 도의선사 주석처인 양양 진전사지와 신라 선종 태동지인 선림원지를 비롯해 낙산사 등 양양지역 선종사찰과 사지를 잇는 관광상품이 개발된다.

양양군이 1월 7일 선종 불교의 성지와도 같은 지역여건을 토대로 불교문화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진전사지 정비를 위한 용역을 비롯해 제반 사업을 시작할 것을 발표했다.

양양군이 공개한 관광상품 사업은 조계종 종조로 추앙받는 도의 선사가 주석한 진전사지와 신라 선림원지, 낙산사를 잇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이다.

양양군은 "스토리텔링 개발과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재청 및 조계종과 협의해 국비 등을 지원받아 대단위 복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양군은 복원 이후 사찰 간 성지순례길을 구축한다. 양양군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비 확보를 통해 진전사지의 추가 복원과





양양 진전사지(사진 왼쪽)과 양양 선림원지 석등의 모습. 양양군은 지역 불교문화재를 아우르는 성지순례길을 개발해 관광상품화할 계획이다.

국보 · 보물 소장에도 접근성 떨어져
순례길 정비 · 스토리텔링 강화
조계종 협의 진행 · 걷기대회 예정

함께 삼층석탑, 부도탑을 사찰과 성지순례길 등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양 진전사와 선림원, 천년고찰인 낙산사를 연결하는 마케팅을 통해 불교 성지화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 강현면에 위치한 진전사지는 2005년 18억 5400만원을 투입해 법당과 요사채 208.43㎡을 복원했고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다. 국보 제122호인 삼층석탑과 보물 439호인 부도 등이 남아 있다. 양양군은 진전사 정비를 위해 지난해 8월 용역을 의뢰해 1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결과에 따라 국비확보를 통해 사찰과 부속건물을 추가 복원해 사찰과 떨어져있어 일반인들이 찾기 어려웠던 3층 석탑과 부도탑 등을 연결하고 걷기대회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서면 미천골 선림원지는 번성할 때 한 끼 공양을 위해 쌀을 씻으면 그 물이 20리를 흘러갔다는 데에서 유래해 지금의 미천골(米川谷)이라는 지명이 있게 한 곳이다. 1948년 범종이 발견되며 알려졌으며 현재 3층 석탑과 석등, 홍각선사탑비 및 부도 등 4점의 보물이 남아 있다.

선림원은 804년 순응(順應) 스님이 세운 절로 9세기 중엽 홍각 스님에 의해 대대적으로 중수됐는데, 홍각 스님은 선종 스님이다. 1985년 동국대 발굴조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00년 전후에 대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절터가 완전히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남아 있는 부도비와 석등, 삼층석탑 등은 1965년에 복원한 것이다.

양양군은 선림원지에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해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인근 불교성지를 연결하면 관광자원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교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인재양성이 그 어떤 것 보다 최우선"

지역 학생 장학금 전달한 백산장학재단 이사장 도영 스님



도영 스님이 1월 8일 장학금을 전달받은 학생들과 함께 서있다. 스님은 불법홍포에 인재불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육성에 매진하기 위해 설립한 백산장학재단(이사장 도영, 완주 송광사 회주)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들을 선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백산장학재단은 1월 8일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에서 갑오년 신년 기원 법회 및 제4차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전북대학교 신경선 학생 외 중고 대학생 34명에게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 등 총 3,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2010년 발족한 백산장학재단은 도영 스님이 사재를 출연해 출범했다. 만 3년간 1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0년 3억 출연해 장학재단 설립
2017년까지 10억 규모 확대 발원

"부처님께서 행하신 대자비의 정신은 바로 사랑과 관심입니다. 평생 불법홍포에 전력하며 인재불사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도영 스님은 장학회 창립 정신을 이렇게 밝혔다. 세랍 70세, 법랍 50세를 맞은 해인 2010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스님은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 선서화를 비롯해 다양한 물품의 나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3억 원을 바탕으로 시작한 백산장학재단 기금은 스님의 이런 노력에 현재 약 6억 200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 스님은 3년 후 약 10억 원 가량으로 장학재단 규모를 키울 계획이다.

사실 스님이 인재불사에 대한 서원을 세운 것은 오래됐다. 1980년 금산사 주지 소임 당시 장학사업의 중요성을 느꼈지만 전북불교회관 건립불사를 비롯해 금산사 대적광전 화재와 복원,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사업 등 크고 작은 불사관계로 뒤늦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2010년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늦었지만 출가 50년 만에 비로서 철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스님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다고 했다.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스님은 "나의 삶, 나의 불교를 말하라면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며 새해를 맞은 불자들이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처한 자리에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단 주춧돌 놓는데 일조할 터"

1월 11일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덕운 스님 취임

"한국불교미륵종이 한국불교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사)한국불교미륵종은 1월 11일 광주 미륵사 수자타에서 종단스님 100여 명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6대 총무원장 덕운 스님의 취임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임한 덕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미륵종은 창종 이래 20년 동안 송정 스님이



비상대취위원회 위원장 영탄 스님(우측)으로부터 총무원장 추대장을 받고 있는 덕운 스님

어려운 종단 살림살이를 송정스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며, "도재양성에 중점을 둔 승려기초 교육과정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으며, 템플스테이를 통한 불교문화사업 창달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종단 문도의 화합을 바탕으로 대중의 중의를 얻어 종단운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덕운 스님은 1962년 팔공산 동화사에 출가해, 1963년 태백산 각화사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9년 송광사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자 극락암 호국선원, 월래 묘관음사 선원, 문경 봉암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정진했으며, 1982년 용인 용주사 말사 장경사 주지와 1984년 용인 불교학교 초대교장, 2001년 한국불교미륵종 교육원자과 종회의장을 역임했다.

한국불교미륵종은 지난 11월 9일 전 총무원장 송정 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이 되자 지난해 12월 27일 비상대취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장에 덕운 스님, 부원장에 혜법스님(미륵사 주지)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행사는 불교의례에 이어 비상대책위원장 영탄 스님의 경과보고, 추대장 수여, 축가, 행장소개, 취임사, 임명장수여, 법어(종호 스님), 신년하례 의식이 봉행됐다.

한편 한국불교미륵종은 이날 총무원 부원장 혜법 스님, 사서실장 민예 스님, 기획부장 영범 스님, 재무부장 혜연 스님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기타 부장급 인사는 창종기념법회에 단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광주불교 활성화를 위한 신년대법회 개최

1월 7일 1200명 모여 '서원의 공' 제작, 발원문 낭독

광주불교의 미래를 기원하는 뜻 깊은 법회가 마련됐다. 불기 2558년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와 광주지역 공무원불자회, 광주지역 불교신행단체는 1월 7일 광주광역시청 대강당에서 기념대법회를 갖고 광주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광주지역 불자들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광주불교연합회와 함께 광주불교의 새 희망을 일구어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보탬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병마에 시달리는 어린 생명들과 낯선 땅에 새롭게 정착하는 이주여성,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불평등, 불공정, 지역편견을 극복하고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는 희망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라고 말했다.

이 행사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한 스님 100여 분과 강운태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의원, 박혜자 국회의원 등 정관계인사들과 광주지역불교신행단체 등 1200여 명의 불자들이 대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봉행됐다.



1200여 대중이 성도재일을 맞아 연합으로 칠정례를 올리고 있는 모습

행사는 1부 광주불교연합회 임원단 취임식과 2부 성도재일 법회가 봉행됐다.

특히 이날 불자들은 '서원의 공'에 광주불교연합회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들을 작성해 전달하기도 했다. 1부 행사에 이어 2부 성도재일 법회는 1200여명의 불자들의 합송으로 칠정례를 봉행해 큰 장엄함을 선사했다.

법문에 이어 정근과 촛불의식, 발원문 합송, 사홍서원이 진행됐다. 또한 조계종 광주승보회에서 마련한 장학금이 초 · 중 · 고등학생 20여명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성거사, 미얀마에 학용품 전달

불탑의 나라 미얀마 아이들에게 광주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광주 성거사(주지 혜공)와 바라밀 봉사단은 구랍 28일부터 1월 3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해 양곤에 위치한 학교시설에 학용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학용품은 사찰과 신도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마련한 선물이다. 성거사는 이미 2012년에 이 학교에 10평 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혜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미얀마는 상좌부 불교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소중한 불교국가"라며 "이러한 불교적 전통이 이어져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진면목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거사 성지순례단은 양곤에 이어 바간, 혜호, 만달레이 등 미얀마의 불탑과 성지 등을 순례했다.



성거사가 양곤에서 개최한 학용품 전달식에는 현지 학교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1월 28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南京中醫學大學 1954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팔관회 복원 등 불교문화 전통 계승에 진력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법회 및 계획 발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는 1월 6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4년 부산불교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하고 신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은 떡 커팅식, 오른쪽은 신년하례 장면.

1월 6일 코모도호텔서 신년하례회 성료
2014년 문화 복지 사업 등에 전력 다짐

2013년 6만 명의 한반도평화대법회 부산 개최를 이끌며 한국불교의 수행과 신행의 모범을 보여 온 부산불교계가 신년하례법회를 행사를 갖고 갑오년 새해에는 불교문화의 전통 계승과 발전을 위해 도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스님)와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는 1월 6일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4년 부산불교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상임부회장 무원 스님(삼광사 주지),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석조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 명이 함께 했다.

수불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부산에서는 다양한 불교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승가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가는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부산불교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합심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수불스님은 "부산연등축제를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팔관회를 범국민적인 문화행사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 향토 부산의 문화적 토양을 풍성하게 가꾸도록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윤희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은 봉행사를 통해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승가와 재가가 합심, 화합하고 부산불교계가 부산시민의 복전이 되어 귀감이 되는 불교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전60주년을 한반도평화대회를 성황리에 회향한 공로자인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과 전 부산광역지불교합창단연합회 김윤순 회장 이상 두 명이 공로상을 수상하고, 이임사무총장 범산 스님(영주암 주지)은 사명대사호국광장 건립 등 치적을 인정 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범산 스님에 이어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신임사무총장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이 임명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신임사무총장 심산 스님은 2014년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부산연등축제, 팔관회 복원 등 전통 및 불교문화의 발굴과 계승,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청소년문화사업,사회복지사업,새터민 지원 등 정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교류를 통한 사회공헌사업 △불법홍포 및 사회교화사업과 봉축행사, 성도재일, 열반재일, 출가재일 등 기념행사 봉행과 회원사찰의 권익보호, 불교교권수호를 위한 포교사업 등을 추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신년하례회는 김동열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상임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2013부산불교의 발자취, 공로패 전달, 임명장 전달, 2014주요사업 발표, 봉행사, 신년사, 축하공연, 축하 떡 커팅식,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연등축제를 세계인의 축제로

2014 부산연등축제기획단은 제1차 주요일정 발표



부산연등축제기획단은 2014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3부산연등축제 거리연등 퍼레이드 모습

2014부산연등축제기획단(위원장 심산)은 1월 9일 부산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제1차 기획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4부산연등축제의 전체 일정과 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획위원장 심산 스님은 "2014부산연등축제는 불교 행사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 시민의 축제, 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노력과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며 부산연등축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무게를 실어 말했다.

이날 기획단은 2014부산연등축제의 성공적 회향을 위한 주요일정 및 봉행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일정은 △전통등강습회(1월~3월) △연등축제 봉행위원회 결성법회(2월) △연등축제 보존과 발전세미나(3월) △창작등 경연대회및 연등문화제 개막점등식(4월) △대형장엄등 전시회, 창작등 및 행렬등 우수작 전시회,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연등축제 축하공연 한마당, 사찰비빔밥 무차만발공양(4월) △연등축제 전통예술특별전(4월) △봉축연합대법회,연등퍼레이드, 대동회향한마당(4월) △평가회 및 시상식(7월) 등으로 정해졌다.

한편, 기획단은 2014부산연등축제를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2월 15일~19일까지 4박5일간 대만등불축제에 참관할 예정이다. 대만등불축제는 대만 교통부 관광국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정월대보름 경 전국의 한 지역을 선정해 열리는 정부차원의 대규모 등불축제로 올해 25회째 개최 예정이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티베트 명상치유·인재양성 '추진'

보리선수 약사선원 한국총본부 설립 결의

현대적인 티베트 명상치유 수련법을 국내에서 전파해 온 보리선수약사선원이 한국총본부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보리선수약사선원 한국총본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법생 · 각성)는 1월5일 부산 송정 약사선원 11층 회의실에서 전국 5개 법당 주지 및 신도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총본부 설립을 결의했다.

부산 보리선수 주지 법생 스님은 "보리선 수행은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이 쉽고 빠르게 심신의 건강과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선수행법이다.

현재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해 오던 방식을 총괄하여 상반기 내에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행정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선원을 찾는 수행자들과 고통 받는 이들이 전국 어떤 선원을 찾더라도 수행과 신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함"이라며 설립 취지를 전했다.

이어 법생 스님은 "지난 7년이 보리선 수행법을 전파하는 시간이었다면, 향후 7년은 보리선 수행법을 전파하는 법사진을 발굴하는 인재양성이 중요한 기간이다"고 강조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21C는 힐링, 명상과 관련한 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불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면 한 명의 법사라도 더 발굴하고 양성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보리선수 주지 각성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2558년이 흘렀고, 인도에서 불법이 전파되어 중국을 거쳐 한국에 도달했으며, 이젠 전 세계인이 향유하는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며 "이렇듯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문화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만인들이 의지하는 것은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하는 능력, 실용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보리선수 한국총본부의 방향은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즉신성취, 당생성취하는 구제중생의 원력을 전면에 실천하는 진심어린 불교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사무실을 부산 해운대 송정 약사선원에 두고 3월까지 조직개편과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본부가 들어설 해운대 송정 약사선원은 지난 2013년 7월 경 문을 열고 지하1층 지상11층 규모로 대법당, 사무공간, 회의실,세미나실, 휴게실, 현대식 공양간과 수련시설 등을 겸비하고 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밥 한 그릇으로 불법 인연 전하자"

조계종부산연합회 쌀전달식



조계종 부산연합회 자비의 쌀 증정식.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 증정식을 가졌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은 1월 10일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복지관 31개 단체에 자비의 쌀을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수진 스님, 사무총장 하림 스님을 비롯 지역 복지관 소속 임직원 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에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후원 한 쌀은 천만원 상당 총249포가 31개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향후 이 쌀은 복지단체에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용으로 활용된다. 수진 스님은 증정식에 앞서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인연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나고 불법과 소중한 인연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증정 소감을 전한 후 "일선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도 진심을 다해 어려운 이의 벗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윤기혁 원장은 "부산 불교계 사회복지 활동이 2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청정수행으로 불교계를 보살피는 대덕스님들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며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을 초심으로 갖고 일선에서 자비정신을 실천하겠다"고 31개 복지단체를 대표해서 말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부산 삼광사 청년회 연탄 나눔 봉사

부산 삼광사 청년회(회장 홍정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삼광사 청년회는 1월11일 부산 남구 우암동, 문현동, 감만동 일대에서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을 나누며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온정을 베풀었다.

이번 행사는 IBK 기업은행의 후원으로 1가구당 100장 총 5000장의 연탄이 50가구에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홍정표 청년회장을 비롯 박재본 시의원, 박두춘, 이진호, 김병태 구의원, 삼광사 청년회원 30여명이 함께 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장 온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유난히 더 춥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청년들이 그 포문을 힘차게 열어 주니 새해에는 사회가 더욱 밝고 나눔과 온정이 넘쳐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광사청년회 홍정표 회장은 "작은 마음이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지혜가 이들에게 전해져 용기와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정표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복지 활동을 중심으로 청년회의 결속을 다지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청년포교의 산실이 되는 청마의 해로 만들자"고 새해 청년회의 포부를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설암 품은 선경, 이곳이 바로 설국이로세

雪岩 仙境 雪國

눈길이 아름다운 산사 - ② 고성 화암사

"마음의 흙먼지를 잊어먹을 때까지 걸으니까, 산은 슬쩍 풍경의 한 귀퉁이를 보여주었습니다.…(중략)늙은 절 한 채 그 절집 안으로 발을 들여 놓는 순간 그 절집 형체도 이름도 없어지고…(중략)인간의 마을에서 온 햇볕이 화엄사 앞마당에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암사 내사랑, 찾아가는 길은 굳이 알려주지는 않으렵니다."

안도현의 시 '내 사랑, 화암사' 중 일부다. 물론 이 시의 주인공은 전북 완주 화암사(花巖寺)다. 그런데 만일 안도현 시인이 강원 고성에 있는 화암사(禾岩寺)를 눈내리는 겨울에 찾았다면, 아마도 이렇게 읊조리지 않았을까?

"경내 풍경소리 천년을 울려 날 짐승 들 짐승과 소통한다/ 무심한 수바위 앞에 합장한 손 가슴 가까이 닿을수록 그 정성 깊어지고/ 그칠 줄 모르는 속절없는 함박눈 속에 번뇌는 잠시 파묻힌다."

화암사는 지도상에서 보면 설악산국립공원에 속한 상봉(1,242m)의 정동쪽에 있다. 그런데 일주문 현판에는 '金剛山 禾岩寺(금강산 화암사)' 라고 적혀 있다. 아마도 옛날엔 이 절이 위치한 곳까지 금강산 자락이었던 것 같다. 일주문서 경내까지 들어가는 2킬로 남짓 달하는 길은 사시사철 가히 일품이다. 봄에는 꽃길, 여름에는 녹음길, 가을에는 단풍길, 겨울에는 눈길 등 사시사철 옷을 갈아 입는다. 지금은 겨울인지라 눈이 소복히 쌓여 있다. 특히 화암사는 지형적 영향으로 심지어는 4월에도 눈구경을 할 수 있을 만큼 눈이 많이 오는 사찰이다. 그래서 겨울이면 언제 가더라도 대부분 눈을 볼 수 있다.

1월 7일 눈발이 간간히 날리는 화암사는 평일인데도 지난해 사찰 주변 등산로를 개설해서인지 경내엔 등산복 차림의 관광객들이 제법 눈에 띠었다. 이 중 풍광을 감상하던 한 관람객은 "와 이렇게 좋은 절을 여태껏 우째 몰랐노"하며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행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에 동조한다. 그렇다. 화암사는 잘 생긴 사찰이다. 그래서 이 곳에 와서 첫 눈에 반하는 이들이 많다. 더더군다나 계절이 변하면 절이 발산하는 풍광의 매력도 다양하니, 속칭 동물로 얘기하면 카멜레온이다. 외모만 번지르한게 아니다. 뼈대 있는 가문처럼 사력 또한 여느절 못지 않은 천년 고찰이다.

화암사는 신라 혜공왕 5년(769) 진표율사가 비구니 도량으로 창건했다. 진표율사는 법상종 개조(開祖)로서 법상종은 참회불교의 자리매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간성지 화암사조에 의하면, 미시령 밑에 화암(禾岩)이란 바위가 바른편에 있기 때문에 절 이름을 화암사라 했다고 한다. 화암사는 창건 이래 고종 원년까지 1096년간 화재가 5번이나 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후 1911년 건봉사 말사가 되었고, 1915년 소실, 6.25 전쟁으로 폐허, 1986년 중창되는 등 화재와 중건을 거듭하다 1991년 세계잼버리대회때 불교국가 1천 여 명이 대웅전에서 대규모 수계를 받아 유명해졌다. 동쪽으로는 발연사가 있고, 서쪽에는 장안사, 남쪽에는 화암사가 있어 금강산에 불국토를 이루려는 진표율사의 뜻이 담겨 있는 사찰이다. 화암사는 마주보는 능선에 '수바위' 란 이름의 웅장한 암봉이 절집과 어우러져 범상찮은 기운을 뿜어낸다. 화암사를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 족두리 같기도 하고 편썰기해서 그러모은 마늘 덩어리 같기도 한 바위가 빠지지 않는다. 바로 수바위다. 볏가리 모양 같다고 해서 처음엔 화암(禾岩)이라고 불렸다. 절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다. 그런데 이 '화' 자가

신라 혜공왕 5년(769) 진표율사가 창건
범상치 않은 기운 뿜어내는 수바위 일품
가을이면 단풍 형형색색으로 절집 포위

거듭된 화재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뒤에 물 수(水)자로 바꿨다. 빼어날 수(秀)자라는 사람도 있다. 여하튼 그 모습이 무척 늠름하다.

화암사를 다시 찾고자 한다면 가을에 올 것을 권한다. 백미는 단연 단풍이다. 절집 뒤편 미타암과 조실인 영은암 앞 계곡의 화암폭포 주변부터 불붙기 시작한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들면서 절집을 포위하면 가히 장관이다. 화암사 단풍은 가을이면 일시에 폭죽처럼 터진다. 빛깔만큼은 설악의 것보다 훨씬 더 곱다. 이처럼 화암사의 빼어난 풍모는 아는 이들만 안다. 설악산이 온통 몰려든 단풍 행락객들로 북적거릴 때도 이곳 화암사는 덜 붐빈다.

화암사에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전통찻집 '란야원' 과 선물 가게를 겸한 찻집인 '수암전' 이다. 직접 신선한 재료와 약초로 끓여 내는 뜨거운 차 맛은 화암사의 매서운 칼바람에 지친 나그네의 추위를 녹여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수바위를 벗삼아 향긋한 차 한 잔을 앞에 두는 정취만으로도 그곳을 찾은 보람은 충분하다. **고성 화암사=김주일 기자**



속절없이 내리는 하얀 함박눈은 풍진에 묻힌 속세인들에게 비우라 비우라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품어주는 듯 하다. 사진은 화암사 대웅전과 8각 9층탑 전경.


빼어난 풍광과 기를 발산하는 거대한 '수바위'.


화암사의 1천년 역사를 말해주는 고승 부도전.

"미륵대불 건립 연내 완공 예정"

화암사 주지 웅산 스님

"올해 화암사는 높이 10m 대형 미륵대불과 해맞이 공원조성 불사를 연말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완공 되면 이곳서 해맞이 기도를 봉행할 것입니다. 대개는 사찰서 1월 1일 새해 첫날 해맞이를 하는데 우리 화암사에서는 1년중 해가 가장 긴 하지에 해맞이 발원 기도 법회를 할 것입니다."

제 2의 중창불사를 이끌고 있는 웅산 스님은 올 한해 화암사가 크게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엄사는 고성군과 지난해 8월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 9400만원을 들여 화암사 주변 경관이 빼어난 산림 내 수바위(일명 쌀바위), 성인대, 옥문바위 등 기암괴석을 최대한 활용해 숲길을 정비했다.

또한 화암사 일대가 2019년까지 400억원이 투입돼 '산사의 숲' 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화암사를 중심으로 436만2946㎡규모로 금강 탐방로(숲길)과 치유의 공간으로 나눠 조성된다.

화암사 본다라 템플라이프

지난해 여름 '본다라' 템플스테이를 새로 마련했다. 본다라라는 의미는 태어남(born)과 죽음(die)의 영단어에 접미사 라(la)를 결합한 것인데 주지 웅산 스님이 지었다. '생과 사의 참의미를 체득한다' 는 심오한 뜻이 담겼다. 생사 문제는 모든 인간의 가장 근원적 물음이다. 화암사 '본다라' 템플스테이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으며 또한 자유롭다. 본다라 템플라이프는 △정기템플스테이 △단체, 가족 템플스테이 △휴식형 템플스테이 △템플라이프 등으로 구분된다.

시간이 넉넉지 않다면 2~4시간의 템플라이프가, 좀 더 알찬 체험을 원한다면 매주 토~일 정기 템플스테이가 적합하다. 정기 템플스테이의 경우 참선수행과 108배, 발우공양과 성인대 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불교문화 체험의 바로미터로 인기가 높다. 스님과의 차담과 숲길 걷기 등 문화적 요소를 강화한 프로그램 '산사의 숲' 도 마련돼 있다. 특히 주지 스님이 9가지 약초를 달여 만든 '화란차'는 화암사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사전예약을 통해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 단체 템플스테이도 가능하다. (033)633-1525 www.화암사.com

여행수첩

▲**가는길**=홍천까지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동홍천IC부터는 46번 국도 이용. 미시령터널을 지나 원암교차로에서 대명리조트 방향으로 꺾는다.

▲**맛집**=한화 사거리 인근에 주로 많다. 특히 이 주위에는 순두부 요리를 하는 곳이 많다. 이중 순두부와 항태구이, 곰치국, 아바이 순대를 잘하는 **순자네곰치국**(033-635-3004)이 유명하다. 또한 생물 대구탕이 먹고 싶다면 인근에 **황대구탕집**(033-635-3989)을 방문해 보자. 그날 잡은 생물 대구를 지리나 매운탕으로 맛볼 수 있다. 밑반찬도 깔끔하다. 가격은 당일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흥미롭다. 고기 생각이 난다면 학사평 길목에 **송정한우**(033-638-0505)가 단연 으뜸이다. 돼지갈비와 더덕구이, 한우 생등심 등이 주 메뉴다.

▲**묵을 곳**=속초 대명리조트가 5분 거리에 있으며, 관광단지인 만큼 인근에 일성, 한화, 금호, 현대 등의 리조트들이 있다. 또한 빌라식으로 돼 있는 파인리조트도 인기가 높다. 수미산 모텔이 가격대비해 시설이 깔끔하다.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동참 가능한 성지순례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2014년 2월 19일, 2월 22일, 2월 24일, 2월 26일 등
* 미얀마 성지순례 (양곤 바고 시리암 5일).....요금문의
  2014년 2월26일
* 운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2014년 2월14일, 2월18일, 2월20일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헤호 5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패구 황룡 6일..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7일.....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요금문의

중국 · 태국 라오스 현지 직영 사무실 OPEN
(주)마하연 투어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탑의 진화

② 석가모니부처님의 열반과 불탑 조성

진정한 불탑은 역사적 실체의 불사리탑

지난 호에는 석가모니부처님 열반 이전의 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불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불탑은 역사적 실체로서의 불사리탑을 의미한다.

1) 전륜성왕의 장례법과 불사리탑

석가모니부처님은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45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중생교화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80세가 되던 해에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다. 그러자 아난다는 장례식 절차와 부처님의 유골인 사리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는 전륜성왕의 장례식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부처님의 장례식은 전륜성왕보다 더욱 여법하게 하라고 유언하셨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자 아난다를 위시한 그 당시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유훈에 따라 전륜성왕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모셨고 불탑을 조성했다.

그러나 전륜성왕의 장례법에 대해서는 전하는 경전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특히 한문으로 번역 된 한역경전의 경우에는 번역가와 번역시기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경전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반니원경〉에는 "아난다가 부처님에게 전륜성왕의 장례지내는 법에 대하여 물으니 '장례법은 비단으로 몸을 싸고, 겁파육 열장으로 그 위를 반대 방향으로 몸을 싸서 은관에 넣고, 향기름을 겁파육이 충분히 젖을 만큼 붓는다. 그 후에 가래나무, 녹나무, 단향목 장작으로 관을 덮고 다비(茶毗 jhapeti)를 한 다. 다비를 마치면 사리를 수습하여 사거리에 탑을 쌓고, 찰간을 세우고, 사리를 안치한 노반을 그 위에 설치하고, 비단 번기를 걸고, 악기를 연주하며, 꽃과 향, 등불로 공양한다. 전륜성왕의 장사지내는 법은 이와 같지만 부처님의 장례법은 이보다 더 훌륭하게 해야 한다."(〈대정신수대장경〉1권 169쪽 상단)고 하였으며, 〈대루탄경〉에는 "전륜성왕의 몸을 깨끗이 목욕시킨 후에 솜으로 몸을 싼다. 그 다음 담요 500장으로 몸을 감고서 철관에 넣는다. 그리고 향내 나는 기름을 그 위에 부은 뒤 뚜껑을 덮고 못을 박은 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풍악을 울리며 노래하고 춤추면서 전륜왕의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들고 나가 향나무로 장작을 쌓고 관을 장작 위에 올린 뒤 곧 불을 화장을 한다. 관이 다 타고 나면 옥녀보와 주장성신보와 도도성신보는 함께 사리를 거두어서 사거리 가운데 7보로 탑을 세우고 그 속에 안치한다." (〈대정신수대장경〉1권 283쪽 상단)고 설하였다.

또, 〈반니원경〉에는 "금관을 다시 큰 철관 속에 넣어 두고, 화장하여 사리를 거두어 사거리에 탑을 세우고 찰간을 세워 표시하고 깃발을 달며 꽃과 향을 올리고 예배하라"고 하였으며, (〈대정신수대장경〉1권 186쪽 하단) 〈세기경〉의 '전륜왕품'에는 "전륜왕의 옥녀보와 거사보, 주병보와 나라의 백성들은 사거리에 칠보탑을 세우니 가로와 세로가 각각 1유순(약 40리)이고, 오색찬란한 7보로 장식한다"(〈대정신수대장경〉1권 121쪽 상단)고 설한다.

이처럼 그 당시 최고의 이상적인 정치적 지도자였던 전륜성왕의 장례법은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의식이었다. 하물며 정치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부처님의 장례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신앙심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전륜성왕의 장례법보다 더욱 여법하게 행하라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유언은 경전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와 같다. 즉 전륜성왕의 장례법에 대하여 목욕방법, 염(殮)을 하는 재료, 수량, 유골 안치 순서, 공양물의 내용 등이 경전 번역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륜성왕 장례법 비교

구분	불반니원경	대루탄경	반니원경	장아함경 (유행경)	장아함경 (세기경)	대반열반경	기세인본경
한역자	백법조	법립,법거 공동번역	실역	불타야사, 축불념 공동번역	불타야사,축불념 공동번역	법현	달마급다
한역시기	290-306	290-306	?	399-416	399-416	418	605-616
세욕재료	·	·	·	향탕	향탕	·	향탕,향즙
염 재료	겁파육10장	담요 500장	겁파솜 모직물 500장	무명천 500장	겁패500장 담요500장	무명모직물 1,000겹	겁파사 가는천 500단
사리 안치방법	은관	철관	금관, 철관	금관, 철관, 목관	금관, 철관, 목관	금관, 은관, 동관, 철관	금관, 은관
탑 위치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	사거리	·	·
탑 표시법	찰간	·	찰간	표찰	·	표찰	·
공양물	번기, 기악 꽃, 향, 등불	칠보	깃발 꽃, 향	비단	칠보	번기, 일산 향, 꽃	·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염을 하는 재료와 수량은 모든 경전마다 다르게 전한다. 초기에 번역된 〈불반니원경〉에는 겁파육 10장에서부터 418년에 한역된 〈대반열반경〉에서의 무명과 모직물로 1,000겹을 감싼다는 내용까지 매우 다양하다.

사리를 안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철관이나 은관 등을 사용하다가 '금관-철관-목관'의 3중관에서 '금관-은관-동관-철관'의 4중관까지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남아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여러 불교 국가에서 불탑을 건립하고 사리함을 안치할 때 외함으로 해서 3중, 4중으로 보호한 이유인 것이다.

또한 탑을 건립하는 위치는 모든 경전에 공통적으로 사거리에 조성한다는 내용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이 편하고 쉽게 불탑을 찾아 참배하도록 한다는 부처님의 자비심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탑의 표시 방법으로는 찰간과 표찰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이는 후세에 불탑의 상부에 설치하거나 불당 앞에 막대나 쇠로 깃대모양을 만들고 꼭대기에 금속 등으로 장식하는 것과, 절을 금찰(金刹), 범찰(梵刹), 사찰(寺刹) 등으로 표현하는 어원이 된다.

불탑에 올리는 공양물은 칠보와 꽃, 향, 등불 등 일반적인 공양물 외에도 일산과 기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산은 부처님 당시에는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었다. 이러한 불탑 정상의 일산이 후에 중국에서는 둥근 모습만 전래되어 아예 법륜을 상징하는 수레바퀴 모양의 보륜, 보개 등의 기원이 된다.

불탑에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으로 공양하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중국 돈황석굴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의 여러 벽화에서 요고, 공후, 비파, 생황, 젓대, 배소, 나각, 제금 등을 연주하는 인물상이 불탑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월성 감은사지 3층 쌍탑에서 각 출토된 사리기〈사진1〉 등에 나타나는 주악상은 남원 실상사의 백장암 삼층석탑, 구례 화엄사의 사사자삼층석탑, 양양 선림원지의 삼층석탑, 양양 진전사지의 삼층석탑, 서산 보원사지의 오층석탑 등에도 표현되어 있다.

2)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처와 다비장

석가모니부처님은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에서 열반에 드셨다. 현재 이곳에는 벽돌을 재료로 하여 조성된 반구 모양의 열반탑이 있다.〈사진2〉 이 열반탑의 상부에는 평두라는 신성한 곳임을 상징하는 사각형의 난간과 정상부에는 3개의 일산을 조성하고 있다. 그 옆에는 5세기경에 조성된 길이 6.2m의 열반상〈사진3〉이 모셔져 있는 열반당이 있다. 현재의 열반당은 13세기 이슬람교도들의 침공으로 파괴된 것을 최근에 복원한 것이다. 이 열반당으로부터 1.6km 떨어진 곳에 석가모니부처님을 화장하고 다비식을 치른 장소에 불탑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람바르 스투파(Rambhar Stupa)이다. 〈사진4〉

람바르 불탑은 불탑신앙의 대표적 상징이 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사리를 수습한 장소에 조성된 불탑이기 때문에 불교역사에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불탑은 기단부의 둘레가 47m이며, 그 위에 세워진 반구형의 탑신 둘레는 34m에 달한다. 높이는 약 15m에 달하는 대형 불탑에 속한다.

1910년 고고학자 히라난다 샤트리(Hiranand Shatri)에 의하여 발굴 복원 되었으며, 이 때 경전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 되었다.


〈사진1〉
불탑에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공양을 실천하는 인물상이 돈황굴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벽화에서 나타난다.


〈사진2〉
부처님의 열반처 쿠시나가라에 조성된 열반탑


〈사진3〉
열반탑 옆에 5C경 조성된 열반당


〈사진4〉
열반당에서 1.6㎞ 떨어진 곳에서 부처님의 다비를 모시고 사리수습 후 세운 람바르 불탑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에 '열반탑'
1.6㎞ 떨어진 곳에서 다비하고
불탑의 상징 람바르 불탑 조성
모든 탑은 사거리에, 쉽게 많이 보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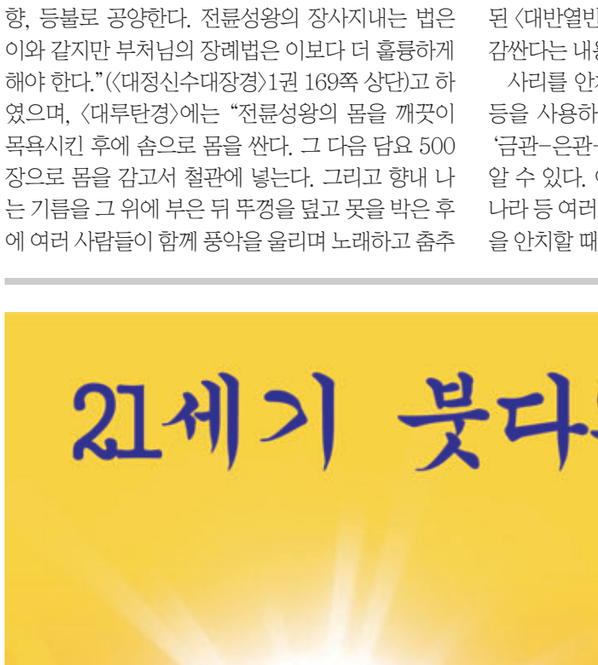
글 · 우인보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7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마음이 부처가 아니라 견성은 머나먼 수행의 시작입니다
스승이 없는 시대! 이 책이 여러분을 정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개정판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 도서

영산불교 지장보살본원경(근간)

서연 이대성 저 (00대학교수, 철학박사)

'철위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업력(業力),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도리천궁신통품 중에서)

지장보살본원경은 지옥중생을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의 인행(因行)과 서원을 밝히고 있고, 우리가 저지르는 악업의 과보를 밝혀서 그 과보로 가게 되는 지옥의 실재를 설하고 있는 중요한 대승경전이다. 이 책은 이전 어떤 해설서와도 차원이 다른 영산불교만의 깊이 있는 지장보살본원경 해설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장보살님의 실체를 처음으로 밝히고 있다. 지장보살본원경 13품을 각 품별로 자세한 해설을 달았고, 지장경을 봉독함으로써 10선을 행하여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따라 배우고 실행하여 훌륭한 불자로 거듭나서 윤회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다.

왜 불교인가(근간)

대현 김주영 저 (서울공대 공학박사, 대학원 초빙교수, 장영실상 수상)

저자는 '왜 불교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주적 진리인 영산불교의 관점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기존의 모든 철학 과학 종교를 긍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비판한다. 인간의 역사속에서 철학과 과학, 종교가 태동하고 다양하게 발전해왔지만 오직 불교만이 인생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불교를 불완전한 반자(半字)불교로 규정하고, 기존불교를 포함해서 이때까지의 어떤 철학 과학 종교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류사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한 영산불교를 만자(滿字)불교로 보고 불신론 영혼체론 생사관 수행관 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으로써 신불교 영산불교의 가르침을 제시한다. 이 책은 저자가 한평생을 살면서 모색해왔던 구도의 역정이 고스란히 배여있는 역작이다.

격랑의 시대, 어린 유천은 '대자유의 道'를 꿈꾸고…



만해 스님 열반 70주년

'만해의 길을 가다' ① 충남 홍성 만해 스님 생가지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1879. 8. 29 ~ 1944. 6. 29) 스님은 한국 근현대 인물 중 가장 폭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깨달음의 길을 걸었던 수행자였으며, 격랑의 근대사를 온 몸으로 안았던 실천적 지식인이기도 했고, 시대의 아픔과 진리의 열망을 언어로 노래했던 시인이었다. 또한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부르짖었던 민족주의자요, 항일운동가였다. 이 모든 것이 66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간 만해 스님을 평가하는 수식이다.

올해는 한국불교 근현대사에서 가장 다각적 평가를 받는 만해 스님의 열반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본지에는 이에 맞춰 만해 스님이 걸어온 길을 되짚으며 그 사상과 유훈을 돌아보고 한국불교의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 위치한 만해 한용운 스님 생가. 새롭게 복원된 것으로 2007년에는 만해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문학 체험관도 개관됐다.



만해 스님 생가지의 표지석.



문학체험관 전경. 일대는 홍성 8경 중 하나다.



만해 스님이 어릴 적 배운 한학 교재.

충청남도 홍성(洪成)은 예로부터 의인이 많이 배출된 고장이다. 고려 충신인 최영 장군을 비롯해 조선시대 사육신 성삼문과 항일 투사 김좌진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모두 '의(義)'라는 기재를 충직히 지켜온 인물들이다.

한국불교사의 한 획을 그은 만해 한용운 스님도 홍성이 자랑하는 위인이다. 실제 홍성군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홍성 8경' 중 하나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생가지를 꼽는다.

현재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는 만해 스님이 살았던 생가와 체험관이 함께 복원돼 있다.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만해 문학체험관은 대지면적 2803㎡, 연건평 1090㎡ 규모의 2층 건물로 지어졌으며 2007년 10월 개관했다. 전시실에는 만해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60점의 유품과 작품을 비롯해 만해의 사상과 작품 세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시청각 영상시설이 설치됐다.

세미나실과 창작실은 만해를 연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어린이 체험실은 흔적 체험용 탁본, 영상시설, 300여권의 만해 관련 도서, 정보검색용 컴퓨터, 퀴즈코너 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들의 유익한 체험의 장으로 꾸며졌다. 지자체 별로 스토리 텔링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은 매력적인 아이템임은 분명했다.

만해 문학체험관 위에는 스님의 생가지가 복원돼 있다.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인 1879년 8월 29일 이곳에서 만해 스님은 유학자 한응준(韓應俊)과 어머니 온양 방씨(方氏)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청주요, 어릴 적 이름은 유천(裕天), 자는 정옥(貞玉)이었다.

만해 스님의 할아버지 영우(永祐)는 훈율원 첨사, 증조부 광후(光厚)는 지중추부사를 역임했으며, 아버지 역시 충훈부 도사를 지낸 양반 계층이었지만 가세는 매우 곤궁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들어 한국불교근현대사 연구 전문가인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자신의 저서 〈첫 키스로 만해를 만나다〉에서 만해의 가계는 몰락한 양반, 즉 잔반의 신분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었지만,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정치 · 사회적인 변동이 만해 스님의 가문까지 미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만해 스님의 아버지와 증조부 모두 관직에 올라있는 명실상부한 양반이었으며, 스님의 유년 시절 동리 사람들이 그의 집을 '한초시댁'으로 부른 것도 유사한 이유"라면서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중인을 벗어나지 못했다. 만해 스님이 출생했을 당시에는 양반으로서의 생활에서 이탈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해 스님이 태어났을 시기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 본격화되고 있는 말 그대로 '격랑의 시대'였다. 스님이 태어나기 3년 전인 1876년 조선은 일본의 강압으로 최초의 근대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다. 이 조약 체결로 조선은 세계에 문호를 열고 신문물을 받아들이게 됐지만, 일본에게는 한국을 침략하는 첫 교두보 역할을 했다.

옛 홍주 결성서 1879년 출생
유학자 부친 영향… 한학 공부
9세에 書經 능통 '신동' 평가

동학운동, 홍주의병 등 접하며
시작한 '시대적 고민'은 출가로

스님의 성장하는 시기의 정세는 더욱 소연해졌다. 만해 스님이 6세이던 1884년 갑신정변이일어났으며, 한성조약이 체결됐다. 이듬해인 1885년에는 영국 극동함대가 거문도를 점령한 뒤 영국 국기를 계양하고 포대와 병영을 쌓는 등 요새를 만들었다.

이 당시 어린 만해 스님은 서당을 다니며 한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의 위인들이 그렇듯이 스님 역시 상당한 수재였던 것 같다. 9세 때 원나라 당시의 잡극(雜劇:元曲)의 명작인 〈서상기(西廂記)〉를 읽었으며 역사서 〈자치통감(資治通鑑)〉, 유교 5대 경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에 능통했다고 한다.

만해 스님이 '신동'이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어느 날 어린 만해가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던 때였다. 스님은 〈대학(大學)〉을 읽으며 책의 군데군데를 시커멓게 먹칠을 하고 있었다. 누가봐도 경을 칠 일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서당 훈장이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어린 만해는 "정자(程子)의 주(註)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미 9세에 〈서경〉을 읽고 기삼백주(朞三百註)를 자해(自解) 통달했다고 하는 천재였지만, 훈장은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한다.

뛰어난 한학 실력으로 만해 스님은 14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제안으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개중에는 만해 스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스님의 가르침에 귀기울였다고 전해진다. 이 당시 스님은 천안 전씨(全氏)와 결혼해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는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1889년에는 강원도 정선에서, 1890년에는 경상도 함창, 강원도 고성, 제주 등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1892년에는 함경도 함흥에서 민란이 일어난데 이어 동학교도들이 교조 신원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1893년에는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민란이 총65건이 발생했다.

그만큼 민심은 어지러웠고 정세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만해 스님이 16세가 되던 1894년 1월 10일 마침내 동학농민운동의 불씨가 던져졌고, 이는 전국에 들불처럼 번졌다. 소년이었던 만해 스님에게 동학농민운동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실제 스님이 18세가 되던 1896년 홍주(지금의 홍성)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고, 스님도 이 운동에 동참한다. 의병군은 홍주 호방을 습격해 1000냥의 군자금을 탈취했다는 통설도 존재하며, 이때부터 항일운동의 정신이 스님 안에서 싹트고 있었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의(義)'의 기개는 선친의 교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만해 스님이 잡지 〈삼천리〉 1933년 9월호에 기고한 '시베리아 거쳐 서울로'를 보면 알 수 있다.

나는 선친에게서 조석으로 좋은 말씀을 들었다. 선친은 서책을 읽다가 가끔 어린 나를 불러 놓고 역사상 빛나는 의인 · 걸사(스님)의 언행을 가르쳐 주시며 세상 형편, 국내외 정세를 알아듣도록 타일러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는 사이에 내 가슴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나도 의인 · 걸사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떠오르곤 했다.

이 같은 스님의 기술에 대해 김삼웅 前 독립기념관장은 자신의 저술한 〈만해 한용운 평전〉에서 "만해 스님이 어릴 적 선친으로부터 받은 가정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당시 사회 환경과 가정 형편상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선친에게서 훌륭한 정신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시대적 상황은 스님을 세상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만해 스님이 집을 나와 출가한 시기는 19세, 25세로 나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의 만해는 누구보다 민중의 궁휼한 삶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있었다.

극한 상황에서 만해 스님은 '인생은 무엇인가, 밤낮 근근이 살다가 생명이 가면 무엇이 남는가'를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이다.

'의'와 '충절'의 고장 홍주에서 출발한 만해 스님의 발자취는 곧 강원도로 이어진다. 그곳에서 그는 불교를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간다.

충남 홍성=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어찌해야 본래의 그 자리 알 수 있느냐

철야정진법문 ①



84년 하계 철야정진, 일주일 철야정진에서 법문중인 백봉 김기추 거사

자운 선생, 서운 선생. 여러분 많은데 내가 미안한 것이 있어요. 사실로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한다면은. 나 여러분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이 문 그대로 닫아야 됩니다. 여기 화로 하나 갖다 놓고 숯 두어 가마니 갖다 놓고 숯불 피워야 됩니다. 이 문 다 닫고. 그리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훨씬 다를 겁니다. 여러분 달라. 하하하. 어떻겠습니까. 문을 떼지 않고 여기 큰 화로 갖다 놓고 숯불을 이글이글 해서 팥죽 같은 땀을 빡빡 내서 그리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신다고 해서 문 다 떼고 이것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한 고개 넘어야 되거든요.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깊은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숯장사가 없어요. 숯장사도 없고 그래서 못 했습니다만도 모르겠습니다. 금년 겨울이나 명년 여름쯤 되면 말이죠 숯을 몇 가마니씩 사서 그렇게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번에 한 시간에 한 번 설법하는데 십분간 시간 제한을 받았습니다. 너무 무정해요. 그래도 한 삼십분 해야 되는데 하루에 세 번 할라면 십분이다 이것이거든요. 내가 또 시킨 대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하하.

그러기 때문에 요점만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불법 이러지만, 어디 불법이 일 년 이태만 됩니까? 적어도 수천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우리의 입처에서 생각을 할 때에 불법의 대의는 조금도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털만치도 변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불법이 작용을 해. 방편을 써.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한데 주로 사람을 본위로 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본래의 그 자리, 영생한 그 자리를 알 수 있느냐. 방편입니다. 작용하는 방편. 이거를 알기 위한 것이 불교 공부 아닙니까? 사실로 우리는 지금 난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 나는 났다. 나이가 많으니 지금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작용 밑에서 본래의 그 자리, 본래의 소식, 본래의 절대성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작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살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느냐. 이런 방편, 이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하니 이 방편이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가만 보니 다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를 수가 없긴 없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분(分)으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영 방편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방편을 달리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방편을 달리 안 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로 하고. 이전 어른들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시대에 처해 있었느냐. 제일 첫째 우리가 사는 지구, 이것도 가도 가도 끝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는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작용하는 방편을 알기 위한 것이 불교 공부 아닙니까?**
> **본래의 절대성 자리를 아는 것이 바로 방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샌 그거 아니에요. 지구가 허공중에 떠 있는 도리를 압니다. 이전에 만약 우리가 사는 지구가 허공중에 떠 있다 이 도리를 알았다면 대오 견성한 사람입니다. 이만 저만한 견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드물었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가도 가도 끝없이 땅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중학교 일학년만 되면 벌써 지구가 허공중에 떠 있는 도리를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편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요새는 우리 몸뚱어리 이것이 내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대개 압니다. 내의 관리물은 될지언정 소유물은 아니다 이걸 압니다. 많이 아는 건 아니에요. 공부하는 분들은 압니다.

왜 소유물이 아니냐. 소유물 같으면, 이거 내 물건 같으면 언제라도 내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졌어. 지금까지 자꾸 변하면서 가거든요. 그럼 그 때 내 몸뚱어리는 뭣이냐 말이여. 요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서울 카톨릭 병원인가 거기선 말이죠 어머니의 콩팥을 아들에게 이식하지 않았습니까? 내 소유물이라 할 테면 이거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해. 이걸 압니다. 요새 이걸 아는 것을 많지 않다는 그거 뿐이지 대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몸뚱어리는 내의 소유는 아니다. 그럼 나는 뭣고. 이겁니다. 나는 뭣고? 몸뚱어리가 내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놈이거든요. 이놈이 뭣인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편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도반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성하는 것, 견성하는 것 쉽습니다. 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남이 들어보이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이런 말 하지 마이소. 욕 듣습니다. 미쳤다고 이래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미친 사람 말이다 이래 합니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견성 안 할래야 안 할 도리가 없어. 이걸 가지고서 바탕을 삼아서 하는 얘깁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존(慈尊)은 삼보(三寶)의 자비스러운 어른

3. 헌향게(獻香偈)

戒香定香慧香解脫香解脫知見香光明雲臺 周遍法界供養 十方三寶慈尊前(一拜)

우리의 몸이나 집에 피우는 향이라면 유향(乳香), 육계향(肉桂香), 소향(素香), 몰향(沒香), 말향(抹香), 사향(麝香), 용연향(龍涎香)등이 있지만, 수행자(修行者)가 피워서 올리는 향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향의 설명에 앞서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의 구성 요소를 살펴 보기로 하자.

이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이를 오온(五蘊)이라고 한다. 첫째 인간의 몸뚱아리는 물질로 되어 있다. 즉 색(色)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무엇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하는 감관기관(感官機關), 센스 올간으로서의 수(受)가 있다. 받아들인 인상(印象)은 상(想)이다. 빛이다, 얼굴이다, 산이다, 하늘이다, 하는 것. 그리고 행(行)은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인도 말로 삼스카라(Samskara)라고 한다. 산에는 골짜기가 있고 숲이 우거지고 골짜기에는 물이 나고, 여기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노닌다. 이렇듯 산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 있다. 다시 말하여 가감승제(加減乘除)의 덜고 더하고 곱하고 쪼개고 하는 데서 산수며 수학(數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 진다. 개념이란 사회며, 경제, 국가, 정치, 정의, 인류 따위로 정의를 내리고 규정짓고 함으로서 만들어진 것을 이른다. 인간이요, 부부요, 부모요, 군신이오 하는 것이 다 개념이다. 다섯째 의식은 인식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이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온으로서 우리 인간의 몸뚱아리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또한 신성하고 거룩한 것도 역시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계는 좋은 행동이다. 좋은 행동은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 정은 사람이 이리저리 요란스럽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것 그러한 행동. 천하가 다 동요되어도 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도 향이 된다. 인도 말로는 사마디(Samadi)라고 한다.

셋째의 혜(慧)는 큰 지혜를 이름인데, 날레지(Knowledge)가 아니라 위즈덤(Wisdom) 덕행(德行)있는 지혜(智慧)다. 충무공(忠武公)의 경우와 같은 덕행있는 지(智)가 세상을 대단히 향기롭게 한다.

넷째의 해탈(解脫)이란, 모든 것을 초탈하고 벗어났다는 것으로서 툭 트인 사람을 가리킨다. 고지식하다거나 옹색하다거나 하지 않은 해탈한 위대한 것은 향으로 여겨진다.

다섯째의 해탈지견(解脫知見)이란 중생(衆生)으로 하여금 해탈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知識)과 교화력(敎化力)을 갖춘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커다란 향이다. 이렇듯 신성(神聖)한 다섯가지 향을 피워 올리면 그러면 이것은 광명(光明)을 발하는 구름덩이처럼 엉기어 대(臺)를 이루어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법계(法界)안에 두루 가득히 찬다. 이를 시방삼보(十方三寶)와 자존(慈尊)앞에 공양한다는 것이다.

시방(十方)은 동서남북(東西南北)의 사유(四維)와 상중하(上中下)의 방위(方位)를 의미한다. 상중하는 캐스트 즉 계급을 이르는 말이고, 여기에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도 뜻하는 것이다. 우리 말로 현재를 시방이라고 하지만 이는 시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방이 곧 현재라는 대단히 의미심장(意味深長)한 뜻이 된다.

> **인간의 몸은 오온으로 구성**
> **계는 좋은 행동을 말하는 것**
> **몸뚱아리를 깨끗이 청소하면**
> **어떤 손님도 받아들일 수 있다**

삼보(三寶) :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의 세가지. 불(佛)은 광명성(光明性)을 뜻함이니, 맑고 밝은 것. 법(法)은 정대성(正大性)이며, 바른것. 승(僧)은 화합성(和合性)으로 사이좋게.

자존(慈尊)은 삼보(三寶)의 자비스러운 어른.

그러니까 우리는 몸뚱아리의 집을 깨끗이 소재하고, 향을 피웠으니 이제 어떠한 손님이라도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이다.

4. 귀경례(歸敬禮)

至心歸命禮三界大師四生慈父大恩敎主我等本師釋迦牟尼佛(一拜)

귀경(歸敬)은 귀명(歸命)과 같다.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하다. 귀명이라는 이 두 글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돌이켜 절합니다 하는 것이다. 원효대사(元曉大師)는 이를 풀이하여 시능귀상(是能歸相)이라 하였다. 능히 돌아가는 양상(樣相)이란 말이다.

능귀상자(能歸相者)는 능히 돌아가는 양상이란 것은 경순의(敬順義)라,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뜻이며, 또한 취향의(趣向義)라 나아가서 향하는 뜻이 있고, 이는 두 가지 다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귀(歸)는 경순(敬順)과 취향(趣向), 즉 공경하고 순종하는 뜻과 나아가서 행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명(命)은 목숨, 명근(命根) 즉 목숨 뿌리, 명근이 떨어지면 그만 죽어 버린다. 이 명근은 총어제근(摠御諸根)이라고 하여 모든 기관을 어거해 나간다. 안근(眼根), 비근(鼻根), 설근(舌根)등 모든 기관을 총 어거하여 통제하고 통솔한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청각(聽覺)을 청각다웁게 하는 것은 이근이고 시각을 시각다웁게 하는 것은 안근이다. 그렇다면 이 안근과 이근은 무엇이 들어서 통어하느냐 하면 그것은 생명, 근본체(根本體)의 역할이다. 사람은 자기 몸뚱이에서 가장 요긴한 것이 명근이며 이를 주인으로 삼는다. 무엇보다도 목숨이 제일이다. 그러므로 만생(萬生)이 소중하다고 하여, 일만 가지나는 것이 모두 이로부터 발하고, 그것은 막생위선(莫生爲先)이라 하는데, 이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여기 둘도 없이 소중하고 가장 으뜸되는 명근을 들어 더 없이 거룩한 이에게 바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신(忠臣)이라면 신하로서 임금께 목숨을 바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복(公僕)으로서의 공무원이 전 국민에게 목숨을 바친다는 투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영남범패학인 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3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아 래

〈진주교육원〉

* 입교일시 :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수 강 일 :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① 상용의식 및 재의식
② 사물 다루는 법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문의전화 : ☎ 055)747-8419
* 카페안내 :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검색해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여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며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 스님께 알려드립니다 ***

스리랑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사리구)를 중창불사에 뜻을 두신 스님들께 보시하고자 하오니 인연맺을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장 구룡 합장
[010-5367-1340]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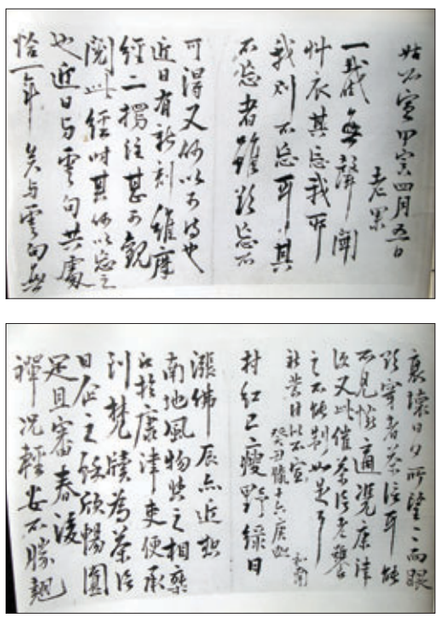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는 나를 잊었는가”

추사의 이 편지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료로, 1853년 섣달 16일, 초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응송스님의 연구 자료 속에 들어 있던 친필본 사진판 자료이다. 과천 시절, 추사의 일상을 잘 드러낸 편지이며, 새로 간행된 〈유마경〉, 〈능엄경주〉를 얻은 후, 이 경전을 읽는 즐거움을 “매우 볼만하다”고 하였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초의는 나를 잊었는가. 나는 즉 (그대를)잊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대를)잊지 않은 것은 비록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고, 또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새로 출판한 유마경 2권과 능엄주를 얻었는데, 매우 볼만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어찌 (그대를)잊겠습니까. 근일에 운구와 함께 지냈던 일 년은 흡족했습니다. 운구와 함께 노쇠해지지 않기를 밤낮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눈으로 꿰뚫어 보고 싶은 것은 차와 편지일 뿐입니다. (늘)볼 수 없음이 애석하여 마침 강진의 인편에 거듭 차와 편지를 재촉하니 늙은이의 탐욕을 막을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새 달력을 인편에 보냅니다. 이만



최초로 공개되는 응송 스님 자료에 있는 추사 친필본

1853년 12월 16일 경가화남(一截無聲聞 艸衣其忘我耶 我則不忘耳 其不忘者 雖欲忘不可得 又何以可得也 近日有新刻維摩經二楞註 甚可觀閱 此經時其何以忘之也 近日與雲句共處恰一年矣 與雲句無衰壞 日夕所望 所望而眼欲穿者茶信耳 能不見憐 適憑康津便 又此催茶信 老 ㅇ之不能制如是耳 新歲付從 不宣 癸丑臘十六 庚迦和南)

이 편지보다 앞선 시기의 편지는 〈완당전집〉 〈여초의〉36신과 〈여초의〉37신이다. 이 편지는 대략 1853년 2월27일과 이 해 여름에 보낸 것인데, 이 해 섣달 16일에 보낸 이 편지에 “일 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다”고 한 것과는 시기적인 차이를 보인다. 1853년 여름 이후 편지의 내왕이 없었다하더라도 실제 두절된 것은 7개월에 불과한데, 일 년이라 말한 것. 이 내막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의 발굴이 기다려진다. 한편 그는 “초의는 나를 잊었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대를)잊지 않은 것은 비록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고, 또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당시 상황적으로 초의와 소식이 두절되었지만 자신은 한순간도 초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로 입수한 〈유마경〉과 〈능엄경〉의 탐독은 그의 일상을 흡족하게 만든 듯. 이런 상황이므로 “어찌 (그대를)잊겠는가”라고 한 것이다. 참으로 이들의 인간적인 교유와 보인(輔仁)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능엄경〉에 밝았던 운구 승려를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 당시 추사는 운구(雲句)와 일 년을 함께 지내며 〈능엄경〉을 강론했음을 알 수 있다. 운구(雲句)에 대한 내력은 그가 권돈인에게 보낸 〈여권이재(與權彝齋)〉21신에 자세한데 그 내용은 이렇다 “이 승려 한민(漢旻)은 자칭 운구라고 하는 자입니다. 작년부터 나와 내왕했는데, 신근(信根)이 대단하고 원력(願力)도 대단합니다. 비록 제승(諸乘)을 두루 섭렵하지는 못했지만, 〈금강경(金剛經)〉·〈능엄경(楞嚴經)〉에 대한 공부가 대단하고, 그 정진(精進)하는 정성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하였으니 당시 〈〈능엄경〉〉에 대한 의문을 운구와 담론하며, 흡족한 나날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운구를 떠나보내며, 쓴 〈증운구상인(贈雲句上人)〉에 “중략… 정의 뿌리는 어디에 박혔는지(情根根何處) 머뭇거리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구나(不忍別)”라 하였다. 진정 정의 뿌리는 얼마나 단단하기에 이리 머뭇거리며 떠지지 못하는 것일까. 공각의 소생을 논했던 추사, 탈속한 경계에서 선적인 삶을 경주했던 그에게도 인간의 정은 이리도 그의 발목을 잡는 아쉬운 회한으로 드러나는 실상(實相)인가. 늘 초의를 “볼 수 없음이 애석하여 마침 강진의 인편에 거듭 차와 편지를 재촉”하는 자신, 차를 탐하고 초의를 그리는 늙은이의 탐욕은 제어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를 청하는 은근한 말이 더욱 돋보인다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법어가 담긴

도자기에코컵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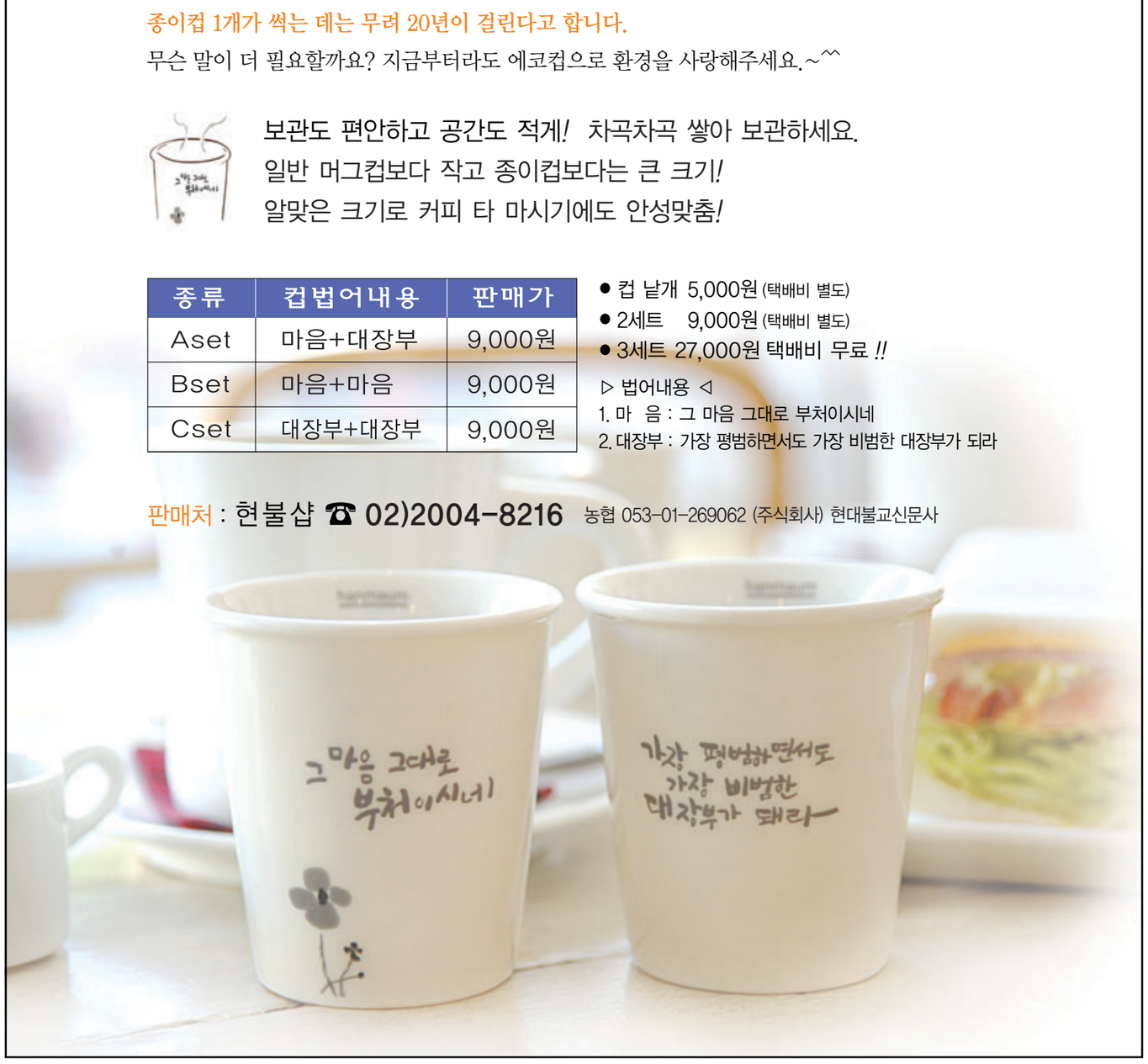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컵법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낱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법어내용 ◁
1. 마 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나눔·봉사·배려’ 스승 가르침 40년 실천

학명 스님 (남한산성 성불사 주지)

빽빽한 고층건물이 자리한 서울 강남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원한 녹음의 기운을 전하는 남한산이 길손을 맞이한다. 양팔 벌려 서울을 감싸 안은 듯한 이 산 자락에는 성불사가 있다.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남한산에 위치한 성불사는 번뇌에 찌든 현대인들을 청량하게 만드는 ‘기도도량’ 이다. 성불사 대웅전 옆에 작게 자리한 스님의 주석처에 들어서자 책장을 넘기던 스님이 반갑게 객을 맞는다.

성불사 주지 학명(學明) 스님이 남한산 자락에 성불사를 건립한 것은 ‘나눔정신’ 과 무관하지 않다. 1976년 음력 5월 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찰을 창건한 학명 스님이 걸어 온 길은 수행과 포교, 복지사업으로 점철된다. 성불사는 작은 사찰이지만 스님은 수십년 동안 그 어느 사찰의 스님들보다 헌신적으로 보시행을 펼치고 있다.

“은사 스님 밑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와 이 곳에서 수많은 전쟁으로 숨진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올리며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가마솥 걸고 불 땔 자리도 없어 생 솔잎을 먹던 때였습니다. 인근에 딱 두 집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자신을 챙기기에도 힘든 어르신 두 분이 안타까웠는지 쌀과 반찬이며 보내왔어요. 그 때 발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면 꼭 어르신들에게 회향하자’ 구요.”

스님은 그 때부터 독거어르신을 위한 정기적 방문은 물론 반찬과 음식,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개발이 진행돼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스님의 마음은 초심 그대로다.

스님의 오래된 지론은 나눔에는 부유함과 가난함이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까. 작은 사찰인 성불사는 그 어느 사찰보다 많은 보시행에 나서고 있다. 사찰 재정의 40%가 넘는 금액을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향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특히 음력 5월 1일, 성불사 창건일에 열리는 경로잔치는 36년이 넘게 열리고 있는 지역사회의 큰 축제다. 성불사는 매년 인근 지역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해 노래자랑, 연예인 만담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스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성동구치소 재소자 교화활동과 자원봉사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1998년부터 매년 1회 성동구치소를 찾아 합동생일잔치를 열고 있다. 이밖에도 스님은 문경 등지에 연탄 1만장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농산물직거래 일일장터를 매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는 사찰 아래에 어르신쉼터를 세우고 싶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쉼터에서 눈치보지 않고 편히 쉬며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해요. 어르신들 마음이 편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화합하고, 이 것이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화합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인재불사에 한국불교 미래 있어

학명 스님은 인재불사에도 정성은 쏟고 있다. 3억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벽담장학회’ 를 설립한 학명 스님은 2002년부터 해마다 청소년 불자와 종립대학에서 수학 중인 스님들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은 1억 6000만원에 달한다.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해 불교계 학교 학생 200여 명이 지금까지 스님의 후원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인재불사 없이는 우리 불교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모시는 곳을 여법하게 불사했으니, 이제 부처님을 키워내는데 힘써야죠. 사찰이나 장학회를 통해 도움 받은 아이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자라나 사회에 자신의 역량을 환원하는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학명 스님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거나, 안부를 묻는 학생들의 전화가 걸려올 때면 오히려 고마워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정성은 종립대학인 동국대 발전에 까지 이어졌다. 동국대에서 가장 많은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 바로 ‘학명 세미나실’ . 스님이 동국대에 교지매입기금, 장학 기금 등 매년 조금씩 기부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자 이에 동국대 측이 감사의 의미로 붙인 곳이다. 스님의 인재불사 원력을 높이 사 동국대는 학명 스님의 은사 스님의 법명을 딴 강의실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 스님은 동국대 불교대학이 추진하는 비전 2020에도 2억 원을 추가로 기부하기도 했다.

은사 스님 가르침 이 생 다할 때까지 따를 것

스님의 인재불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은사 스님에게서 비롯됐다. 학명 스님의 은사 스님은 대구 파계사 성전암에서 20년 넘게 두문불출, 수도하며 설법하시던 선승 철웅 스님이다. 1960년 출가한 학명 스님은 은사 스님에 대해 “출가자는 중생들의 모범이자 스승이 돼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셨던 엄한 스승”이라며 “늘 나눔과 봉사, 배려에 대해 강조하신 은사스님의 뜻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명 스님은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 은사 스님이 일러 준 가르침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했다.

“귀한 것일수록 버리는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한 해, 두 해 절생활을 익히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귀한 가르침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버림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1월 6일 스님이 직접 쓴 〈법화경 이야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출간을 기념해 열린 자리는 스님의

1976년 성불사 창건 이후 무주상보시
사찰재정 40% 장학·생활지원 사용

‘고난 속 쌀 보시한 어르신 못잊어’
36년째 매년 경로잔치 열어 ‘보은’
사하촌 어르신 쉼터 건립 새롭게 발원

은사 철웅 스님 으뜸 가르침 ‘법보시’
불서 2만권 보시 서원, 1만 8000권 배포
인재불사 원력으로 ‘벽담장학회’ 창립
200여 중·고·대학생 학업 지원

법보시 1만 8000원을 기념하는 자리기도 했다. 스님은 2만권 법보시를 발원하고 〈선사들의 숨은 이야기〉, 〈일이층이 있어야 삼층도 있지〉, 〈마음의 주춧돌〉, 〈지혜롭고 행복한 길〉, 〈심전수행〉, 〈금강경 이야기〉, 〈지장경 이야기〉, 〈관음경 이야기〉, 〈처음 그 마음〉 등을 펴내 교도소 등 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은사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불서의 문구 하나를 본 인연이 부처님 법을 알고자하는 발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불사에 조사전을 마련해 아침 저녁으로 예를 올리고 있다는 스님은 “살아계셨을 때 조금 더 공부를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며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마당에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큰 원력 뒤에는 한마음으로 따르는 신도들이

하지만 큰 원력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는 법. 학명 스님에게는 스님의 원력을 믿고 한마음으로 따르는 신도들이 있었다.

“제가 한 일이라곤 목탁치고 기도한 일밖에 없습니다. 신도들이 도와줘 일이 된 것입니다. 성불사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성불사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신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님은 성불사 성장의 동력은 신도들이며, 성불사가



2013년 11월 동국대 김희옥 총장에게 발전기금 2억원을 전달한 학명 스님. 동국대는 스님의 이름을 딴 세미나실이 있다.



1월 6일 스님이 출간한 〈법화경 이야기〉. 스님은 2만권 불서 법보시를 발원했다.



학명 스님 ¡ 1960‡ ¿ˆ ˙ •. 1976‡ • ˙ ″ –` `‡ ˙ »… ″ » , ˆ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ˆ 20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ˆ •˜¿ ¿ ¿ ¨ ¿ ¿ ″ » • ˆ ″ ‰ ˙ ¨˜• ˆ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ˆ » ¨ ¿ ¨ • 2011‡ ″ •‰ • … , ˙ … ″ » ″ • ¿ ″ • ˆ » ¨ , ` ¿ ˙ • ` `˜• ˆ » ¨ ¿ ¨ • ″ • ¿ ″ • ˆ » ¨ ` ¿ ˙ • • „ ¨ ` ‡ ¿ ‡ ˆ ` ¿ ˆ » ˙ – ‰ ‰ „ •˜ ¿ ¿ … ″ » ` ˙ ˙ • – „ • ` ¿ „ ‡ ˆ ¨ ¿˜` ¿ – ¿… ¨ ‰‰ ¨ ″ • ˙‰ ¨ ¨ ¨ ″ ˙ •˜

새 해에는 가슴으로 느끼고 활동하는 불자되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ˆ •˜¿ ¿ ¿ ¨ ¿ ¿ ″ » • ˆ ″ ‰ ˙ ¨˜• ˆ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ˆ » ¨ ¿ ¨ • 2011‡ ″ •‰ • … , ˙ … ″ » ″ • ¿ ″ • ˆ » ¨ , ` ¿ ˙ • ` `˜• ˆ » ¨ ¿ ¨ • ″ • ¿ ″ • ˆ » ¨ ` ¿ ˙ • • „ ¨ ` ‡ ¿ ‡ ˆ ` ¿ ˆ » ˙ – ‰ ‰ „ •˜ ¿ ¿ … ″ » ` ˙ ˙ • – „ • ` ¿ „ ‡ ˆ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 , ‰ • , ˜ ¶… ″ » ‰ ¿ – ¿ ¿ ‰ •˜ … ″ » ¿ • ˙ ‰ ¨ ¿ ˙ ˆ •˜¿ ¿ ¿ ¨ ¿ ¿ ″ » • ˆ ″ ‰ ˙ ¨˜• ˆ » ¨ ¿ ¨ ` ` • ˜˘ ¨ ″ ‰ ˙ ¨ ¨ ¿ , ¿ 14 ¿ ″ » , ` ˙ ˙ •˜ • ˆ » ¨ ¿ ¨ • 2011‡ ″ •‰ • … , ˙ … ″ » ″ • ¿ ″ • ˆ » ¨ , ` ¿ ˙ • ` `˜• ˆ » ¨ ¿ ¨ • ″ • ¿ ″ • ˆ » ¨ ` ¿ ˙ • • „ ¨ ` ‡ ¿ ‡ ˆ ` ¿ ˆ » ˙ – ‰ ‰ „ •˜ ¿ ¿ … ″ » ` ˙ ˙ • – „ • ` ¿ „ ‡ ˆ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ˆ ˙ • , ‰ ¿ … ‡ ¿ • •˜¡ ‰ • ‡ ˙ ¿ ‡ » ˙ , , , ‰ ˆ ˙ • ″ – , ″ • ˙ ¡ ‰ ¿ » – ″ ˆ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ˆ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비' 노래하는 인디밴드 촉마 '인기'

홍콩 젊은 뮤지션 5명 결성, 환경캠페인도 전개

깨달음과 인디 밴드의 음악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다소 엉뚱한 질문 같지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1월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르면 홍콩의 젊은 뮤지션 5명이 2003년 인디 밴드 '촉마(Chock Ma ?麻)'를 결성한 이래 지금까지 '깨달음', '공동체' 등을 주제로 한 음악을 선보이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촉마의 음악적 배경이 불교음악"이라는 데 주목, "불교의 전통음악에 기반한 리듬과 가사가 대중을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채롭다"며 "이는 대중음악의 저변을 넓혔다는 차원을 넘어, 밴드 구성 악기의 개별적이고 즉흥적인 연주와 음유시인의 노래와도 같은 가사도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점이 새롭다"고 덧붙였다.

이는 촉마의 공연 무대에 등장하는 악기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여느 밴드 그룹처럼 기타나 드럼 같은 악기도 연주되지만, 중국의 전통악기 얼후(Erthu), 훌루시(hulusi), 티베트의 전통악기 '노래하는 그릇(singing bowl)' 등이 촉마 무대에 매번 등장하기 때문이다.

"촉마의 음악 코드는 '긍정'"이라고 말한 제이슨 라우(Jason Lau · 보컬 · 리더)는 "우리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처음 만났고, 서로의 음악적 세계를 동경하며 2003년 인디 밴드 '촉마'를 결성했다"며 "처음에는 현대음악에서 대중과의 교감을 시도했지만, 멤버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고, 결국 서로가 좋아하는 악기를 들고 음악, 철학,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음악을 만들자는 데 공의를 모아, 지금의 음악 세계를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깨달음의 소리를 찾고자 '거리 공연'에 나서고 있는 인디 밴드 촉마(Chock Ma, 홍콩). 다섯 명의 젊은 뮤지션들은 거리 공연에서 '영적 깨달음'을 주제로 한 음악 공연을 펼치는 한편 '공동체의 삶'에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003년 호주 워킹홀리데이서 만나 결성
앨범 타이틀, 美 소설가 잭 케루악의 〈진리를 찾아나선 방랑자〉 인용
멤버 모두 채식주의자, 씨앗 심기 캠페인으로 자비 · 배려 전파

촉마는 최근 'Expose the Nature from inside'라는 앨범을 발매하기 시작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앨범 타이틀은 미국의 소설가 잭 케루악(Jack Kerouac)이 1958년에 발표한 소설 〈Dharma Bum(진리를 찾아 나선 방랑자)〉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불교가 'Expose the Nature from inside'라는 앨범의 단초가 되었다"고 설명한 데이비드 콕(David Kwok, 드럼)은 "그러나 앨범에 담겨진 노래와 연주는 동시대 젊은 뮤지션에게 보인 불교라는 게 더욱 정확하다"며 "이 앨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밴드 멤버들 모두 채식주의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촉마의 노래 'No Escape'의 "강과 호수가 메마르고/ 산하가 황폐해지고/ 하늘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라는 가사를 인용, "촉마의 음악세계는 이제 환경 문제로까지 넓어졌다"고 주목하고, "이는 최근 촉마가 앨범 발매와 함께 전하고 있는 '씨앗 심기' 캠페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씨앗 심기' 캠페인은 희망자들에게 레몬 잔디 씨앗을 나눠주고,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과정에 충실히 임했던 캠페인 동참자들에게는 촉마 공연 무료 관람권을 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씨앗은 단지 씨앗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말한 인디 밴드 촉마의 리더 라우는 "씨앗에서 수확이라는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자비, 배려 등이 아닐까 싶었고, 이를 관객들과 나누고 싶었다"며 '씨앗 캠페인'의 기획 의도를 밝혔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불교에 기반한 젊은 뮤지션의 밴드 그룹이 대중들에게 어떤 여정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촉마의 '씨앗 캠페인'을 페이스북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베트남, 청년불교 지도법사 가택연금

르 콩 카이, 자유 · 인권 운동가로 불교계 안팎에서 주목
베트남 불교계와 국제인권단체의 반발 커져

베트남 청년 지도법사가 지난해 12월부터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다고 〈자유 아시아 라디오(RFA)〉가 보도했다.

가택 연금 중인 것으로 확인된 르 콩 카우(Le Cong Cau) 법사는 베트남 정부에 의해 반체제 인사로 지목, 지난해 12월 호치민 시에서 강제 연행된 이후 13시간 동안 트롱 안(Truong An) 지구 경찰서에 반국가 선동 관련 조사를 강도 높게 받고서 '가택 연금' 조치됐다.

르 콩 카우 법사는 현재 '베트남 통일 불교 사원(Unified Buddhist Church of Vietnam, 이하 UBCV) 산하 청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르 콩 카우의 연금 조치에 앞서, UBCV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바 있다.

"내가 강제 연금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정부가 분명히 더 잘 알고 있다"는 르 콩 카우의 말을 인용한 〈자유 아시아 라디오〉는 "지난해 12월 가택 연금 이후, 20여 명 안팎의 경찰 병력이 그의 집을 에워싸며 외부와의 접촉을 막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경찰 측에 따르면 르 콩 카우는 베트남 정부의 통일 정책을 반대하는 등의 '반국가 선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에서 이런 범죄는 최고 15~20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한편 르 콩 카우 법사의 강제 구금 및 가택 연금에 대해 세계 인권 단체의 반응이 날카롭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그 산하 베트남위원회(VCHR), 국제 앰네스티 등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노 스님을 만나기 위해 호치민 시를 방문한 르 콩 카우를 강제로 체포하고 가택 연금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 호치민 시에서 열린 '베트남 통일 불교 사원(Unified Buddhist Church of Vietnam)'의 연말 모임에 참석한 르 콩 카우(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그는 이 모임이 끝난 직후 강제 구금되어, 지금까지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현 정부는 UN이 정한 Vesak Day(일명 '부처님오신날')를 개최하고 있는 정부는 종교의 권리를 충분히 보하고 있다"며 "이번 르 콩 카이의 가택 연금은 사회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정부에게 비판적 견해를 비친 인사와 단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개혁을 주장하는 '파워 블로거', '노동 운동자', '토지 권리 운동가', '인권 운동가'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日 사찰서 송골 장례 서비스 인기

택배로 유골 받아… "지나친 상업화"



에히메 현의 이요군(伊予郡)에 있는 입불사에서는 유골을 택배로 받아 납골당에 안치하는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불교식 장례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몇몇 사찰이 장례서비스를 지나치게 상업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타임즈〉지는 12월 4일자 신문을 통해 "일본의 사찰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불교 세속화의 단면을 비판한 바 있다. 최저 300만원에서 시작하는 장례비용에 각종 부가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화장례도 모자라 이제는 사찰에서 유골을 택배로 받아 안치하는 서비스까지 생겨났다. 유족들이 화장한 유골을 직접 사찰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송골(送骨) 서비스'가 성행중이다.

에히메 현의 이요군(伊予郡)에 있는 입불사에서는 2011년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유골을 관청에서 발급받은 매장허가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납골당에 50년간 안치한 후 공동묘에 합사해준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은 한화로 대략 55만원.

짐작하다시피 이용객은 고인과의 관계 지속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혼한 여성이 사망한 전 남편의 유골을 보내기도 하고 왕래가 없었던 친인척의 유골처리를 부탁하는 경우도 많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입불사는 인터넷 광고를 등록한 후 500여 건에 달하는 유골 처리 신청을 받았다고 한다.

입불사 주지 야마다 스님은 송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개는 고인과 깊이 관여되길 꺼리지만, 사찰이 고인을 돌본다는 데 안도감을 느낀다"며 이용객이 야멸찬 사람은 아님을 강조했다. 송골서비스를 두고 쏟아지는 항간의 비난에 대해 무턱대고 비인간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요군청은 최근 입불사가 납골당 건립과 관련해 제출한 건축허가서에 대해 사람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입불사는 즉각 마츠야마 지방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야마다 스님은 "돌아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사찰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 달라"며 항소할 뜻임을 비쳤다.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송골서비스는 사찰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돌볼 이 없는 고인 위한 일"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에 있는 한 절에서도 10월부터 송골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시모토 주지 스님은 "최근 일본 내 출생률의 감소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사찰의 미래와도 직결된다"며 "사찰 스스로 존립하며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해 장례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찰들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비쳤다.

앞서 〈일본 타임즈〉지는 "12월 3일 나라의 난토 주린-인(Nanto Jurin-in) 사원에서 일본 불교계 최고 지도자 30여 명이 모여 '불교 장례 서비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최고 지도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장례 서비스가 정신 · 재정적으로 사찰 존립의 근원'이며, 따라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한 바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 (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갑오년 새해 첫 무료보시 단행

● 법당엠프 일절 설치주문시 ➡ 무선마이크 1셋트 추가 무료보시
● 법당전용스피커만 주문시 ➡ 고급 YD-675 마이크 무료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4년 1월 29일 까지 주문분에 한함)
위 기간내 주문하실 경우 실제 설치는 2월 중에도 설치 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법당전용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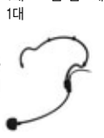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2014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급) 소 식

평화통일사

소승 일선은 1971년 부터 현재까지 어언 40년간 산과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를 만들어 절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족하며 살아왔습니다. 은법사이신 조계종 종정을 3번 역임하신 윤고암 큰스님께서 간간히 도와주시고 속가 집안에서 5천만원을 차용하고 소승의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7천만원과 전 5억이상의 자금으로 가람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90 노령의 합병증이 심해 요양이 필요하여 급하게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사문 윤동암 씀.

가격은 7천만원에 양도하고자 합니다.







⦿ 대지 총 2천평, 대웅전 1채, 관음전 1채,
⦿ 큰방 (부엌,화장실) 1채, 객실방 2채
⦿ 인연을 기다립니다.

※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밭) 2천평 있음

⦿ 위치 : 임진각 부근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 법회 : 매주말 군장병 정기법회
⦿ 교통 : 자유로, 통일로 바로 연결

[문 의] 스님 직접

010-9415-5818 / 031)952-7031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76-35
(문산기상대 부근, 1570부대 입구)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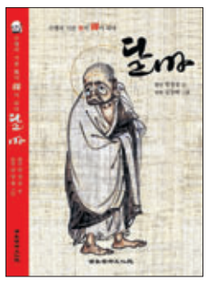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달마어록 70여점 그림으로 탄생

김창배 작가 〈달마〉출간 기념전시



선묵화가 담원 김창배 씨가 달마대사의 어록을 소설체로 엮은 〈달마〉 출판을 기념한 전시를 1월 15일~21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연다. 이번 전시는 활안 한정섭 스님이 글에 김 씨가 삽화로 그려 넣은 달마 그림 70여 점을 전시한다.

김 작가는 "선(禪)을 대표하는 달마(達摩), 한국불교의 선 수행에 영향을 미친 중국 선종의 초조(初祖)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부처님 다음으로 큰 깨달음의 상징, 달마의 어록을 활안 스님과 책을 함께 엮고 전시를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이야기 한다.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라고 말한다. "마음을 닦는 선이라 함은 수선(修禪)과 수행(修行)이란 과정의 시작입니다. 수행의 방편을 삼는 것, 그림을 그리는 일이며, 화필로 일관해온 정진방법입니다. 모든 이들이 잠이 들어 하루의 피로를 잠자며 마감을 할 때, 잠을 자지 않고서도 긴 하루의 피로는 그림을 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그 이상으로 몸속의 에너지 생성으로 피로를 싹 날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붓을 들 때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고 편안함과 안정감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이렇게 작가는 선묵화를 그리며 수행과 예술의 접목으로 '선묵일여(禪墨一如)'를 지향한다.

깨달음의 상징 달마 선보여

1월 15일~21일 한국미술관서

한편, 담원 김창배는 금추 이남호 선생(1908~2001)으로부터 사사받았다. 동국대, 예원예술대 문화예술대학원, 화랑미술제, 롯데화랑, 북경화원 제백석 기념관, 교토 국제교류회관 등에서 33회 개인전을 가졌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서예문인화, 현대미술대전 등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거쳤으며 국내외에서 200여 회 초대전을 가졌다. (02)736-7445 **정혜숙 기자**



담원 김창배 화백은 〈달마〉 출판을 기념한 전시를 1월 15일~21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연다.

불교미술 전승작가들 해외 반출문화재 재현

"잊혀진 문화재…또 다른 탄생", 2월 23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은 해외반출문화재 재현작을 선보이는 '잊혀진 문화재…또 다른 탄생' 전을 2월 23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2 · 3전시실서 연다. 사진 위는 한봉석의 '목조삼존불감' 아래 왼쪽은 목조 스님의 '석가설법도' 오른쪽은 노정용의 '원오리출토소조보살입상'.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가 우리 작가들의 손으로 재현된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불교미술둘레길만들기 기획전 '잊혀진 문화재… 또 다른 탄생' 전을 2월 23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2 · 3전시실서 연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 산하 나우회 회원작가들과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해외반출문화재 일본 동경박물관 소장 통일신라석조여래좌상 등 재현작 20여 점이 선보인다.

월정사 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해외 반출된 한국문화재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찾아가 보기 힘든 원작의 아우라를 재현작품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전한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독일과 일본 등에 흩어져 있는 해외문화재를 직접 찾아가서 실견하고 재현했다. 이러한 노고는 또한 불교미술 전승 작가가 걸어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1937년 평양 원오리절터에서 발견된 소조여래좌상과 소조보살입상(일본 교토 후지이유린칸 등 소장)은 6세기 고구려 불교조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불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정용 작가는 흙으로 만든 거푸집과 함께 일련의 불상군을 재현해 보여준다.

한봉석 목조각장은 조선후기 조각승 색난이 제작한 목조아미타삼존불감(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1689년)을 옻칠기법으로, 또 금칠기법으로 표현기법을 달리해 조형적 대비감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목조 스님의 16세기 왕실발원 석가설법도(독일 쾰른 박물관 소장), 오세종 작가의 조선왕실촛대(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김상수 작가의 나전건칠전통, 이연욱 작가의 아미타팔대보살 내영도, 김동철 작가의 통일신라 석조여래입상(일본 동경박물관 소장)등이 선보인다.

해외 반출된 불교조각과 회화 공예작품을 동시에 함께 들여다보고 살펴볼 수 있다

통일신라석조여래좌상 등
독일과 일본 등의 해외문화재
작가들이 직접 보고와서 재현
20여 작품으로 탄생시켜

는 점이 이번 전시의 가장 큰 매력이다. 무엇보다도 김형진 작가의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문화재를 지켜낸 재일동포 고 정조문의 초상을 고려미술관 소장품으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 한켠 가슴을 적신다. 재현과 복원을 반복하며 작업하는 불교미술작가들의 작업세계는 깨달음을 향해 수행 정진하는 출가자의 삶과 다르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번 기획전에 참여한 작가는 목조 스님, 주광관, 노정용, 김판기, 한봉석, 김동철, 김상수, 오세종, 김형진 등 10명이다.

한편, 이번에 4회째를 맞이하는 불교미술둘레길만들기 展은 불교미술 전승 작가들이 더불어 사는 동시대 미적 교류를 위해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소통시키고자하는 작가적 열망이 담겨있는 기획전이다.

(033)339-6633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유심 문학 토크 나희덕 시인 초청

1월 15일 유심아카데미 세미나실서

얼어붙은 호수는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다/ 불빛도 산 그림자도 잃어버렸다/ 제단단함의 서슬만이 빛나고 있을 뿐/ 아무것도 아무것도 품지 않는다/ 헛되이 던진 돌멩이들,/새떼 대신 메아리만 쩡 쩡 날아오른다/ 네 이름을 부르는 일이 그러했다
– 나희덕 〈천장호에서〉 전문

유심이 새해 문학 토크에 조선대 문창과 교수 나희덕 시인이 초대됐다. 1월 15일 신사동 유심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문학토크에서는 정련된 시어들과 따뜻한 은유를 동반한 진솔한 시세계로 사랑받고 있는 나희덕 시인과 함께한다.

시인 지망생들의 창작교과서로 불리는 나희덕 시인은 어두운 일상의 흔적을 밝고 맑은 소리로 끄집어내 건강한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심은 "기억의 되새김질보다는 앞으로 펼쳐질 생성의 순간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나희덕 시인의 유심문학토크와 함께 의욕이 충만한 2014년을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는 김지녀 시인이 맡는다. (02)739-5781 **정혜숙 기자**

미주로 울려 퍼지는 불음의 향기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미주 4개 도시 순회 공연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1월 13일~17일 총 미주 4개 도시를 순회하며 불음의 향기를 전한다.

한국불교 미주 전법 5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단장 황학현)이 '박범훈의 칸타타 부모은중송' 미주 순회공연을 떠난다. 미주 전법 50주년 기념사업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연에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1월 13일~17일 총 미주 4개 도시를 순회하며 불음의 향기를 전한다.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은 "한국불교의 미주 전법 50주년을 맞아 해외포교의 의지 제고를 위해서 마련된 행사다. 불교 어린이 합창단 사기 진작은 물론 국제감을 공유하고 불교 음악의 정체성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찬불가 및 한국민요 가곡 음악을 통해 불교의 효사상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소년소녀합창단 30여 명을 비롯해 서울 · 경기남불교합창단연합회 등 70여 명이 참석하는 연주회는 △미국 시애틀(1월 13일) △ 포틀랜드(1월 15일) △로스엔젤레스(1월17일) △ 캐나다 밴쿠버(1월 18일) 등을 돌며 공연을 펼친다.

미주전법 50주년 기념
부모은중송 칸타타 공연

이번에 공연되는 부모은중송은 1996년 광덕 스님이 '부모은중경'을 찬미한 시에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곡을 붙였다. 이번 공연은 불교소년소녀합창단을 졸업하고 국악인으로 성장한 김경미(이화여대), 한아름(중앙대), 한진수(중앙대)씨 등이 출연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한편 대한불교소년소녀 합창단은 1993년에 설립돼 2,30여 회의 다양한 연주활동과 400여 곡의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 발표, 성인 합창곡 음반을 출반해 70여 명의 전공자를 배출했다. 그동안 불교예술의 전변확대와 인재양성 그리고 음성포교를 이어 왔다. **정혜숙 기자**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마가 글 | 256쪽 | 13,000원

출간즉시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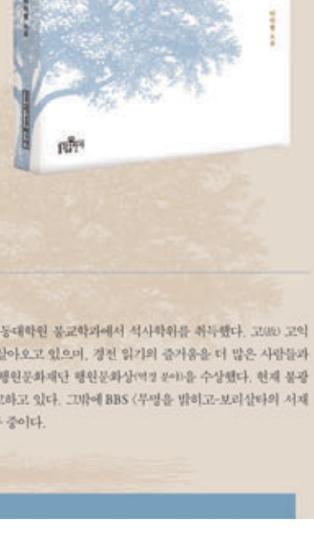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마주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전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돌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희망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를 맡고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사랑, 관계, 돈, 욕망에 대해
붓다는 어떤 말을 했을까?

세속적인 시대에
더욱 빛나는
붓다의 카운슬링

7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같이 읽고 함께 공감한
초기경전 속 생활의 지혜



|초기경전에서 찾은 삶의 힌트|
붓다 한 말씀
이미령 지음 | 248쪽 | 13,000원

이미령
1964년 강원도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고(故) 고익진 교수의 법화에 참여한 인연으로 자금까지 경전을 읽는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으며, 경전 읽기의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경전 관련 강의와 칼럼 집필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07년 행원문화재단 행원문화상(역경 분야)을 수상했다. 현재 불광교육원에서 전임강사를 맡고 있으며, 불교계 신문과 잡지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밖에 BBS 〈무명을 밝히고-보리살타의 서재〉, 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을 진행하는 등 북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다.

문화人

엉뚱 발랄한 '어라' 캐릭터로 젊은층 포교에 나서고 싶어요

카툰 전시회 연 만화가 지찬 스님


지찬 스님은 어라 캐릭터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스님은 1월 2일~7일까지 스페이스선+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카툰은 선과도 일맥상통하는 장르
동자승 어라를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
관람객들에게 힐링의 시간 주고자
연초 첫 전시회 마련해 호응 커

"수행자로서 세상에 회향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카툰이란 함축적인 느낌을 담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선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또한 젊은층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장르이기도 하고요. 제 만화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잔 같은 소소한 기쁨을 주었으면 합니다."

1월 7일 카툰전 '마음이 추울 때, 카투니카노 한잔 어때요?' 展을 개최하고 있는 종로구 삼청동 스페이스선+를 찾았다. 어라 지찬 스님이 배종훈 작가와 2인전으로 펼친 이 전시는 그동안 홈페이지나 인쇄물로 만나볼 수 있었던 스님의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전시의 제목에는 카투니카노라는 특이한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카툰과 아메리카노의 준말이라고 한다. 카툰을 눈으로 마시라는 의미로 그만큼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 대접하는 마음으로 여는 전시란다. 역시나 스님은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 주며 차 한 잔을 대접한다.

"갤러리 앞의 쇼케이스 전시 작품을 보고 정말 커피를 파는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전시를 한 배종훈 작가의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에게 커피를 직접 내려 드렸더니 모두가 즐거워하더라고요. 만화 한 컷으로 또 전시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이처럼 스님의 만화는 많은 이들에게 커피처럼 따뜻하고, 지루하고 고단한 일상을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것이 젊은층들에게 쉽게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도 스님의 바람이다.

"만화 자체가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짧고 강렬하게 불교적 가치관을 알리는 데에는 카툰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저의 작품을 본 젊은이들이 훗날 이를 추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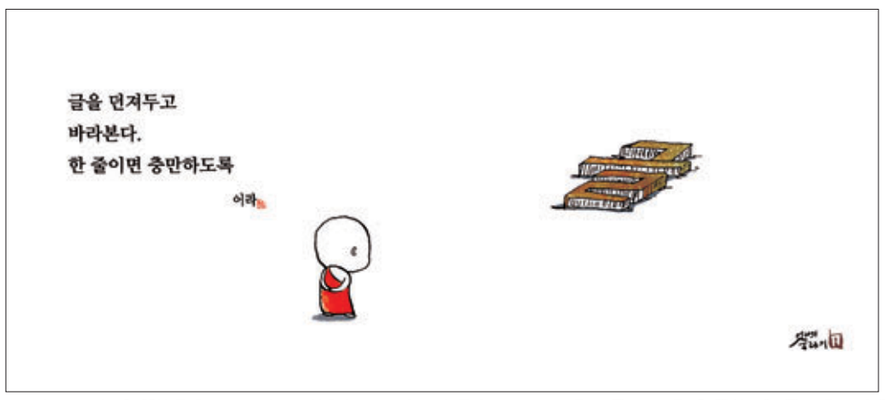
스님의 대표 캐릭터는 어라다. 스님이 예명이기도 한 어라는 가사를 입은 동자승을 귀엽게 표현했다. 어라는 엉뚱하고 깜찍한 매력으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책을 읽다 졸기도 하고 다양한 포즈로 스티커 사진을 찍기도 하며 때로는 마음을 관찰하며 붓을 들기도 하는 캐릭터가 어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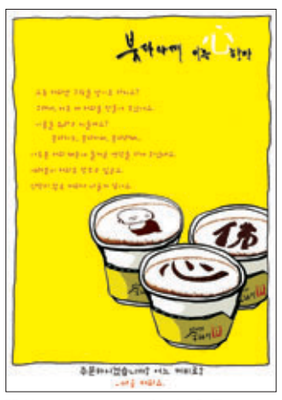
"늘 사유하면서도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호기심 많은 친구가 어라죠. 또한 어라는 세상의 모든 스님들을 대표하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저는 조계종 승려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가사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가사를 입은 동자승을 통해 엉뚱하고 좌충우돌하는 인간적인 캐릭터로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하고자 했어요."

스님은 만화를 그리지만 어디까지나 수행자임을 잊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미얀마에서 초기불교 수행을 하고 돌아온 스님은 자신의 수행 경험을 현대의 언어로 쉽게 풀어보는 것 또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스님이 만화를 그린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저 제가 알고 느끼고 경험한 수행과 일상의 결과물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더 간결한 캐릭터를 통해 독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현대적 감각의 언어로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지찬 스님은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성관 스님을 은사로 수원사에서 출가했다. 성신여대 평생교육원 만화창작과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콘텐츠 디지털북 제작 실무과정'을 수료하면서 본격적으로 만화를 공부했다. 수원사 홈페이지에 카툰을 연재한 바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월간 〈불광〉을 통해 지찬 스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어라는 때로는 엉뚱발랄하고 때로는 사유하는 모습으로 선적인 메시지를 던져준다. 그림 왼쪽은 '한 줄 충만', 오른쪽은 '붓다라떼 마음 심 한잔'

하룻밤 누대에 꿈도 푸르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③ 주세붕과 부석사 (上)




주세붕은 풍기군수로 재직 당시, 부석사 취원루에 하루 저녁 묵은 인연으로 한 수의 시를 지었다. 사진은 부석사 전경

무한 감동의 천년고찰

태백준령을 뻗어 온 대간의 맥박이 소백연봉으로 건너뛰는 봉황산. 그 신비로운 자락을 품고 앉은 부석사를 이름나게 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동 화엄사찰의 종가(宗家), 의상대사의 원력과 선묘낭자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창건설화, 배흘림기둥의 유려한 곡선으로 세워진 무량수전, 멀리 중생계를 굽어보는 안양루, 조사전의 벽화와 비선화 등등. 역사적 연원과 교리적 해석, 신앙적으로 심화된 가람의 배치, 그리고 멋진 풍경이 자아내는 무한한 감동이 부석사를 최고의 고찰로 만들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사찰이 그렇듯, 서기 676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무너진 법당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없던 당우가 들어섰다가 사라지기도 했을 것이다. 시절인연을 따라 사역(寺域)이 변하는 것은 중생계의 자연스런 영고성쇠(榮枯盛衰). 최고(最古)의 목조건물로 꼽히는 무량수전(국보제18호)도 1358년 외적의 침입으로 불탄 것을 원응 국사가 1376년에 고쳐지었다고 하지 않는가?

풍경으로서의 부석사를 완성시키는 건물은 누가 뭐래도 안양루일 것이다. 아래쪽인 범종각 구역에서 아래서 올려다보면 창공으로 날아갈 듯하고,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보면 아스라한 소백연봉을 거느린 관음의 옷깃 같기도 한 안양루. 허공에 들어앉은 그 맑은 바람벽의 누각은 인간과 불보살의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신비한 실루엣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시 속에 세워져 있는 취원루

그러나 부석사를 소재로 한 선비들의 많은 시 가운데 대부분은 안양루가 아닌 취원루(聚遠樓)를 읊고 있다. '부석사종각중수기' 등을 참조해 보면 안양루는 18세기 중엽에 지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1849년에 편찬된 〈순흥읍지〉에는 무량수전 서쪽에 취원루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의 〈교남명승첩〉에 실린 부석사 그림에는 무량수전의 앞쪽에 안양루가 있고 그 왼쪽 석축 끝에 누각 하나가 그려져 있어 그것이 취원루로 보인다. 그러니까 취원루는 옛 사람의 시 속에 서 있는 부석사의 누각이다.

취원루두초막관(聚遠樓頭 幕寬)
아래추일빙란간(我來秋日氷 干)
거승지점분제국(居僧指點分諸國)
소도인간행로난(笑道人間行路難)

취원루 위에 비단장막 넉넉한데
나는 가을날 찾아와 난간에 기대보네.
거기 사는 스님은 분제국을 가리키면서
웃으며 인간세상 살아가기 어렵다 말하네.

창창원기적동남(蒼蒼元氣積東南)
이백웅봉결구참(二白雄峰結構參)
산주고지분중초(散走股肢紛衆 丫)
전수한색의상암(全輸寒色義相庵)

창창한 원기가 동남쪽에 쌓였나니
소백 태백 웅장한 봉우리 들쑥날쑥함을 묶었네.
흩어져 팔다리로 내달려 여러 봉우리 어지러운데
온전히 차가운 빛 의상암으로 보낸다오.

의상암외월여해(義相庵外月如海)
숙객무면심뢰뢰(宿客無眠心磊磊)
이백소아해문지(李白小兒解問之)
거주욕호금안재(擧酒欲呼今安在)

의상암 밖에 달빛은 바다 같은데
잠자리에 든 객은 잠들지 않고 마음 여유롭네.
이태백이 어린아이에게 물어 깨닫나니
잔 들고 불러보네 이태백은 지금 어디 있는가?

산루람힐군산취(山樓攬擷 群山聚)
일숙루중몽역청(一宿樓中夢亦靑)
조모웅관겸야경(朝暮雄觀兼夜景)
신시만주동정령(新詩滿紬動精靈)

산루에서 여러 산의 푸르름 움켜쥐니
하룻밤 자고 가는 누대에 꿈도 푸르네.
아침저녁 웅장한 경관에 야경까지 더하니
새로운 시 소매에 가득하여 정령이 움직이네.
–주세붕 '부석사 4수' 〈무릉잡고〉3권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시다. 주세붕은 뼛속까지 성리학이 들어찼을 유림의 거목이다. 그는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듬해(1544년) 우리나라 성리학의 선구자인 안향(安珦 1246~1306) 선생이 젊은 시절 공부했던 순흥에 백운동서원(오늘의 소수서원 사적 제55호)을 세웠다. 백운동서원이라는 이름의 근원도 주자(朱子)가 여산에 세워 후학을 가르친 '백록동학규'이다. 주세붕의 백운동서원은 최초의 서원인데, 퇴계 이황이 1550(명종 5)년 왕에게 진언하여 '소수서원'이라는 현판을 하사 받음으로써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는 타이틀을 더하게 되었다.

'억불숭유'와 '불유교류'의 간격

아무튼 성리학자 주세붕의 문집에는 사찰을 묘사한 시와 교류하던 승려들을 위해 쓴 시가 상당수 전한다. 그의 시대는 분명 성리학의 물결이 출렁대는 때였고 그 역시 그 물결의 흐름을 끌고 가는 견인차였다. 그럼에도 사찰을 자주 찾고 많은 승려와 교분을 하며 시를 주고받았다.

'부석사 4수'에서도 그러한 향취가 충분히 풍겨져 나온다. 스님이 가리키는 '분제국'은 넓게 펼쳐진 경치를 불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중생계로 표현한 것이다. 주세붕은 그 중생계의 사람살이가 쉽지 않다는 스님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다. 잠자리에서조차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 또한 유연하다. 이 4수의 시에 동원된 풍경과 경물들, 그리고 의상과 이태백까지 불러내며 서정과 서사를 원융 시키는 솜씨가 대단하다. 그래서 후세 선비들이 이 시의 운을 빌어[次韻] 쓴 시가 많다.

59세를 살다간 그가 풍기군수로 재직한 시기는 50세 전후. 그러니까 부석사 취원루에 하루저녁 묵은 인연만으로도 그 농익은 학자는 소매 가득 시를 품고 갈 수 있는 것 아닐까?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인 재 양 성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C.A.C 분석서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 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펼친 근현대 선사 6인의 생생한 법거량 해설
한국 禪의 중흥조인 경허대사와 수월 · 만공 · 혜월 · 한암 · 용성선사의 사자후!
경허대사와 5대 제자 이렇고 선지식 총서 ❶
콧구멍 없는 소 김성우 엮음 | 46판 | 218쪽 | 11,000원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보이는 물질이 곧 해인海印이요 들리는 소리가 곧 장경藏經이로다!
"눈뜨고 세상을 보니 우주와 내가 바로 禪" 우리 시대의 大人 성수 큰스님이 남긴 선문답과 법문
성수 대종사 선어록 이렇고 선지식 총서 ❷
세상선世上禪 산수도山水道 김성우 엮음 | 46판 | | 319쪽 | 12,000원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화두, 간경, 염불, 보현행원 등 통불교적 수행으로 최상승선 깨닫게 한 정일선사의 사자후!
정일선사 선어록 이렇고 선지식 총서 ❸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 엮음 엮음 | 46판 | 219쪽 | 11,000원


나고 죽는 이전의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을 묻는 근본 질문, "어디서 왔소?"
일상의 선문답으로 自性을 깨닫게 하는 송광사 천자암 조실 활안 큰스님의 사자후!
활안큰스님의 禪법어집 이렇고 선지식 총서 ❹
어디서 왔소? 김성우 엮음 | 46판 | 309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 ~ 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붓다 수업	법상	민족사
3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8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4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9	날마다 새롭게	일여	예담
5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10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성법	민족사



부처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은 무얼까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성법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3천5백원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 인식해온 불교 교리, 승가의 잘못된 행태 등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부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얼까?' 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다. 머무는 순간, 곧 집착하는 순간 이미 불교에서 멀어진다는 뜻을 품고 있는 부제('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에서 엿볼 수 있듯이 책은 오늘날 불교의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부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총 일곱 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면에서 한국불교를 걱정하고 있다.

책은 긴 '머리말' 에서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자는 현재의 한국불교를 19세기 염세주의보다 훨씬 위험한 낙관주의에 깊이 물들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불교가 부처님 입멸 후 1500여 년이 지나 중국에서 일어난 선불교의 선사들의 입에서 나온 '네가 곧 부처다' 라는 말을 부처님의 요체로 인식하는 착시에 함몰되어 있고, 한국불교가 수행을 하는데는 무식할수록 유리하다든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도 보면 안 되고, 세간의 이치와 논리는 하찮은 것이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차단해야 비로소 수행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중국의 선수행' 에 치우쳐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불법이 무엇인가를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45년을 길에서 사신 부처님과 달리 '네가 부처다' 를 외치는 선사들은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마른 똥 막대기' 라거나 그 말도 번거러워 '할' 만을 외치며 1500년을 지내왔다며,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 라는 실체를 '마른 똥 막대기' 라는 화두를 타파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염세적인 출발에서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깨달음이라는 극적 반전으로 낙관적 회향을 보여 주셨지만, 이들은 "네가 부처다"라는 낙관적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처님이 맞다는 당연한 회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선불교의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600년의 역사로 인해 얻어진 문화적 재산으로 경제적 수혜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승가임에도 역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인 기여가 많이 부족한 한국의 승가를 염려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수혜로 인해 출가정신의 정체성 또한 희미해진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교구본사나 전통사찰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시의 당사자인 재가불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외에도 책은 '연기' 등 타종교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국 승가는 부처님의 교설의 진위를 실증적이며 합리적 논리로 추구하기는커녕, 부파불교

오늘날 한국불교의 문제점 지적
선불교의 '네가 곧 부처다'
불법의 요체로 보는 건 '착시'
'교' 배제한 선수행 옳지 않아
불교의 정체성 '실증적 철학적 종교'

보다 더 조악한 사상들도 방편이란 이름으로 수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흔들리고 있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염려하고 있다. 책은 유일신에 의지하는 등의 타종교와 비교하면서 불교의 정체성을 완벽하고 실증적인 철학적 종교라고 획인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 입멸 후 400년경에 이루어진 제4차 결집 이후 단 한 번의 결집과 유사한 '사상 점검' 도 없었다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한국불교와 승가가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심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한 번 '결집' 이 필요하다며 5차 결집과 결집을 위한 경전 전산화불사를 제안하고 있다.

인도의 복잡한 사상에 버금가는 중국의 각종 사상과 함께 유입되고 신앙화된 한국불교는 그래서 가장 하이브리드(hybrid: 이질적 요소가 섞인 혼성물)한 종교가 되었다. 노골적으로 비불교적인 것은 제외하더라도 지장신앙, 관음신앙, 정토신앙, 미륵신앙,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천태사상, 선불교, 밀교 여기에 더해 수많은 논서들을 때론 상충되는 면은 접어두고 다 옳다고 단정하며 수용해 왔다. 1600여 년 동안 쌓인 이 모든 사상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을, 불교를 대변하는 '연기' 와 '제행무상', '제법무아' 를 잣대삼아 사상적 거리의 원근을 분명히 해 두는 2000년만의 제5차 결집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염려와 바람으로 책은 불교의 탄생부터 부처님의 깨달음, 교리 발달사,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순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인간 최고의 지성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의 기호에 가미되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중국에서 발달한 선수행, 조계종이 내세우는 간화선과 선사들의 가르침의 전달 방법은 완전한 것인가를 물으면서 현대인들에 맞는 수행법을 창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35개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록 '지금 붓다께서 계신다면' 은 저자가 한국불교의 총체적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한 내용으로 책의 정수요, 책에서 설파하고자 한 메시지를 함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세상의 물질적 혁명은 결국은 정신적 세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불교도 혁신을 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날 논란이 분분한 부처님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위빠사나, 명상, 선수행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저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창안한 현대인에게 맞는 수행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승가는 수행의 '마장', '장애' 의 개념조차 사라져 원로 스님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다.

책은 그동안 출간되었던 경전해설서와는 달리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망라하여 다룬 것으로 〈이판사판 화엄경〉,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등 내놓는 책마다 반향을 일으켰던 저자의 기존의 책들과도 또 다른 차원으로 저자의 사상과 견해를 응축해 놓은 책이다. 비교적 긴 머리말부터 부록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태동과 교리, 경전 수행, 한국불교 등 불교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불교를 세우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박재완 기자

달을 품고 일체를 아우른 1400년 이야기



달을 품고서 일체를 아우른 절 오대산 월정사 이야기
이도흠 지음
오대산 월정사 펴냄
1만5천원


문수화엄의 성지로 불리는 오대산에 자리한 월정사

오대산은 성지 개념이 살아있는 산이다. 또한 불교적으로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문수화엄의 성지이다. 이안에 '달을 품고서 일체를 아우른 절' 월정사가 있다. 책은 1400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월정사에 대한 이야기다.

책은 수 천 년 전 천신과 산신이 자리하다가 부처와 어우러져 하나가 된 뒤, 신라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월정사의 내력과 개산조 자장율사에서 나옹, 사명, 한암, 탄허, 만화 스님까지 월정사의 역대 조사들의 이야기, 오대산을 비롯해 전나무숲길 등 월정사를 이루는 것들을 통해 월정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스물 한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과 사실의 틈 사이에는 상상력을 통한 소설적인 재미가 추가되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설명과 함께 소설적 재미가 풍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연결을 상상하도록 돕는다. 또한 풍부한 사진자료와 증언을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자장율사가 터를 고른 일, 구정 선사가 솥을 아홉 번이나 바꾸어 걸은 끝에 도통한 일, 문수보살이 나투어 세조의 등을 밀어준 이야기, 절을 지켜낸 한암 스님에 대한 이야기 등, 월정사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쉽고 흥미로운 형태로 들려준다.

제1장, '오대산 월정사, 화엄의 으뜸 도량' 에서는 인연이 있는 땅에 자장 율사가 가람의 터를 고른 일에서 시작하여 문수보살이 나투신 것에 이르기까지 화엄의 으뜸 도량이라는 공간에서 부처와 사람이 어우러져 빚어낸 기억을 사실과 설화를 결합하여 풀어냈다. 자장율사가 월정사를 세우고, 신효 거사와 신의 두타가 중창하고, 산신과 부처가 하나가 되어, 성덕왕이 친히 이곳에 와서 화엄만다라를 경영하고 강릉 태수에게 이곳을 잘 보전하라는 전교를 내리는 바람에 아름다운 수로부인이

'내력 · 조사 · 이루는 것' 통해
21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야기
상상력 통한 소설적 재미 추가

함께 행차하고, 구정선사가 솥을 아홉 번이나 바꾸어 걸은 끝에 도통하고, 문수보살이 나투어 세조의 등을 밀어준 이야기를 실었다.

제2장, '월정사를 장엄하신 조사들' 에서는 남다른 신심과 도력(道力)으로 월정사를 빛낸 조사들의 이야기를 평전 형식으로 펼치고 있다. 선사인 나옹 화상 혜근은 말 한 마디로 북대에 있는 나한상을 상원암으로 이운했다.

사명 대사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받아 월정사의 중창에 매진했으며, 한암 스님은 6.25 한국전쟁 때 절을 태우려는 국군에 맞서서 법당에 들어가 정좌한 채 절을 지켜냈다. 탄허 스님은 20대에 삼교에 통달한 실력으로 수많은 강백과 탁월한 학승을 길러내며 경전을 번역하여 대중들이 쉽게 불성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만화 스님은 승가오칙을 평생 실천하여 오대산의 중창주가 되었다.

제3장인 '월정사를 품어주고 꾸며주는 것들' 에서는 오대산에서 시작하여 상원사 동종에 이르기까지, 월정사와 연기관계를 맺고서 이를 품어주고 꾸며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책은 월정사의 각 공간에 당도한 여행객의 시점에서 동선에 따라 주변의 풍경을 기술하는 가운데, 그 풍경에 깃든 기억들을 풀어내고 주관적 감상을 더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맨 먼저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너른 품을 가진 오대산을 조망하며 깃들어 사는 생명을 떠올리고, 이어서 일주문에 당도하여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명상하면서 절 이름에 담긴 의미를 음미하고, 천왕문에 이르러선 사천왕과 벽화에 얽힌 이야기를 되새기고, 마당에 들어서서 하늘 높이 치솟는 팔각9층탑을 보며 팔정도를 향한 수직향상의 미학에 감탄하고, 그 옆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석보보살좌상에 얽힌 내력과 아름다움을 감상한다.

절을 지나 부도탑을 보며 고승들의 정신의 깊이에 이르려 하고, 더 발길을 재촉하여 오대산 사고를 보며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사관의 직필 정신에 대해 생각하고, 오대산에서 득도하여 신선이 된 한무외를 기린다. 마지막으로 상원사에 올라 한국 종의 남상이 된 동종의 아름다운 비천상을 보며 가슴 깊이 울리는 진리의 둥그런 소리를 듣는다.

이상과 같이 책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과 관련 기록에 기초하면서 사실과 사실 사이의 틈은 상상을 허용하여 소설적 재미를 추가했다. 이에 선행연구를 참고했더라도 따로 각주를 달지 않고 각 이야기 끝에 참고문헌으로 정리했다.

이 책을 읽으며 독자는 월정사, 그리고 한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될 것이다. 월정사의 역사를 통해 한국에 스며든 불교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 한국불교에 대한 전체의식을 시대의 벽을 넘어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참본성과 조우할 때 내면 한계 극복 가능"



하심

촉니 린포체 · 에릭스완슨 지음
이재석 옮김
느낌이 있는 책 펴냄
1만5천원

〈하심〉은 현대 티베트의 명상 스승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촉니 린포체의 저서다. 이 책은 두려움과 고통, 불안과 의심이 없는 삶을 찾고 누리는 방법을 알려준다. 8살에 촉니 린포체의 환생자로 지목받은 그는 네팔과 인도서 수행했고, 20살에 수행자의 계율을 벗고 재가자가 됐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 두 딸을 낳고 기르며 재가자로서,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불교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영적으로 훌륭할 뿐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을 통찰하고 공감하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촉니 린포체는 몇 년 전 고층 빌딩을 연결하는 유리 다리를 건넜던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는 저 아래가 훤히 보이는 그 유리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다리가 혹시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러다 왜 자신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만났는지 들여다보게 됐다. 바로 그 마음은 어린 시절 나무에 오르내리며 떨어졌던 기억 때문에 생긴 일종의 '패턴' 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리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것, 이 두려움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다리를 건넜고 허공을 건너는 듯한 기쁨을 몸소 느꼈다.

저자는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 모두 경험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패턴' 을 갖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그리고 그 내면의 한계를 바라보고 다스리면 패턴 안의 진짜 자신인 '참본성(essence love)' 과 조우할 수 있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 참본성과 만나 깨어날 때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고통에서 벗어남은 물론 타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된다고 덧붙인다.

사람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몰아가는 패턴을 깊게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 낳고 자란 문화가 만든 편견과 집착을 뛰어 넘어 '마음을 여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참본성' 과 만나게 되면 인간 내면에 무한히 펼쳐져 있는 '비어 있음' 을 느끼게 된다.

촉니 린포체는 이 비어 있음을 본질적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촉니 린포체의 '참본성' 법문
고층빌딩 연결다리 건넌 경험 소개
두려움 존재하지만 참진실 아니다

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 말한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상처와 정서로 가려진 이 본성을 깨우게 되면 누구나 내면의 평화, 즉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고 살면서 겪는 갖가지 도전들에 확신과 명료함으로 대처하는 능력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촉니 린포체는 우리 안에 있는 훌륭함과 따뜻함, 열림과 용기의 무한한 능력인 참본성을 깨우기 위해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패턴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하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명상 수행도 제시한다. 그의 친절하고도 재치 있는, 그리고 겸손한 안내에 따라 몸, 느낌, 생각, 본질을 자각하면서 참본성에 닿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나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린포체는 이 모든 과정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지도하며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기쁨을 선물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촉니 린포체**는…1966년 네팔 카트만두서 태어났다. 티베트 밖에서 교육받은 불교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세계를 돌며 가르침을 펴는 힘든 스케줄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네팔의 비구니 사원과 티베트에서 가장 큰 비구니 사원, 티베트 동부 지역의 50개가 넘는 수행 센터와 은둔처를 관리하는 일도 맡고 있다. 촉니 린포체는 동양 철학과 서양 학문, 그중에서도 신경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삶의 조화를 찾는 데 있어서도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준다.

"여행 작가를 꿈꾼다면 일단 먼저 책부터 써라!"

여행작가의 모든 것

문윤정 지음 | 위닝북스 펴냄 | 1만8천원



여행작가의 반열에 들어선 저자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밝힌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여행을 많이 하고도 책으로 내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책으로 내는 사람 이렇게 말이다. 책을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생각의 차이일 뿐 여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여행기가 없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여행 작가를 꿈꾼다면 먼저 책부터 써야 한다."

1989년 해외여행자율화가 시작된 이래 20년이 지난 지금, 연간 출국자수가 1천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제 여행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돼버렸다. 하지만 여행을 갔다와서 책을 펴내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본 기자도 대학시절 50여개국을 여행 했을 정도로 여행 베테랑이라고 자부하지만 아직 한 권도 여행서를 낸 적이 없다. 몇 번 시도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인도와 네팔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내더니 지난해에는 실크로드 여행집을 펴냈다. 여행하고 나서 책 한 권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행만 하고 오면 책 한 권이 뚝딱 나온다.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일까?

저자는 여행을 좋아하고 낯선 문화와 낯선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여행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조언한다.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면 우선 책부터 펴내라고. 물론 책 쓰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고 나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건도 특별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여행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된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서를 펴내는 것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최고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자신을 퍼스널 브랜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책 쓰기라는게 저자의 지론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꼭 여행기 출간을 권유한다. 한 권의 책을 씀으로서 그 분야서 전문가가 되고 자신을 브랜딩 할 수 있으니 책 쓰기만큼 미래를 준비하는데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종사하는 그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행기를 쓸 콘텐츠가 반드시 있으며, 자신의 취미와 관심분야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여행 책을 쓸 수 있다고 용기를 준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 진다. 사람들은 근사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열린마음 있으면 누구나 여행작가
책 출간은 '퍼스널 브랜딩' 의 필수

책을 쓰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생각이 다르다. 좋은 여행, 멋진 여행이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썼기 때문에 멋지고 특별한 여행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을 펴내고 나면 평범한 나에서 평범하지 않는 나로 바뀌기 때문에 책을 쓴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나로 바꾸는 작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자는 첫 여행 책을 내고 나서 신문사 두 곳으로부터 객원기자 콜을 받았다. 객원기자로 일하면서 많은 유명 인사들과 수행자들을 인터뷰했으며, 그 결과물을 4권의 책으로 펴냈다.

현재 저자는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과 〈한국 책쓰기 성공학 코칭협회〉에서 여행작가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칼럼기고와 강연으로 바쁜게 살고 있다. 저자가 만일 여행 책을 내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을 거란게 저자의 생각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가 알려주는 여행에세이 3개월만에 쓰는 법

① 책쓰기의 토대를 세워라(계획하기)
- –여행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
-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를 파악
- –자신에게 맞는 여행기를 정하자
- –책의 목차부터 만들자
- –현 출판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하자

② 쓰고 또 쓰고 잘써라(집필하기)
- –집필 계획을 세우자
- –준비되었다면 무조건 써내려가자
- –일단 초고부터 완성하자
- –사진부터 정리하자
- –초고를 탈고하자

③ 아무지게 준비하고 제대로 계약하라 (출판사 계약)
- –출간 기획서 먼저 작성하자
- –프로필 작성
- –출판사에 원고 피칭
- –유리한 조건서 출판을 계약하자

매일 15분 호흡 연습 2회… 현존 자각 가능

현존수업

마이클브라운 지음 | 이재석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 1만5천원



현존 수업은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현존(Presence)에 다시 자신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될 수 있도록 고안된 과정이다. 이 것은 부드럽고 안전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매우 실질적이고 그 효과는 지속적이다.

갓난아기는 거의 직감에 의존하는 감정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로 바라본다. 그러나 정신적 의사소통과 물질적 조작 능력이 발달하면서 감정체는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 숨겨지고, 세상은 점차 '견고한 물질' 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억압된 에너지는 아직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다. 그것을 통합하지 못하는 한, 우리들은 내면의 혼란을 외부로 투사해 불행을 자초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한다.

생생한 내적 떨림이 없다면 우리들은 지금 현존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 느낌을 망각해버린 지 오래다.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 하지만 실은 똑같은 쳇바퀴를 계속 맴돌고 있을 뿐이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이런 절망적인 느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이때 외부적인 상황들을 바꿈으로써 상황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은 본질적으로 쓸데없는 소동에 불과하다.

현존 수업에서는 이런 쓸데없는 소동을 '드라마' 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 '드라마' 는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그저 결과에만 달라붙어 그것을 조작해보려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활동을 가리킨다. 진짜 원인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드라마는 계속해서 또 다른 드라마를 낳을 뿐이다.

이 책은 매일 15분간의 호흡연습을 2회씩 실천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현존' 의 울림을 온몸으로 자각하게 하고, 일상에서 내적 변화를 이끌어낼 강력한 통찰을 매주 하나씩 10주간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이 무의식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그 불편한 감정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한다. 이 여행에서 외부의 도움은 전혀 필요치 않다. 깨어 있는 자각의식 속에서 만나게 될 '현존' 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에 알아서 마련해주는 '현존' 만이 우리들을 도울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의 안내만을 잘 따른다면, 당신은 10주 동안 혼자서 안전하게 경이로운 내면여행을 체험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매끄런 해설로 더 읽기 쉬워진 법구경

하룻밤에 읽는 법구경

법구 지음 | 유중 옮김 | 사군자 펴냄 | 1만4천원



법구경은 형식상 26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우리의 '마음' 을 다루고 있다. 사실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만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역시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왜 태어났고, 또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수많은 경전 가운데 법구경이 널리 알려진 것은 지금까지 다른 그 어떤 경전보다 부처의 가르침을 가장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언어가 매우 아름다우며, 문장이 길지 않고 간결하면서도 부처의 가르침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

사실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경전을 읽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 의미에서 법구경은 모든 경전을 시로 엮어 아우르면서도 단숨에 읽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불교를 떠나 누구라도 '좋은 글' 이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글' 을 쓰는 이들이라면, 한두 번쯤 법구경의 구절을 인용하지 않는 이들이 없고, 독자들이 꾸준하다.

불교 경전 가운데 특히 법구경은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나왔다. 1870년, 서양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최초로 출판된 것은 종교역사학자인 막스 뮬러(Max Muller)에 의해서였다.

이 책이 출판되자, 서양 사람들에게 부처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얼마 후 그의 번역이 서투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20세기 서양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영어 번역서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래서 이 책을 편저한 이는 책을 번역하면서 가능한 이 같은 외국의 많은 책들도 참고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석에 그들의 번역과 해석을 함께 실었다.

예를 들어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색다른 번역이 있다거나 혹은 아주 탁월하거나 독특한 번역들은 이 책 맨 끝에 주석으로 처리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된 번역이나 매끄럽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은 가능한 더 쉽고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구절마다 간단한 해설을 함께 실은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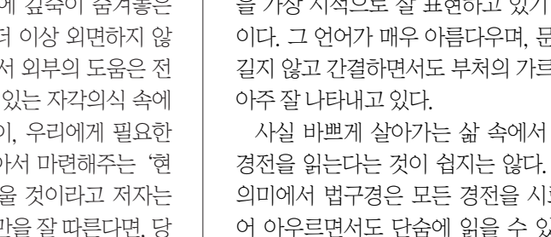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붓다의 물리학
들어가기

자아·마음·몸 … 계속 변화함을 알아야

정신현상과 물질현상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오감과 마음을 통해 경험한 것에 빠진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것들 모두는 조금도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국 이별해야 하고 재산도 가지고 떠나지는 못한다. 집착이 슬픔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하더라도, 집착하는 그 순간에는 만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즐거운 대상들을 원하며 '자아'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한다.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아'나 '우리 마음'과 '우리 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붓다의 가르침인 '아비담마'에서는 삶의 모든 현상을 정신적인 현상(나마)과 물질적인 현상(루빠)으로 나누어서 열거하고 분류하고 있다. '봄[眼識]'은 정신현상(나마)이며, 눈의 문을 통해 색깔을 지각한다. 보이는 대상인 색깔[色]은 물질현상(루빠)이며, 이는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으며 인식의 대상이 된다. 색깔이 감지되어지는 눈의 문으로 기능하는 눈의 감성 역시 물질이다. 색, 소리, 냄새, 맛, 접촉대상이런 감각대상인 물질들과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감성기관들도 물질들로서 대상을 인식하는 정신현상의 조건이 된다.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마음과 물질은 궁극적인 실재다. 우리는 궁극적 진리(실재)와 관습적인 진리(실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관습적인 진리란 사람, 나무 또는 동물과 같은 개념들의 세계다. 불교에 대해 배우기 이전에는 관습적인 진리, 즉 개념의 세계만이 우리가 아는 유일한 진리였다. 빨리어로 '빤냐띠'라는 개념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유용하다. 이 단어는 어떤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명칭이나 용어를 나타낸다.

또한 단어에 의해서 전달되는 생각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무'라는 이름은 개념이며 또 '나무'라는 말에 대해서 형성된 생각도 개념이다. 소위 말하는, 나무를 만지면 '물질의 성질'(이하 물성으로 줄임) 중 하나인 '단단함'을 경험할 수 있다. 눈을 통해서는 단지 색깔이라는 물성만 인지하게 된다. 색과 단단함은 궁극적인 실재이며 각각 그들 자신의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변하지 않으며, 이름 붙이지 않아도 지각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을 붙인다 해도, 색깔은 항상 색깔이며 단단함은 항상 단단할 뿐이다.

온종일 우리는 수저나 접시 또는 의자와 같은 사물을 만진다. 우리는 다양한 사물들이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안다고 믿는다. 그러나 '봄(안식)'이나 '몸의 감성을 통해 감촉대상을 경험함[身識]'과 같은 감각인지를 한 후에 이전의 경험을 기억하고 분류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으며, 이러한 순간들은 매우 빠르게 차례대로 연이어서 일어난다. 개념은 생각을 통해서 떠오른다.

우리는 사물의 형태와 모양을 기억해 어떻게 다른지, 무엇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안다. 관습적 실재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관습적 진리의 세계를 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순간들 사이에도 궁극적인 실재인 마음과 물질에 대한 깨달음을 계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계발시킨다 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남을 돕거나 타인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보시하는 물건이나 보시받는 사람과 같은 관습적 실재를 생각할 수 없다면 관용의 행위는 행해질 수가 없다. 그러나 마음과 물질에 대한 깨달음을 계발하면 절대적 진리와 관습적 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다.

후대 인도에서 저술된 아비담마 개요인 〈아비담마 타상가하〉에서는 '개념이란 실재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의 투영된 이미지를 보는데 눈의 감성을 통해서 색상이 보일 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난 사람을 볼 때 눈의 감성을 통해서 색깔만이 경험될 뿐이다. 궁극적 관점에서 사람은 없다. 비록 그것들이 정말 진짜같이 보일지라도 실재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

진리는 항상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이란 실재들의 일시적인 결합이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도 사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과 물질일 뿐이다. 우리가 서로 다른 대상들의 집합체에 집착하는 한, 이것들을 견고한 '전체'로 여긴다. 마음과 물질의 생기고 사라짐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한 자아의 존재가 있다고 계속 믿게 된다.

붓다의 가르침은 '번뇌의 뿌리뽑음'이 목적

궁극적인 실재는 무상해 매우 빠르고 쉽게 생겼다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과 사물이라는 개념은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궁극적 관점에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은 개념이 아니라 통찰지혜의 대상들이다.

팔정도를 계발하는 목적은 무상(매우 빠르고 쉽게 변함), 고(불만족), 무아(고정불변 실체가 없음)라는 특성을 가진 궁극적인 실재를 알기 위한 것이다. 개념과 궁극적 실재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팔정도는 계발되지 않는다. 팔정도의 첫 번째인 바른 이해[正見], 즉 '마음과 물질에 대한 바른 지혜'는 그것들에 대한 '바로 있는 그대로의 알아차림'에 의해서 계발된다. 그러나 이는 어려워서 매우 점진적으로 체득되게 된다. 다섯 감성의 문이나 마음의 문 중 어느 하나의 문을 통해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 나타남과 동시에 바로 알아차리면 그 순간에 '전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러한 대상들이 경험되는 다섯 감성의 문이나 대상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대상과 문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대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 실재를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다. 마음과 물질에 대한 공부는 나중에 바로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물질에 대한 공부는 물리학이나 의학에 대한 공부가 아니다. 마음과 물질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아'라는 잘못된 견해를 뿌리 뽑고 번뇌에 얽매이지 않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사물들을 소유한 '자아'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그러한 생각은 탐욕과 질투를 야기시켜 심지어는 도둑질이나 살생과 같은 악행까지도 하게 한다. 번뇌를 한 순간에 뿌리 뽑힐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육문 중의 하나를 통해 한 순간에 오직 하나의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불변하는 자아나 어떤 사람 또는 실체라는 견해에 덜 집착하게 될 것이다.

붓다가 남기신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다. 율장(위나야), 경장(숫딴따), 논장(아비담마)다. 이 셋은 '번뇌를 뿌리뽑음'이라는 같은 목적이 있다. 인용한 경전들 속에 아비담마도 또한 있다. 이와 같이 붓다의 가르침은 하나다.

논장은 궁극적 의미에서 삶이란 적당한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또 사라지는,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사람이나 자아로 알고 있는 것은 마음(-빳따), 마음과 같이 일어나는 정신적 요소인 마음부수(쩨따시까) 그리고 물질적인 현상인 루빠일 뿐이다.

마음과 마음부수는 정신현상이며 그것은 대상을

> 마음과 물질이 생기고 사라짐 깨닫지 못하면
> 영원한 자아의 존재 있다고 믿게 돼
>
> 마음과 물질에 대해 이해하면
> '자아'라는 잘못된 견해 뿌리 뽑을 수 있어
>
> 붓다의 가르침 '아비담마' 공부 목적은
> 번뇌 뿌리째 뽑고 지혜 계발하는 것

인식한다. 반면, 물질현상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한다. 마음은 오감을 통해 물질인 대상을 경험한다. 대상 뿐만 아니라 오감 또한 물질이다.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는 도구인 오감을 문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보거나 들은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은 감각의 문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라는 또 다른 문을 통해서 대상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여섯 개의 문이 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통해서 개념뿐만 아니라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라는 궁극적인 실재를 경험할 수 있다.

마음은 오직 하나의 대상을 경험하고 사라지며 다음 마음에 의해서 연속된다.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마음이 영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 순간에 오직 하나의 마음만 있다. 어떤 한 순간에 보는 마음이 있고 다른 순간에 듣는 마음이 있으며 또 다른 순간에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의 삶은 연이어 일어나는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연속이다.

마음은 유익한 마음(꾸살라-빳따)이거나, 해로운 마음(아꾸살라-빳따)이거나, 또는 유익한 마음도 해로운 마음도 아닌 마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는 마음은 유익한 마음도 해로운 마음도 아닌 오직 눈의 문을 통해서 보이는 대상을 경험하는 작용만 한다. 보는 마음이 사라진 후 색은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에 의해 경험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대상이 여섯 문 중의 하나에 부딪치면 여러 가지 유형의 마음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며 이것들 모두가 그 대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들은 그 과정에서 특정한 순서로 일어나며 그것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을 자아는 없다. 일련의 과정으로 일어나는 마음들은 오감의 문과 마음의 문 중 하나를 통해 대상을 경험한다.

한 순간에 하나의 마음만이 일어나지만, 각각의 마음은 그와 대상을 공유하지만 고유한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 성질들인 마음부수들을 동반한다. 느낌이나 인식과 같은 어떤 마음부수들은 모든 마음에 동반되나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해로운 마음부수는 해로운 마음에만 동반된다. 반면 아름다운 정신적 성질들인 아름다운 마음부수들은 유익한 마음들에 동반된다.

물질과 물성

물질적 현상, 즉 물성은 모두 28가지가 있다. 물질은 단지 교재에 사용되는 개념용어일 뿐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재다. 물질은 어떤 것을 알거나 경험하지는 못하며 마음에 의해서 알 수 있을 뿐이다. 물질은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마음만큼 빠르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단단함과 같은 물질의 특성은 몸의 감각에 부딪칠 때, 그것은 어떤 과정에서 연이어 일어나는 여러 개의 마음에 의해서 몸의 감각을 통해 인식된다. 만약 비록 물질이 마음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하더라도 다시 사라져 무상한 것이다.

물성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무리지어 일어난다. 우리가 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물성의 여러 무리나 단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 다른 여러 물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사라진다. 여러분은 몸의 물질을 만드는 네 가지 원인들이 업, 마음, 온도,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뒤에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맨 앞에 있는 '업'은 과거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더 어렵다.

우리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이나 악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적절한 과보를 낳는다. 그러한 행위를 업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그 행위의 동기가 되는 의지 또는 의도(쩨따나)라고 하는 마음부수이다. 업은 정신적 활동인데 그 힘은 축적된다.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업의 힘은 하나의 마음순간에서 다음 마음순간으로 전달되며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업은 나중에 과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선업은 즐거운 과보를, 악업은 괴로운 과보를 만들어 낸다. 업은 생의 첫 순간에 과보를 만들어, 인간계나 천상계와 같은 선처의 존재세계나 지옥이나 축생 같은 악처의 존재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재생연결의식을 낳는다. 전생애를 통해 업은 과보마음(위빠까-빳따)인 봄, 들음,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오식을 낳는다. 과보마음은 유익한 마음이거나, 해로운 마음도 아니다. 즐거운 대상을 보는 것은 선업의 과보이며 괴로운 대상을 보는 것은 불선업의 과보이다. 업 때문에 인생에서 이득과 손실, 칭찬과 비난이 번갈아 찾아온다.

재생연결의식은 업의 정신적인 결과이지만 그 순간에도 업은 물질들을 만들며 일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물질을 만드는 것을 멈출 때 우리의 수명은 끝나게 된다. 업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감성들과 같은 특별한 종류의 물질을 만들어 낸다.

마음도 물질을 만든다. 여러 가지 기분이 얼굴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온도도 물질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자궁에 있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자라기 위해서 알맞은 온도가 필요하다. 일생 동안 온도는 물질들을 생산한다. 영양분도 물질들을 만드는 또 다른 요소다. 살아있는 존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것은 몸에 소화 흡수되고 영양분은 물질들을 만든다.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의 일부는 업에 의해, 일부는 마음에 의해, 일부는 온도에 의해, 일부는 영양분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 우리 몸의 물질을 만드는 네 가지 요소는 서로 지탱하고 강화하며 이 짧은 수명의 몸을 잘 돌아가도록 한다. 만일 우리가 각기 다른 요인들의 조건으로 우리 몸의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알게 된다면 몸이 내 것이라는 생각에 좀 덜 매달리게 될 것이다.

몸을 이루는 물질뿐만 아니라 몸 바깥의 현상인 물질도 있다. 바위, 나무, 집들도 물질이며 이들도 온도에서 생긴다. 온도 이외에 토양, 빛, 습도와 같은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이 왜 없느냐고 의아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할 조건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더 정밀히 분석하자면, 소위 토양, 빛, 그리고 습도 등은 물질들의 다양한 구성체들이며 그것이 생기고 유지하게 하는 온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몸 바깥에 있는 물질들은 업, 마음, 영양분들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생긴다.

입고 먹고 소화시키고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등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물질은 그 기능을 수행 한다. 만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늘 나타나는 물질의 특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실재를 알기보다는 밖으로 드러난 겉모습에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 '땅 성품[地大]'은 물질의 단단함이나 부드러움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무얼 하든지 간에 단단함은 수시로 몸에 부딪쳐 온다. 몸의 단단함이나 바깥대상의 단단함이거나 간에 일어날 때 우리는 단지 물질의 성질로 알아야 한다. 실재로는 물질의 성품의 일종인 물성뿐이다. 마음과 물질을 자세하게 공부하면 '나' 즉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비담마를 공부하는 목적은 번뇌를 뿌리째 뽑는 지혜를 계발하는 것이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新 영성 향상법
제 2기 수련회원 모집 (스님, 재가자 환영)

- 회원대상 영성의 수준을 높여 生死一如의 경지에 살면서 더욱 높은 과학적 포교에 힘쓰려는 분. 특히 재발 방지를 원하는 암 환자.
- 수련기간 2014년 2월 5일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 하루 2시간씩(18~20시) 3개월간, 선착순 10명, 수련비 30만원(10만원*3개월)
- 수련내용 브라이언 박사의 스트레스 힐링(듣기명상) 실습. 영성의 중심기둥 세우기 실습 등.
- 학습내용 프랭크 킨슬러 박사의 순수자각과 유필링론 캔 윌버의 영성과 초월적 성장론 윤회 전생과 카르마의 법칙. 우주 생명관 영적 존재 화이트 이글과 실버버치의 영적 가르침 운명을 개척하는 유전자 활성화법 뇌에서 스트레스를 지우는 종합기법 아리타 히데호 교수의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법 감동뇌, 공감뇌를 활성화하는 매일매일의 생활법

「레이키」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레이키교육단체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010-8392-2557
www.reiki.co.kr / e-mail : reiki@reiki.co.kr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스님 신발 및 불자용 신발
스님, 불자여러분 신발 고르기 힘드셨죠?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마음으로 좋은 품질과 편안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시중의 거품은 빼고, 우수한 품질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15년 신발 산업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발이 편안합니다.
법복과 더욱 어울려 품격 있는 아름다움을 연출 할 것입니다.
※ 제품의 사이즈 교환, A/S까지 가능합니다.

<여명>

<자비>

<온누리>
판매가격 : ₩35,000원
(※5만원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
♣ 입금계좌 : 부산은행 061-01-040795-8 (예금주 : 박선영)
♣ 판매문의 : 경도상사 051) 338-5408 / 018-556-8911

2014년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6기 수강생 모집 안내문
그동안 제1기에서 제5기까지 전국에서 7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대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2 사찰에서 스님을 도와 신도 관리를 하는 종무보살
◆ 교육기간 : 2014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 수 강 료 : 6개월 교육 전기간 무료
◆ 개강일자 : 2014년 3월 4일(화요일) 오후 1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후로 자세한 안내문 보내드립니다)
◆ 책 자 : 책자는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이며, 책자대금은 별도입니다. 본회의 사주명리학 강의는 초보자라도 6개월간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적중률에서 일인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배우시고 나면 큰 보람을 느끼십니다.
성 지 관 음 회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
전화 : 031)768-8414~6 팩스 : 031)768-8413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깨진 악기처럼 침묵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평화의 열반에 이르러
더 이상 거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구합니다
(50대)
054)782-0659
011-9571-6559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각종 염불해 드립니다.
천도재, 구병시식,
불공, 시달림, 고사
010-8396-4338
무유스님

획기적인 생약개발
관절염 비염 각종통증
옻 안타는 사람
(옻나무+장수버섯)
옻 타는 사람 (함초.우슬 환)
35~40일분 8만원
황보건강 amesil.kr
010-5556-1526

빙의 기치료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법화경 금강경 탑다라니
범어 외.. 등 경전)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10-3677-2845 보성 합장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서울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인도 다람살라에
계시는 달라이라마
(성하님) 친견
및 수계 받으실
분을 모십니다
(스님 3명, 재가불자 5명)
010-6267-3435 일법스님

초중생 한문학당
1차 : 12월 30일 ~1월 4일
2차 : 1월 6일 ~ 1월 11일
새로운 나를 발견하자
안면암 홈페이지 템플스테이
'일정안내란'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안면암
041)673-2333
010-9407-0108

도량 깨끗하고 조용한 정진도량
내원암에서 평생 절에 의탁하면서
편히 노후까지 있을 신심있는
4~50대의 공양주 보살님을 속히 구함.
(단, 60대는 사절함. 정진하시는
노스님을 조용히 보필할 수 있는
불심있는 분을 선택함)
(공양주 방사 깨끗하고 맑고 따뜻한
방, 목욕실 겸하고 있음)
경북 예천 054)653-1180
내 원 암 010-6353-1180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관음춤·지전춤·살풀이·오행춤
반야용선춤·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산청, 대원사)
기도하면서 자원봉사
하실 분 모십니다
055)972-8068

공양주
일자리
구합니다
010-3787-0108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특수한 기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가족세우기 지도자과정 모집
대 상 : 가족세우기, 조직세우기, 지도자 원하신 분
자신의 가족관계 치유를 원하신 분 (조상,부모, 부부, 자녀)
성공, 번영, 풍요, 건강 관계치유를 원하신 분
명 상 : 깨어남코스와 인도명상 여행안내
네이버 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참조하세요
신청 및 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인연있는 분께
미륵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010-4630-800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길음동)
010-3774-4099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영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행자 인연
찾습니다
(남녀불문, 서울지역)
010-4586-4525

함께 사찰(절) 운영
하실 인연 (비구니,보살)
50~60대를
찾습니다 (충남 서산)
010-7223-9595
청연사 두봉 합장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학 인 모 집
치문반,사집반 매주 화,목 오후2시
서예, 선화 특강 매주 일요일 오후2시
대 상 : 종단관계없음, 누구나
개 강 : 2월 11일(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520호(토월복합상가)
055)262-2045. 010-3749-4553
유점사 불교전문강원 강주 세운 합장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람들은 흔히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그러나 사물의 본성은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다. 우리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가까이하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집착하는 마음(편견)을 떠나면 모든 존재는 깨끗하다.

- 대품반야경 -

사찰 (급)안내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창원시 진해구
- 바닷가 전망일품 입구 아파트 대단지
- 부지: 240평 주지실, 공양간
- 목조 법당: 24평, 목조 산신각 3평
- 가액: 5억 3천만원 ※홈페이지 사진열람

(급)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대전 계족산 황토길 마을
- 대지 200평 건물 60평
- 가액: 3억 6천만원
※홈페이지 사진열람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주소 http://cafe.daum.net/temple0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연산공인 중개사 사무소
직통 051-863-6622 (대표: 김의순)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만덕동, 다산타워 505호)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 법당50㎡, 요사채85㎡
- 스님실 삼성각있음
- 토지1,100m2
- 원주ic부근사찰임
- 스님 입적하시여양도함
- 양도금액2억9천만원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사찰전문)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4층 5층
- 보증금 : 2000만원
시설비 : 2000만원
월세 : 50만원
- 온천장 요지, 시설완비, 주인직

010-3836-6566

사찰(급)안내

- 도심속에 산사의 맛을 풍기는 사찰
- 위치 : 부산 사하구 관내
- 대지 215평
- 가액 : 6억 5천만원
- 은행융자 3억원 (절충가능)

010-6237-5964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생비량면
- 진주에서 15분거리 전망좋음
- 대웅전1채, 요사채
- 약 1000평
- 가액: 1억 5천만원
- 충분한 협의가능 합니다
- 금액 생각하시지 말고 문의 바랍니다

010-3586-8696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 5천
- 위치 : 서울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대표: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하실때는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3426-9393(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암자.토굴.포교원양도급히구함!!!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감만동
- 2층 건물 중 2층 (30평)
- 주택밀집지역
- 삼존불, 신중전, 칠성전
- 산신전은 별도로 모심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010-2503-389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재래시장 앞 버스정류장
- 2층 25평. 공양간 방 1
- 3층 25평, 법당(삼존불), 방 1,
- 옥상, 옥탑방 1
- 가액 : 보증금 1천원, 월 4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010-7139-556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부지 터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산 360번지
- 평수: 3,500평(오래된 금강송 소나무가 많음)
- 특징: 노적봉이 있는 좌청룡 우백호에 앞은 저수지요, 좌우는 큰 계곡물이 흐르는 백두대간 혈자리가 맺힌 곳
- 교통 : 동해바다 및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 1억 5천만원 (소나무 가격만 수억이 넘는 가치있는 땅)

010-3531-5562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127-15호)우로 36길38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동고성 IC 5분거리)
- 벽방산 인근 • 산세 수려한 부지
- 면적 : 5,500평
- 시설 : 미륵불상(전라도 화강암, 7M, 20톤)좌대(자연바위 약20평), 유실주 약 150그루• 건강상 급 안내 주택1동(약30평),창고1동(약40평)
- 양도가격 : 3억5천만원(시세가5억) (미륵불상포함), 융자 1억6천만원

010-9056-2451
010-6354-3800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 약 90평
- 시설완벽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010-8606-791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암남동
- 3층 중 2층
- 약 60평
- 위치, 시설, 환경 특 A급 (넓은 법당, 넓은 공양간, 방3, 샤워실)
- 보증금 :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700만원

010-5173-33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900만원(청동불상)

010-2251-3378

별장같은 사찰(급)안내

- 위치 : 충청도청 10분 도립공원 등산로
- 총평수 1020평 (대지 : 190평, 전 830평)
- 황토건물 50평(1,2층)
- 마당에는 450년된 큰나무. 오래된 돌담. 연못조경
- 옆 큰저수지, 자연경관최고.8대명당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9805-5528

별장같은 암자안내

- 전남 서남해안 바닷가
- 해수관음방생기도도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답사 후 결정

010-5370-5073

도심속의 암자(급)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학장동
- 독채건물, 인법당, 석가, 관음, 지장, 산신각, 거실, 주방, 창고, 마당, 세면장, 화장실2개
- 육십년 된 암자
- 버스정류소 40m 아파트 밀집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011-768-1355

포교원안내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45평
- 4층 건물 내 2층
- 최고요지 위치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9036-2131

사찰(급)안내

- 위치: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신월 2리 59번지) 1899-68번지
- 농가주택, 빌라 24평 4층 양도
- 가액: 4천 3백만원(절충)
- 방 3개, 거실, 욕실, 베란다
- 확장 이전관계로 오실 분만 연락

010-9787-550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미아동
- 2층 건물의 2층
- 법당, 주방, 방2칸
- 위치 좋고 조건도 좋으며
- 포교활동하기 좋은곳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300만원

010-2230-3575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계곡 접 해발 700m)
- 대지: 1815평 부지조성 완료 , 정동향
- 법당 목조 30평, 산신각 목조 7평
- 요사채 25평, 창고 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 사용
- 노인복지, 요양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13억

010-3403-3355

절 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소재 임야
- 낮은 구릉 3만평
- 3천여평 절터흔적 산재
- 약초재배 최적지
- 진입로 구비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345-9666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내이동
- 평수 50평
법당 25평, 방3개
- 보증금 1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시설완벽

010-2914-35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2층 건물
- 1층 요사채 35평, 2층 대법당 30평, 산신각 5평
- 법당, 산신각, 인등, 산신불, 관음불, 지장불, 영단 후불탱화(입체금탱화)
- 황토방 2, 주방 15평
- 조경시설, 과실수, 텃밭, 우물, 용궁
- 즉시법회가능, 집기 일절
- 가액: 4억 5천만원

010-4561-2149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팔공산 지장도량
- 종교용지 227평 3층건물 1층(50평) 후원 및 요사 2층(30평) 법당, 3층(20평)선방
- 목조산신각 1평
- 영옥 봉안 납골당
- 원불, 석등, 영구위패단
- 가액: 7억 5천만원

053-983-0152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신정 시장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종교용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가액: 8억 8천만원

010-3858-8335

사찰 기도터(급)안내

- 팔공산 갓바위 뒷편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 있고, 계곡물이 사계절 흐르는 소쿠리터임
- 논3,000평내 60평가옥1동 화장실 2칸짜리 1동
- 집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대지조성 완료
- 가액: 6억(상방 협의가 • 잘되면 5억까지도 가능)

011-9583-3107(철호스님)

신축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임실군 국립 회문산 천마봉 옥정호 섬진강 IC 입구
- 2012년 신축 한옥 법당 2동 (토지매입 3억, 건축비 2억 5천만원)
- 호남 8대 명당터, 전 + 토지 3천여평
- 전세 3천만원 5년 장기 임대 가능
- 종교시설완비, 부처님 3분 모셔져있음
- 추가법당 불사비 협의 인정해 드림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답사 후 결정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오금동
- 평수 : 45평(5층 중 4층)
- 삼존불, 칠성, 산신
- 방2, 학업상 급 안내 (꼭 방문후 결정)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8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문의 010-4138-5523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삶의 힌트

이츠키 히로유키 (일본 소설가)

〈2〉 즐기다

즐거움 찾아내는 삶… '즐거운 기' 발산 타인에 전염

일전에 요코야마 류이치 씨를 오랜만에 뵙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코야마 류이치 씨는 두말할 것도 없는 일본 만화계 최고의 원로입니다. 세간의 상식으로 말하면 요코야마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겠지요. 그의 대표작 〈후쿠짱〉은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작입니다.

요코야마 씨는 85세를 넘겼음에도 항상 수줍어하는 표정과 호기심과 장난기 가득한 눈빛 때문에 마주하면 늘 소년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년 같은' 이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분도 드물지 않을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체구는 작지만 시원시원한 걸음걸이, 나이에 걸맞지 않은 빠른 말투의 요코야마 씨는 언제나 활달하고 식도락을 즐기는데, 주량도 소싯적 못지않게 여전히 엄청납니다.

저는 줄곧 요코야마 씨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단순히 오래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코야마 씨를 동경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에는 100세 이상의 장수자가 560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장수는 드문 일이 아닌 셈이죠. 아니, 오히려 이 시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해 좋든 싫든 '장수할 수 밖에 없는'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이유는 요코야마 씨가 '매일을 즐겁게 사는 달인' 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명인' 이라고 하면 조금은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요코야마 씨에게는 '달인' 이나 '무엇이든 잘 한다' 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그는 언제나 털털하고, 초연하고, 즐기고 싶어하고, 결코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말이지요. 저처럼 버릇없는 후배에게도 친구처럼 솔직하게 대해줍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요코야마 씨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코야마 씨보다도 훨씬 오래 알고 지낸, 훌륭한 인품을 지닌 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요코야마 씨의 삶의 방식에 깊이 감화된 걸까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건 요코야마 씨가 언제나 '즐거운 듯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다' 고 부인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요코야마 씨 본인이 주변사람들에게 풍기는 '즐거운 듯한 기색' 을 저는 동경했던 것입니다.

요코야마 씨와 만나 웃고 떠들고 있으면 저는 신비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색' 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을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일단은 '즐거워 보이는 기의 흐름' 이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순진한 장난꾸러기처럼 눈동자를 빛내며 하는 이야기의 재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의 손짓, 몸짓을 통해 흘러나오는 '즐거워 보이는 기의 흐름' 을 저는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와 수다를 떨고 있는 사이에 저는 차츰 명랑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그의 활기가 저에게 전염되기라도 한 것처럼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세계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욱 감염력이 강한 파동입니다.

요코야마 씨가 지닌 '즐거움의 기' 가 마치 소리굽쇠처럼 공진해 주변으로 퍼지는 느낌은 정말이지 신비한 체험입니다.

언젠가 한번은 "한참 오래전 일인데……"라고 은밀한 비밀을 털어 놓듯 요코야마 씨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남의 집 담 너머로 꽃씨 뿌리는 사람

"가마쿠라 자택에서 역까지 걷는 그 시간이 너무 무료해서 뭔가 재미있는 게 없을까 생각했어. 그러다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 곧바로 여러 종류의 꽃씨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는 역을 오갈 때마다 길가의 멋진 저택 정원에 씨를 꺼내서 뿌렸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담장 너머로 몰래 말이야. 그랬더니 정원에서 채송화랑 해바라기 싹이 돋아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 거야. 얼마 후에는 진짜 예쁜 꽃이 피었지. 얼마나 재미있던지, 기분이 좋았어."

진부하지만 가마쿠라를 떠올리면 격조 높은 고급 저택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손질된 고풍스러운 정원 여기저기에 어느 순간 들꽃이 느닷없이 출현하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유쾌합니다. 저택의 정원사들도 틀림없이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을 것입니다.

"이것 봐, 나는 키가 작잖아. 그래서 가끔은 있는 힘껏 뛰어올라 담 너머로 씨앗을 던져야 했어. 누가 보면 어쩌나,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있는 힘껏 뿌렸지. 덕분에 역과 집을 오가는 길이 지루하지도 힘들지도 않았어. 어떻게 꽃이 필까, 집주인이 발견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 해도 흐뭇해져서 말이야."

꽃 도둑은 죄를 묻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남의 정원의 나뭇가지를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멋대로 꽃을 피우게 하는 게 풍류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도 즐거움을 스스로 찾아내는 요코야마 씨의 자세에 저도 모르게 웃으면서도 탄복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생관이나 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코야마 씨는 시코쿠 도사의 고치 출신입니다. 고치는 구로가네 히로시라든가 하라타이라 같은 인기 만화가가 배출된 곳으로 유명합니다. 인기 만화 〈푸상〉의 작가이자 〈황거 앞 광장〉 등 다수의 사회 만평으로 한 시대를 앞장섰던 요코야마 다이조 씨 역시 고치 출신입니다. 그는 요코야마 류이치 씨의 남동생이기도 하죠.

저는 작년에 도사의 고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 여성들의 엄청난 에너지를 실감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여성들을 일컬어 '하치킨' 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들은 술도 세고 부지런하며 달변가에



"몸상태 좋지 않아도 40여년간 병원 간 일 없어 '즐거운 기' 발산하는 사람 만나 그 '기' 를 나누어 받는게 치료법"

손재주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명랑하고 결단력이 있고 매사에 태평합니다. 그러나 제가 즐거운 '듯이' 라든가 즐거운 '듯한 기색' 이라는 식으로, 주의 깊게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비애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품은 근심도 있고, 또 혼자만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대 보라 두 두 눈의 빛깔/말하지 않으면 근심이 없는 듯하니"

옛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마도 선(禪) 스님의 말씀일 겁니다. '불어사무수(不語似無愁)' 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기조(基調) 저음(低音)입니다. 한국의 '한(恨)' , 러시아의 '토스카' 가 이와 유사한 색조를 띤 어휘입니다. 메이지 시대의 문학가 후타바테이 시메이는 '토스카' 를 '울적함' 이라고 번역했는데, 의미를 너무 단순하게 파악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보다는 '암수(暗愁)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1889년, 당시 22세의 청년 나쓰메 소세키는 보소 여행 중 쓴 기행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해안의 달 검고 암수 생겨나니"

'암수' 란 단어는 최근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일본인은 헤이안 시대부터 '암수' 라는 말을 즐겨 썼으며, 어원의 본국인 중국 이상으로 사랑해왔다고 합니다. 고지마 노리유키 선생의 〈말의 무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각각 '암수' 를 품고 사는 게 아닐까요. 혹시 마음에 무겁고 깊은 슬픔이나 근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수록 반대로 '즐거움' 을 강하게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만사태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산다' 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생로병사의 네 글자에 '고(苦)' 를 덧붙인 것은 중국의 승려라고 합니다만, 고대 인도에서는 '고' 의 의미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인생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많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가정에 태어날까? 어떤 피부색이나 머리색을 갖고 태어날까? 음악적 재능이 풍부할까, 스포츠에 적합할까? 의지가 강한 아이일까, 아니면 타고난 병약한 타입일까, 어느 것도 생각대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苦'

유전자 하나만 봐도 인간의 노력과 향상심으로 '생각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까? 어떤 형제 자매를 갖게 될까? 체형이나 성격은 어떨까? 생각할수록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이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이' 입니다.

태어난 후에도 문제는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산다' 는 것은 그 자체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이니까요. '병' 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료 기술이 진보했다고 하지만 병을 생각대로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 도 마찬가지죠. 하물며 '죽음' 은 어떻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의 첫 번째 목록일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죽는 것조차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랫동안 친숙해진 자기 집 거실에서 조용히 정원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제는 좀처럼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좁고 지저분한 병실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고, 최후에는 여러 기구나 인공호흡기 등을 매단 채 생사를 수십 번이나 넘나들다 결국 죽음에 이르는 광경이 지금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에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옛 인도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기본적인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이 결코 그 네 가지만은 아닙니다. 천재(天災)의 무게를 지금 우리들은 온몸으로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사람이 부지런히 쌓아 올린 생활이란 것이 사실은 너무도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사람의 생명 역시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속에 초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습니다.

몇 번이나 썼지만, 야나기타 구니오 씨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지친 마음을 달래고 따뜻하게 하는 것에 문예의 본질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즐거움' 을 찾게 됩니다. 그 수단은 다양합니다. 사치스럽고 호사로운 것을 즐기기도 하고, 스케치를 하거나 하이쿠나 센류를 짓는 우아한 즐거움도 찾습니다. 경마장에서 마권을 사지 않은 채 그저 말이 달리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라오케에 푹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온천, 여행, 스키투어, 쇼핑, 독서, 연극이나 콘서트에 가는 것도 모두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활기를 불어넣고 위로하려는 인간의 애절한 본능이 작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신란 성인은 어딘지 딱딱한 인상을 풍기지만, 사실은 상당히 인간미가 넘치고 세정(世情)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전초〉라는 오래된 책 속에 다음과 같은 신란의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술은 망우(忘憂)의 또 다른 이름이니, 이것을 권하고 웃는 만큼 위로받는다"

예로부터 술은 근심을 잊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술은 근심을 없애는 빗자루' 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술은 눈물인가 한숨인가 마음의 시름을 버리는 곳' 이라는 고가 가사도, 미소라 히바리의 '슬픈 술' 멜로디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말 즐거운 기분을 갖기 위해서는 술의 힘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무리이지 않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즐거운 기' 를 발산하는 '즐거움의 달인' 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위에 풍기는 '즐거운 기' 를 샤워하듯이 전신에 뒤집어쓰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슬픔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전염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기' 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굳고 모공까지 막혀버려, 모처럼의 '즐거운 기' 가 전해지려야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1952년에 수험 때문에 뮌트겐 촬영을 한 이후 치과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약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정식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재작년 가을에 생각지도 못한 하혈을 했을 때도 고집을 부려 제대로 된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묘하게 이명이 생겨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복통이나 오십견으로 고통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일전에는 편도선이 부어서 40도 가까이 고열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방치하고 지내왔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큰 병을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병원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때로 요코야마 류이치 씨 같은 '즐거움의 기' 를 발산하는 사람과 만나 그 '기' 를 나누어 받는 게 바로 저만의 치료법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이츠키 히로유키가 쓴 〈삶의 힌트〉(지식여행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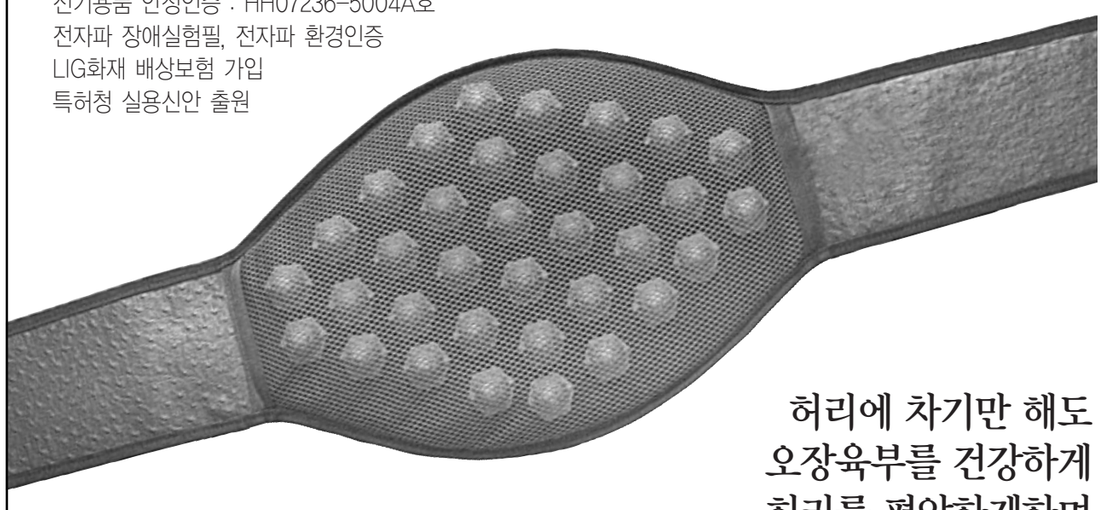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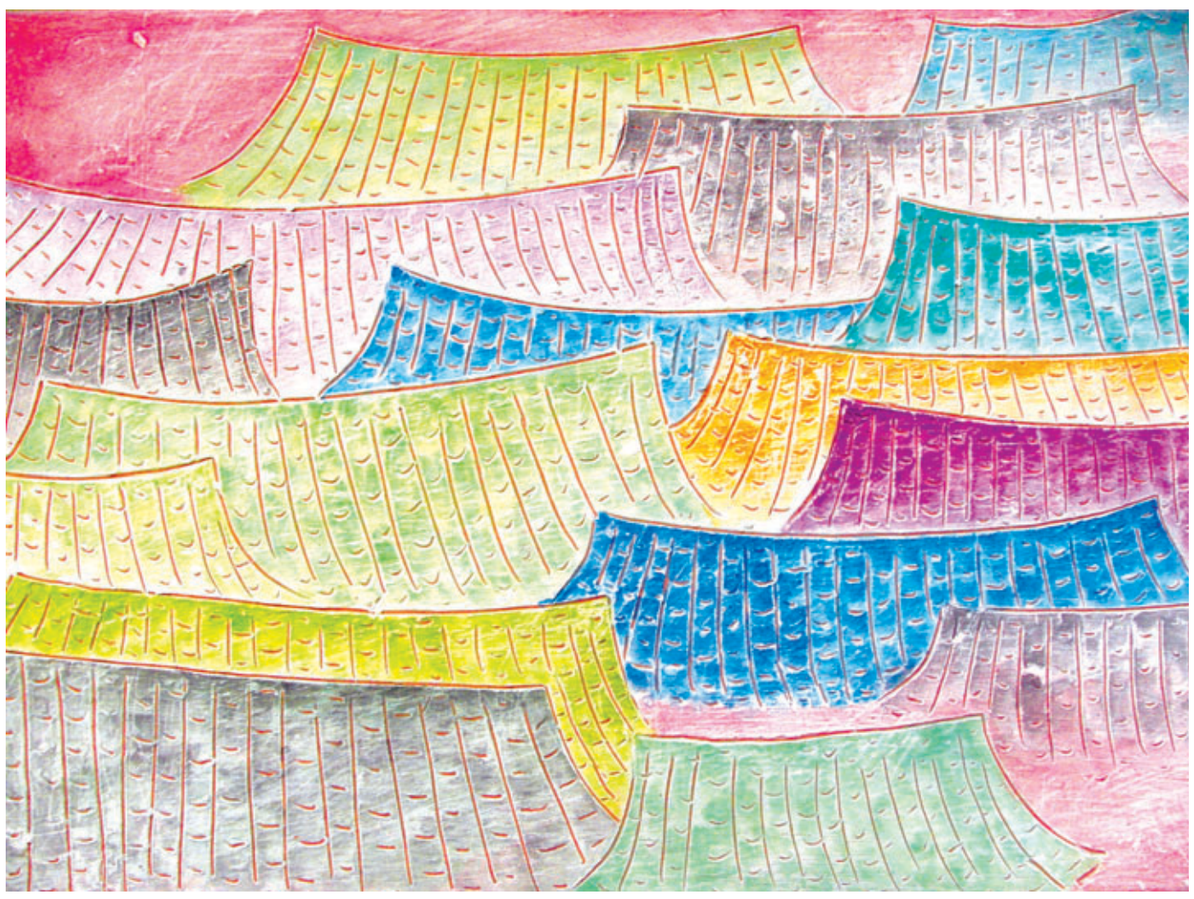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갤러리 색즉시공



성도절 아침에

똑 또르르르...
절집 지붕 사이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진의 소리
끊이질 않습니다.

딱 딱 딱...
어간문사이로
하루종일
죽비의 소리
끊이질 않습니다.

지심귀명례..
지심귀명례...
매일 마다
참회의 소리
끊이질 않습니다.
……

당신이 걷고 또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깨달음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당부하신 말씀
"어서 어서 정진 하거라!"
……
예!.
합장 합니다.



그림 · 글 희상 스님

어머님 49재에 올린 편지

"10여년 병상 생활 … '와선' 이었고 '묵언정진' 이셨습니다"

참회편지–참회하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삶은 가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자식 사랑은 더 애틋하셨지요. 그 사랑과 희생을 당연한 듯 받아온 우리 자식들.

말대꾸도 잘하고, 골도 잘 부리고, 잘 따지고, 그럴 때마다 아무리 자식이지만 얼마나 섭섭하시고 속상하셨을까. 죄송한 마음 한량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져누워계실 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정희가 말 안 듣고 신경질 부리면 많이 속상하셨죠.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실 거죠?"

이 말씀을 드릴 때 마다 엄마는 빙그레 미소 지으시며 제 손을 잡거나 제 얼굴을 만지셨지요. 늦게라도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비는 딸이 기특하셨나봅니다. 아니면 부모 자식 사이에 그게 뭐 용서하고 말고 할 일이냐는 듯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으로 여러 번 빌고 또 빌었지만 두고두고 그 불효가 가슴 아픕니다. 제가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정희 사랑하시죠?"하면 누우셔서 끄덕 끄덕 하시던 우리 어머니. 말이 필요 없는 그 말을 저는 아주 자주했습니다. 그때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여 주셨지요.

어머니 친정에 중풍 가족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리 건강을 챙겨 드리지 못하고, 예방 못해 드린 것이 한없이 후회스럽습니다. 제 일에만 몰두한 제가 밉고 마음이 아픕니다.

몸져누우신 후에야 애썼지만 고쳐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문을 두드렸지만, 그래도 좀 더 고명한 전문 의사를 만났거나 양한방 협진보다 양방을 먼저 선택 했으면 초기에 호전 되셨을 지도 모른다는 후회 때문에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았습니다. 남들은 당신 딸들을 효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말 듣기가 민망합니다. 병고에 시달리지 않으시도록 잘 모시지 못한 딸들을 어찌 효녀라 하겠습니까. 용서하옵소서.

그런데도 당신은 간병하는 딸들에게 자주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톱만 깎아 드려도 "고마워"라고 하셨고, 동생이 머리를 감겨 드리거나 목욕시켜 드리면 역시 "고마워, 미안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렸죠. "엄마, 엄마가 우리를 낳아서 길러 주신 은혜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어찌 고맙고 미안한 일이겠습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일이지요. 어머니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어머니, 만약 인연 있어 다시 뵙게 되면 참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영원히 우리 가슴에 살아 계실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생법인 하옵소서.

감사편지–감사하옵니다

엄마, 어제 부산의 대원성 언니가 전화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운 목소리 주셔서 방송도 잘하고, 부처님 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머리와 불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49재날 어머니께 꼭 바치세요."

엄마, 당신의 고운 음성을 닮아 두 딸 모두 목소리가 곱습니다. 감사드려요. 그리고 부처님 일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 또 감사 올립니다. 엄마,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일러 주시는 삶으로 회향하셨습니다.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가 좋으셔서 맛있는 음식을 동네 사람들과 자주 나누셨는데, 동생이 꼭 닮았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우체부 아저씨에게 꼭 선물을 주시고, 정화조 청소부 아저씨들에게도 막걸리 값을 얹어주신 그 일을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가를 극락 정토로 인도하는 장엄물이 걸린 북한산 삼천사 대웅전.

10여 년간 병상에 계신 것은 누워서 하신 참선 '와선' 이었고, 뒷날 말씀이 어눌해지셔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신 것은 '묵언정진' 이셨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제가 여쭈어 보면 "아무 생각도 안 해"라고 하셨죠. 당신은 무념무상의 경지를 병상에서 닦으셨습니다. 어느 생에서 부터 내려온 업장을 모두 소멸하시고 한편으론 큰 경지에 드는 수행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는 '너희들은 건강을 미리 미리 챙기라' 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5살된 당신의 외증손자 현진이는 기어다닐때 부터 노할머니 침대에 매달렸고, 그때마다 엄마는 웃으셨죠.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부터는 아끼는 장난감을 노할머니 침상에 올려놓더니, 어머니께서 몸 바꾸시는 다비장에서도 유리창 앞에 세워놓은 영정사진 옆에 장난감 상자를 슬며시 올려놓았답니다. 그 현진이가 오늘 "노할머니 하고 아주 이별하는 날"이라는 제 엄마의 말을 듣고 어린이집 개학식에 안가고 할머니께 절 한다고 여기 왔습니다. 현진이 절 받으시고 생시처럼 웃으세요.

"미리 건강을 못 챙겨드린 자식들
효녀 소리 들을때 마다 민망했어요"

어머니, 반혼재와 초재부터 오늘 49재까지 삼천사 성운 큰스님께서 특별히 마음 쓰셨습니다. 동출 스님 그리고 여러 스님들과 사중의 대중들께서도 정성을 다하셨고요.

오늘 어머니께서 아미타부처님 계신 곳 서방정토 구품 연화좌에 오르셔서 왕생극락 하시길 스님들과 친지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축원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연화좌에 오르신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하오나 어머니, 만약 그곳이 심심하시거나 사바의 중생을 거두고 싶으시면 유복하게 다시 오셔서 대학자도 되시고, 대 보살님도 되십시오.

당신의 권속들은 어머님께서 보여주고 일러주신 가르침대로 가족은 물론 이웃과도 화목하게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무생법인 왕생극락 하옵소서.

불기 2558년 1월 2일 (음력 계사년 섣달 초이틀)
금강경 사경
공양 발원재자
큰딸 최정희 합장 올립니다.

삼천사에서는 칠칠재를 지내는 동안 유족이 금강경을 사경하고 영가에게 참회와 감사의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49재를 모시는 날 사경과 편지는 영정 옆 상단에 올리고 재가 끝날 즈음 유족이 편지를 낭송했습니다. 영가와 유족이 마음의 대화를 하는 동안 동참 친지들은 숙연했고 모두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경과 편지는 의식대로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날 참석했던 분들 중 편지를 다시 듣고 싶다는 청이 있어 초안으로 쓴 편지를 다시 정리하여 지면에 게재하면서 삼천사의 특별한 재의식을 소개합니다.

한 말씀 더 올립니다. 49재를 마친 날 밤, 5살 현진이가 말했습니다. "노할머니는 별이 돼서 보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별이 안 떴지" 식구들은 또 마음이 '찡'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할머니와 현진이는 어느 생에서 어떤 인연이었을까.

최정희 본지 편집이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3, 64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간당론 (看堂論)
이와 같은 도리에서 적시적소에 맞게 주장자를 쓴다면 반드시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한 번을 쳐야 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 두 번을 쳐야 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와 어떤 말끝에 치는 주장자냐에 따라서 세 번을 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한 법리를 모르고 주장자를 친다면 눈먼 주장자라 하는 것이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4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4권 출간! 운문 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2종 64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 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 보였다.

031-534-3373 바로보인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국 내 산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적하수오 된 장' '적하수오 고추장'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 하수오 된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고추장 : 1 kg 5만원
• 하수오 건조분말 판매 개시(kg당)

하수오 된장, 하수오 고추장은 청도 서룡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하수오로 만듭니다.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인터넷 검색 : 하수오 남서



대행 스님

의심하지 말고 자기 원소에 그냥 믿고 놓아야 합니다

천도는 마음으로 마음을 녹이는 거라는데

문)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촛불재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느 스님께 절에서 천도재를 모실 때 스님들께서 영가를 보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조상 영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마음을 녹여 주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천도하는 조상의 모습을 못 보면서 어떻게 재사를 모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옛날에 이런 점이 있었죠. 어느 분이 재사를 지내러 왔는데, 처음 오시는 분인데 그 난리 때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부모님이. 그랬는데 내가 왜 부모를 담요에다 이렇게 싸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묻었느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때 난리 때에 그 담요을 깔고 돌아가셔서 담요 깐 채 그냥 말아서 치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잘못 됐습니까?" 하고 물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죽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보는 사람이라면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참 공경이라기보다, 은혜라기보다 그건 떠나서라도 좀 잘 해서 묻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렇겠습니다." 그러고선 인제 말이 없었어요.

고다음에 어느 친척 분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재사를 지내러 왔는데, 법당에 이 조상이 올라가시는데 말이에요, 발뒤꿈치에 이만한 솜 한 덩어리가 달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봤어요, 솜 한 덩어리를. 그래서 자세히 보고는 다 지내고 난 뒤에 인제 그랬어요. 왜 조상님 발뒤꿈치의 솜은 떼지도 않고 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발뒤꿈치에 부스럼이 나서 아주 저거 해서 떼지 못하고는 그냥 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떼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소독약으로 저거 해 가지고 딱 뭘로 붙여 놓지, 어떻게 그렇게 흉하게 그렇게 했느냐 이러고 했더니만 너무도 기가 막혀 해요. "그거를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봤다고 하는 게 옳겠습니까, 봤어도 보지 않은 것처럼 하고 그냥 떼 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런 분들이 더러 많죠. 6대조 할아버지라든가 5대조 할아버지라든가 증조할아버지라든가 그 할아버지가 할 일을 못해서 태어날 때 그 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수가 있죠. 그 집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 모습을 아주 닮아서 그냥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양면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인연이 된 마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낼 때에 '그 본다 하더라도 봤다고 하지 마라.' 한 뜻이 그런 연고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했던 거고 또 그런 말을 묻걸랑은 " '마음으로 연결이 돼서 조상님들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하거라." 이런 얘기를 한 예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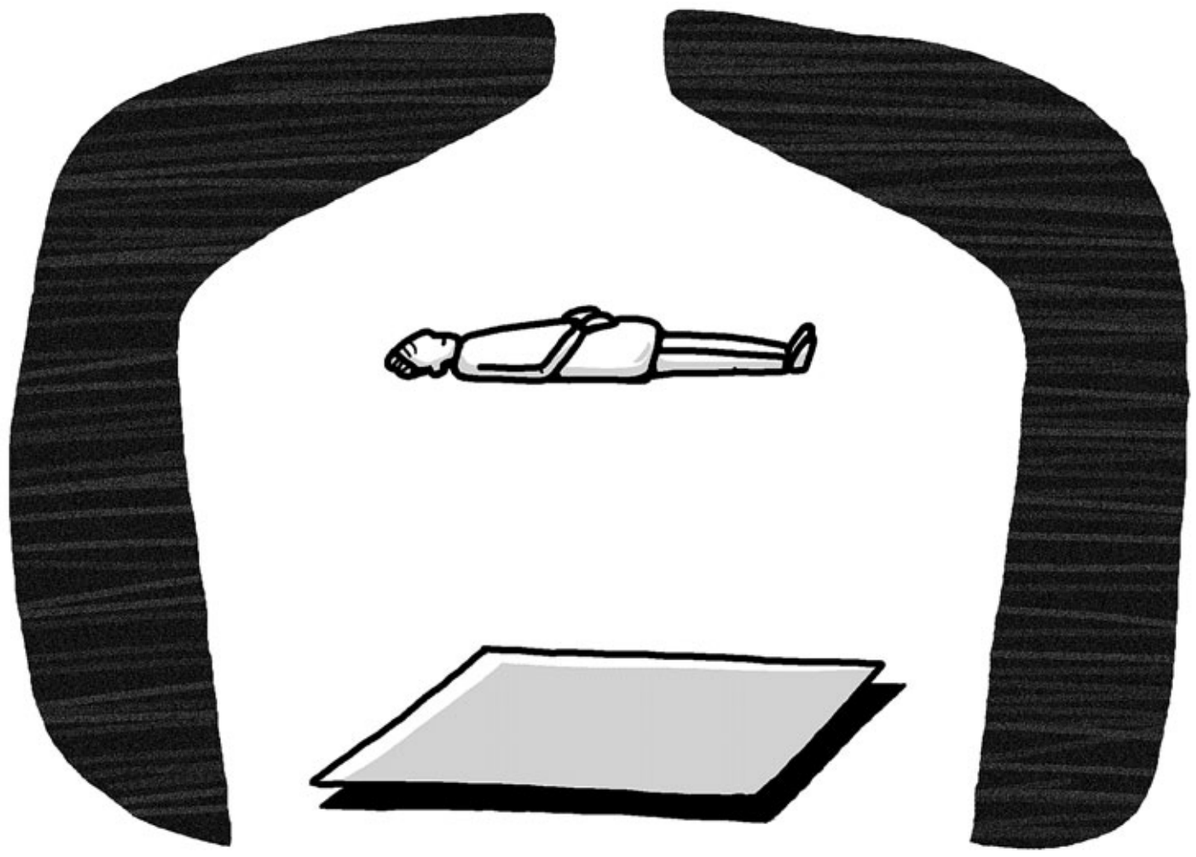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느 땐가 인제 여기 스님네들이 안 들어왔을 때 그전 얘깁니다만,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조상님이 돌아가 총에 맞아 죽었나 봐요. 알지도 못하는 조상인데 총에 맞아서 피를 줄줄줄 흘리고 이 옷이 뭐 아주 말도 못해요. 줄줄 흘리고 그냥 들어와요. 그런 거 만약에 이 중이 모자란다면 그런 걸 보고 그냥 깨끗이 해 드릴 수 없다면 문제가 크죠. 그런 걸 깨끗이 입혀 드리고 그런 걸 다 닦아 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는 이 중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 중들의 책임인 것이 뭐냐 하면 '함이 없이 하라. 응신이 된다 하더라도 응신으로서 함이 없이 하라.' 이게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분의 조상님, 저 천도시킨 그분의 꿈에 "참 고맙다. 나는 이렇게 잘 입고 목욕하고 이렇게 인제는 아주 세단차를 타고 간다. 참 고맙다. 잘 살거라." 하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총에 맞으셔서 그랬는데 어느 때에 그랬느냐 하니깐 6 · 25 초기에 그랬답니다. 묶여서 그냥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씻어 낼 수 없다면, 이 지금 마음공부 하는 분들이 왜 그 공부를 해야 하느냐. 그거를 씻어 낼 수 없다면 이 생시에 그냥 곤욕을 받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데서 구정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데서 구정물이 들어와서 진탕 만탕이 된다면 그 고통을 산 사람들이 그냥 받습니다. 그 백지장 하나 사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하시라. 놓으라. 아주 믿고 놓으시라. 입력이 돼서 그러니까 그 입력을 없애야만 되니까 그냥 의심하지 말고 놓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을 하고 또 의심 안 하고 했다가 또 의심을 하고 또 의심…. 그러면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이게 그냥 망가지죠.

어떤 분은 그 임신을 해서도 아주 어려운 집이죠. "스님, 병원에 가니까 기형아라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형아가 무슨 기형아야? 기형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관해." 그랬어요. 그 말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고 쉽죠. 근데 그 일을 하는 데도 간단합니다. 간단한데도 그게 그만큼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자기를 만든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일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한 자기가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고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런 공부를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알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만법이 이렇게 찰나찰나 이렇게 들이고 낼 수 있었을까. 이런 걸 전부 알았을까. 이 한 지구 안에서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거를 그 나라에서 그래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개선돼 나가죠. 그래서 생김생김이가 그 유달리 참 보기 흉하게 생긴 분들도 저 외국에 보면은 많이 있습디다.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래도 세 번 탄생을 했다가 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고르게 태어나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상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그때에 왜 그것을 떼 주지 않았느냐, 왜 또 그렇게 저 담요에다 말아서 그냥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왜 그 방바닥에 그냥 그 담요가 타서 죽게 만들었느냐, 언제 돌아가셨기에 피를 그렇게 흘리고 총에 맞았느냐. 이게 물은 것이 그 후의 생각에 '아이고, 그걸 차라리 내가 안 물었더라면….' 이런 후회감이 들더군요. 아는 분에게 그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모르는 분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좀 문제가 야릇하게 아는 사람으로 고립되게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알면서도 함이 없이 해라, 앎이 없이 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함께 살던 분들은 그냥 조상들의 상호를 알 수 있으나 위 조상들은 모르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보는 것도, 또 어디서 온 것도, 남의 마음도, 가고 옴도, 듣는 것도 모든 거를 거기다가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놓고 응신으로서 응용하라. 보는 거를 본다 하지 마라. 그건 도가 아니니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용할 때 이거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욕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차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29면에서 계속

는 항상 여러 스님네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봐도 본 사이 없이 봐라. 해도 하는 사이 없이 하라. 가고 옴이 있더라도 가고 온다 말하지 말고 걸림 없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이 모르는 분들은, 아는 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 말에 꼭지를 뭅니다. 그래서 잘못 빗나가기가 아주 쉽기 때문입니다.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문)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아직도 걸리는 게 많습니다.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 우리가 내 한 몸뚱이 나를 지팡이에다 걸고 돌아갈 때에 얼마나 힘겨운 그 고통이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생에 한 철 나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세세생생에 자꾸 나고 들고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괴로우니까 우리 한 생에서 그냥 벗어나게 합시다.

그러면은 내 몸과 가정, 또는 가정에서 사회, 사회에서 이 세계, 세계에서 우주, 우주에서 전 삼천대천세계로 우리는 전부 둘이 아님을 알게 되고 직결돼 있음을 알게 되고, 전부 가설이 돼서 돌아감을 알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게끔 돼야 됩니다. 우리 몸과 가정을 이렇게 타파하고 돌아가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런데 정말 어떠한 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잘하죠. 비가 와도, 비가 안 와야만이 모든 식구가 살겠다 이럴 때 비를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핼리 혜성이나 어떠한 유성이나 그 모든 것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돌아가는 것도 질서를 지키게 할 수도 있고요. 달마 대사가 구렁이를 갖다 끌어다가 물에 집어넣고 딴 길로 가게 하고서 그 구렁이의 무명을 벗기고 또한 사람이 다니는 길에 그렇게 걸리지 않게끔 해 주고,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걸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실생활입니다. 실생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기가 막힌 민족입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서 이리저리,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 발길 저 발길에 채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나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정신대다 뭐다 하고 끌고 간다고 하고, 그때 한창 그랬으니까요, 우리 때는요. 토마토 하나를 얻어먹기 위해서 어떻게 저거 하면 그저 발길로 차서 밟아 버리고 이런 시대니까요.

여러분은 아주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몸과 내 가정, 내 사회, 내 국가 이것만이라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면 세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만 잡습니까? 우주도 잡죠. 과학자들은 무슨 태양이다, 은하계다, 또는 지구가 어떻게 날로 잘못돼 가고 또는 태양계도 축소가 되고, 또는 뭐 타 버리고 이런다는 말들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런 것도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건. 뭐 종말이 온다, 어떤 종교에선 또 그러고 야단들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올려놓는 것도 우리 마음이요, 내려놓는 것도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틀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심력을 기르고 체험을 하고 실험을 통하고, 이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위에 가만히 보면요,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병원에 가면 병원 문이 그냥 미어져요. 이 가정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에서 이런 것만이라도 타파해 나갈 수 있고, 그 배신하는 거 사랑으로 엮어 줄 수 있는 그런 그 타파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내 한 눈이요, 여러분의 귀가 내 한 귀요, 내 몸이요, 내 자리인 것입니다. 삼천 년 전의 부처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내가 미약하고, 내가 업이 많고, 내가 죄가 있고, 나는 모른다, 이러한 약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깡단 있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것이 바로 믿을 만하다. 허공을 믿을 수도 없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고, 중의 고깃덩어릴 믿을 수도 없다. 난, 이분이 이렇게 마음의 도리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내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난 내 주인공! 내 주인공, 개별적인 내 주인공이 아니라 스님, 일체 제불, 일체 중생들이 다 합한 한마음의 그 주인공, 이것만이 난 믿을 게 있다.' 하고 나가세요.

견성 못해도 함 없는 행을 할 수 있는지

문) 우리가 견성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 주인공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함이 없는 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 그렇죠. 우리 생활이 도예요, 생활이. 딴데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고 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릴 버리고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처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도라는 이름도 우리와 둘이 아니고 그냥 평전한 생활에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도를 깨쳤다 깨치지 못했다 이거를 뛰어넘으세요. 이거를 버리고 뛰어넘으세요. 버리라니깐 아예 그냥 저 개천에다 꼬라박지 마시고 자기 원소에다가, 자기 주인공에다가 그냥 놔 버리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도예요. 별다르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남 원망 안 하고 실질적으로 남을 괴롭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 말 할 거 없이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하시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존경하고, 이렇게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존경하시란 말입니다. 나쁘든지 좋든지 존경하란 말입니다. 무슨 좋은 사람만 존경하고 나쁜 사람은 존경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생명이 있다 하면은 존경하란 얘깁니다. 존경하게 되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또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화할 테고 찰나찰나 바뀌지니까요. 그걸 한번 응용해 보시면은, 이게 사람 마음이 모습은 그냥 놔두고도 마음이 뭐한 찰나에 다른 혹성에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관을 한번 지어서 잘해 보세요. 진짜로 믿고. 그러면 자기 주인공이 때로는 보디가드가 되고 때로는 지장이 되고 때로는 칠성이 되고, 때로는 허공신이 되고 때로는 용신이 되고, 그냥 당신이 필요한 대로 돌아가서 화하니까요. 이 소리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잘 들어서 행하신다면 도인 아닌 도인으로, 알지 못하지만 행은 도인의 행으로서 살게 된다면 그냥 도인이 되는 거죠, 뭐. 머리 안 깎았다고 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깐 이 머리 깎는 것은 우리가 입산할 때에 머리 깎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그저 덧없이 그냥 이렇게 자라는 풀들, 이거 깎아 버리고 원 하나만 남기려고 이렇게 머리 깎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깎고 나면은 뭘 합니까. 깎고 나면은 또 자랍니다.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이 깎고 나면은 또 자란다. 또 자라면 마찬가지가 되는데 또 자라도 나지 않는, 머리도 나지 않고도 남이 있다면, 그래서 함이 없이 하고, 또 머리 깎지 않으면서도 깎고, 깎으면서도 깎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선사들이 이 산에서 수염 깎으려야 깎을 수도 별로 없고 머리 깎으려야 별로 깎을 수도 없고, 형편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른 겁니다, 멋으로 기른 게 아니라.

그러니깐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남을 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을 욕을 하는 것은 그 이해를 못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기 차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은 공신이다. 부처님이 만 개라도 일불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깐 어떠한 신이든지 그저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이렇게 핀 거 보면은 좋죠? 보기 좋죠? 이 우담바라 꽃이라고 하는, 이 연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그렇게 뒀느냐?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렇게 그 못지않게 아름다우니깐 바깥으로 내서 방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꽃입니다, 그게. 마음의 꽃. 그래서 우리가 행을 잘 하시면은 이 꽃이 날아다니면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꽃이 뭡니까. 그냥 보살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허공으로 다니면서 찰나찰나 행하신다. 함이 없이 하신다 이겁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다투기만 해요

문) 제사나 명절 때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서로 웃음이 나고 화목하면 좋겠는데 아버지 형제들이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투니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한식구끼리 화목하게 지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답) 만날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 한식구라도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죠. 모두 네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 탓은 하나도 없고요.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아갈 때가 많죠. 근데 따지고 보면 각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남의 탓이 하나도 없게 되죠. 잘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찰나찰나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이 있이 사는 겁니까?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함이 없이 살고요. 그러니깐 모두가 공했다고 했죠.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이렇게 살고 이렇다는 게 하나도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기 때문에 함이 없어요.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고 사시라 이렇게 말했던 것도 여러분이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이거를 원망하고 저걸 원망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느라고 사는 재미가 없이 살아요. 사람이 어디 사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더라도 저 건너에 산이 보이면은 내 정원으로 생각되고 내가 웃고 거길 갈 수 있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소리 하면 좀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겠지만 어떤 선지식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니깐 다리가 몹시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다 다릴 떼어 놓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갔더니 얼마 있다가 깨어나시라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나 보다 그러고 얼른 와서 자기 몸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깐 다 됐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픈 걸 면했답니다.

그냥 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경험을 해 보지 않고는 이런 소리 못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말로 새록새록이 다 하리까. 사람 사는 데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삶이 있다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몇 마디로 할 수가 없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죠. 귀정지어 놓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닿다가도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뗏목이 이렇게 걸쳐 있으면 그냥 한다 안 한다도 없이 그거 치우고 갈 겁니다.

그래 부처님의, 즉 말하자면 마음 법은 보살의 응신이 대신하고 있죠. 그런데 보살의 응신으로서의 하는 법은 이렇다 저렇다, 이건 아주 큰 법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통신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림하면서 결정짓는 건 결정짓지 않고 그냥 함이 없이 하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하시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구정물 들어오는 것도 맑은 물 들어오는 것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물로 바꿔 쓰시라고 말씀드리죠.

이것을 어떻게 자세히 말을 해야만 알기가 쉽겠습니까. 아무리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놓고 여러분한테 얘길 해도 말이니까 그게 단정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몇 도나 되는지 얼마나 찬지 뜨거운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맛을 봐야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하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구정물 들어오는 것도 맑은 물 들어오는 것도 탓하지 말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물로 바꿔 써라.

KS정품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연등전선 전문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KS정품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Ø



방수전선-22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1.5m / 6cm연등

방수전선-25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2.5m / 8cm연등

방수전선-30cm
할인가 65,000원 (5줄이상)
정 가 8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15m / 8cm연등



방수전선-50cm
할인가 70,000원 (5줄이상)
정 가 9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25m / 13cm연등

방수전선-1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50구
• 길이 : 50m / 야외용

방수전선-2m
할인가 90,000원 (5줄이상)
정 가 100,000원
• 방수전선 1줄 : 25구
• 길이 : 50m / 야외용



한지입춘대길(大/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 / 9×14㎝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 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 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금강경탑다라니
할인가 160원(600개 이상)
정 가 2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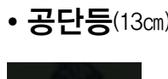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 등 할인가

• 바림등(6㎝) @2,700원 (50개이상)
• 바림등(8㎝) @3,200원 (50개이상)
• 바림등(10.5㎝) @6,000원 (24개이상)
• 바림등(13㎝) @13,000원 (12개이상)
• 바림등(20㎝) @35,000원 (4개이상)
• 바림등(30㎝) @80,000원

• 공단등(6㎝) @2,700원 (50개이상)
• 공단등(8㎝) @3,200원 (50개이상)
• 공단등(10.5㎝) @6,000원 (24개이상)
• 공단등(13㎝) @13,000원 (12개이상)

• 비닐만월등(중국100개) 150,000원
• 비닐만월등(국산100개) 170,000원
• 영가만월등(100개) 200,000원
• 장 만 월 등(100개) 200,000원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
• 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등철사(100개)
6㎝ 75,000원 / 8㎝ 80,000원
10.5㎝ 85,000원 / 12㎝ 90,000원



국산 LED전구
100,000원
1BOX : 50개
색상 : 촛불색/주광색



안전 인증 제품

전구(10W/5W)
@ 250원/@ 350원
1BOX: 100개
제조원: 베트남



연잎(일반)/바림엽잎
6,000원/ 8,000원
연분홍/진분홍/노랑/주황/빨강/녹색/흰색



집게부착 / PVC등표(100개)
20,000원 / 12,000원
크기: 8.5×21cm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515-8888-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 강태규]

그냥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법현 스님
태고종 열린선원장
前 태고종 부원장

미국 어느 주 시골마을에 사는 농부가 있었다. 어디나 마찬가지이지만 그곳에 사는 농부에게도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 농사짓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지만 하늘의 해도, 구름도 공중의 바람도 농사철에 맞게 오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느 해는 너무 뜨거워서 농작물이 말라버렸는가 하면, 어느 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절어버렸다. 그럭저럭 잘 넘겨서 소출이 많았는데도 상인들과의 판매 담판에서 묘한 거래를 하고 하니 손에 들어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아 마음이 즐겁지 않았다.

주말이면 시내에 나가 술도 마시고 놀이도 하고 들어오면서 마음을 푸는 한편 복권을 사는 취미를 붙였다. 미국은 주의 숫자가 많고 인구도 많아서 한 번 당첨 되면 세계를 호화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즐기며 살 수 있는 많은 돈이 걸려있어서 매력 있는 상품이었다.

그런데다가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회에 얹어주는 방식이어서 그 때에 당첨되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에 아주 힘든 많은 금액을 받는 복권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 복권 추첨에서 이 농부가 당첨되었다. 한 번 건너 뛴 복권이라 2억 달러가 당첨되었다. 요즈음 환율로는 20억 달러도 넘는 그야말로 거금이었다.

당시에는 직접 확인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시골뜨기가 갑자기 많은 돈을 당첨 받았다고 말해주

"신년 대박을 노리고
복권에 매진하는 이여
선행을 쌓아야 복이 된다"

면 기절 할 수 도 있다고 판단한 위원회에서 한 가지 방편을 마련했다. 농부가 사는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인 목사에게 잘 설명해서 놀라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다.

부탁을 받은 목사는 "그 정도야 수십 년 설교를 해 온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지요. 헌금도 좀 받아내고 말이요."하면서 농부에게 갔다. 그래서 일부러 아닌 듯이 말했다. "친구여, 혹시 2억 달러의 복권에 당첨되면 어찌하겠는가?"

그 말을 들은 농부는 시덥지 않게 생각하여 "나는 복도 없는데 만일 그렇게 당첨되면 한 1억 달러 뚝 떼어서 목사님께 드리지요, 뭘?"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큰일이 일어났다. 정작 그 말을 들은 목사가 기절해버린 것이다. 농부가 사는 지역이 신을 믿는 종교지역이라 그렇지 자신을 찾아가는 종교인 불교지역이라면 스님이 기절했을 지도 모르는 일이 아닐까?

느닷없이 복권이야기를 꺼내서 어리둥절했을 지도 모르겠다. 요즈음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생산 활동과 분배에 관한 어려움이 겹쳐서 그런지 로또 등 복권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 게다가 마음 찾는 불자들까지 줄서서 복권 사는 대열에 합류하고, 나아가 산속의 수행자들까지 기웃거린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까지 들린다. 재미삼아 한두 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보아 심각한 수준인가보다.

정선의 카지노에까지 들락거린다는 보도가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의 병증임에 틀림없다고 판단되어 우울한 마음이다. 불자들의 생활철학은 인과응보(因果應報)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는 연기(緣起)에 의해 발생하고 열매 맺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어긋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느닷없는 횡재를 기대하는 심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과의 도리를 믿고 열심히 생산 활동에 전념하고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

그래서 재화의 생산분 아니라 분배과정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몰라서 그렇지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있다' 고 현대화된 공양게송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말씀하셨다. 그 어느 것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정확한 노력과 주위에 선행을 쌓는 바라밀행(婆羅蜜行)을 실천해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이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 가다가 돌아오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아 공연한 신경 쓰지를 말고" 유행가 노랫말에도 나온다. 공연한 근심 때문에 인생의 밤길이 멀고 험한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야 할 말이 바로 그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성도절 소홀히 넘겨서는 안된다

지난 음력 12월 8일(양력 1월 8일)은 성도절(成道節)이었다. 성도절은 부처님탄신일 · 열반절 · 출가절과 더불어 불교에서는 4대 명절의 하나로 손꼽는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에는 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기리기 위한 법회를 전국 사찰에서 갖는다.

성도절은 한마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신 날이다. 성도는 성불득도(成佛得道)의 의미를 줄인 말이다. 부처님께서 진리를 구하시기 위해 출가하신 후 6년 고행 후 보리수나무 아래서 깊은 선정에 드셨다가 해탈과 열반락, 무생법인을 증득하신 것이다.

또한 보리수 아래서 최상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은 완벽하고도 완전한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부처님은 단순히 생로병사의 괴로움만을 벗어나기 위해 깨달음을 구하신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우주에 꽉 찬 진정한 진리를 증득하는 것은 당대의 진정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가치였다. 그래서 생로병사를 뛰어넘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레 따라오는 부산물인 것이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확연히 이천 오백년 전에 깨치신 것이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했던 선정(禪定)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것이 주의를 온전히 기울여 낱 마음이 되지 않고 온 마음(專念)이 되게 해 몸과 마음의 현상을 자세하게 살폈다. 부처님은 그렇게 하여 전생(前生)도 보고, 업(業)의 작용도 알고, 연기(緣起)를 깨달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알고 고요한 기쁨, 움직이지 않는 평화를 얻으신 것이다.

이렇게 성도절은 우리 불가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전국 사찰서 성도절 행사가 눈에 띠게 줄어 안타깝다. 연초여서 새해 계획들을 세우느라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불자들은 성도절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새로워진 2014년 조계종 연수교육

조계종 교육 불사는 지난 4년 동안 종단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치적 중 하나다. 현대화되고 표준화된 승가교육과정이 새로이 정립됐고, 학제도 개편됐다. 학인 스님들의 일정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위한 동영상 E-러닝 교육은 일반 스님에게도 확대됐다. 또한 스님들의 재교육을 위한 연수 교육도 완전히 정착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원은 올해 연수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바로 법계별 교육이다. 종단 사상 최초로 시행되는 '법계별' 연수교육은 종단 법계 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및 현대 사회에 맞는 승가상 구현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2박 3일 12시간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법계별 연수는 △종단리더십실무과정(견덕 · 계덕, 승납 5~9년)4회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 (중덕 · 정덕, 승납 10~14년)2회 △종단리더십심화과정 II (중덕 · 정덕, 승납 15~19년)2회 △종단 지도자 과정(대덕 · 혜덕, 승납 20~24년)2회 △종단최고위과정(종덕 · 현덕, 승납25~29년)2회 등으로 구성되며 상 ·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고 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던 해외순례 과정도 기존의 인도, 일본, 중국에 미얀마, 실크로드, 티베트로 대폭 확대됐다.

국내순례 역시 기존 '경주남산불적답사' '백제불교문화답사' 와 더불어 '폐사지 전문사 이지누 씨의 경주 폐사지 순례' 와 '흥선스님의 경북 불교문화유산을 찾아서' 가 신설됐다.

스님들의 연수 교육은 현대적인 승가상을 구현하고 끊임없는 탁마를 요구한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법계별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승납에 맞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는 스님들도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진화하는 승가 교육를 기대한다.

'남북철도' 당위성은

남북 철도 연결이 한반도 평화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평화실천기획단 준비위원회(가칭, 기획단장 진관)는 1월 8일 조계종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 토론회' 를 열고 남북 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통일 위해 남북 철도 개설해야



진관 스님
불교인권위원장

박근혜 정부는 철도 연결을 통해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남북이 철도를 연결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정치를 수행한다면 남한은 일종의 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반도가 남쪽의 섬을 면하려면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정책을 실현해야 바른 정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 간의 경인선을 개통해 운수 영업을 시작한 것이 최초의 철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일제의 약탈, 분단 등 수많은 질곡의 역사 속에서 철도는 우리 민족과 함께해왔다. 이제는 분단으로 끊어진 남북 철도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7월 31일 남북 장관급회담을 통해 남북 철도를 연결구상안이 대두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가칭)한반도평화실천 철도회사를 설립해 남북이 평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국가의 발전과 통일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 철도 개설안'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위기의 한국경제 새 기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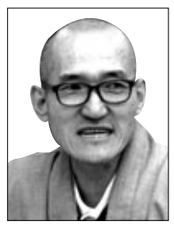


이종석
前 통일부 장관

동북아는 현재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또 중국의 성장과 군사력 확장, 일본의 군사주의 경향과 미국의 방조, 중일 갈등의 격화와 한일 관계의 악화로 균형자 촉진자가 부재한 채 갈등의 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북미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남북관계는 악화되는 가운데 북중 경제 관계는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공통 이익 시대의 실현이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철도 연결이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철도 연결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국익을 증대시킬 것이며 남한의 철도가 북한과 연결되어 한국 경제의 대륙 진출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북한 철도 체계의 복구 및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남북철도 연결은 어려운 한국경제에 있어 기회의 창을 여는 것이며, 좁게는 철도공사와 노조가 흑자기관이 되어 상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新 실크로드 형성하자



법응 스님
불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불교가 남북통일을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국민이 본시 청정본연의 한 마음임을 깨닫도록 할 수 있는 현실적 방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제안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끊어진 철도가 다시 연결되어 한반도 종단을 달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라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교계는 2005년 6 · 15 제 5주년 기념 평양 대통일 축전일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故 법장 스님께서 방북 연설에서 남북철도연결을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런 예를 들어 현재의 불교계는 지혜를 모아 이 제안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한반도는 태평양 해양교통로와 유라시아 대륙의 '철의 실크로드' 로 엮을 수 있는 천혜의 요충지다.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부산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평화의 자원수송으로 공동 관리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더불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대행큰스님 말씀과
어린이들의 그림이 함께하는

2014 마음 다이어리

2014 마음 다이어리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어요

1
하루 하루의
지침이 되어주는
스님의 말씀



2
새싹 같은
마음으로 담아낸
아이들의 그림

3
늘 지니고 다니는
뜻으로 푼
경전의 소중함

4
날짜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free note!!!

♥ 크기 : 가로 14.8㎝ × 세로 20㎝
♥ 가격 : 12,000원

구입처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각 지원 종무소
현대불교신문사 현불샵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